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020-10

201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FY 2011 BUDGET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1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FY2011 BUDGET

목 차

01

| | |
|----------------------------|---|
| 제1부 201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7 |
|----------------------------|---|

| | |
|--|---|
| 제1장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 9 |
|--|---|

| | |
|--|----|
| 제2장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 23 |
|--|----|

02

| | |
|-----------------|----|
| 제2부 2011년도 나라살림 | 31 |
|-----------------|----|

| | |
|--------------------|----|
| 제1장 2011년도 나라살림 종합 | 33 |
|--------------------|----|

| | |
|----------------|----|
| 1. 재정운용 여건 | 35 |
| 2. 세입 규모 | 36 |
| 3. 지출 규모 | 43 |
|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47 |

| | |
|-------------|----|
| 제2장 재정운용 방향 | 51 |
|-------------|----|

| | |
|----------------|----|
| 1. 자원배분 방향 | 53 |
| 2. 24대 중점 추진과제 | 58 |
|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 88 |

| | |
|--------------|----|
|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 89 |
|--------------|----|

| | |
|-----------------------|-----|
| 1. R&D 분야 | 91 |
| 2.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98 |
| 3. SOC 분야 | 107 |
| 4. 농림수산식품 분야 | 120 |
| 5.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 128 |
| 6. 일자리 분야 | 140 |
| 7. 교육 분야 | 146 |
| 8.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153 |
| 9. 환경 분야 | 160 |
| 10. 국방 분야 | 168 |
| 11. 외교 · 통일 분야 | 173 |
| 12. 공공질서 · 안전 분야 | 178 |

03

제3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85

제1장 2011년도 예산 187

| | |
|---|-----|
| 1. 2011년도 예산 총칙 | 189 |
| 2. 일반회계 (Summary of Budget) | 194 |
| 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 228 |
| 4. 국고채무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y) | 230 |
|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 over Expenses) | 231 |
| 6.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 232 |

제2장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39

| | |
|---|-----|
| 1. 기금 요약 (Summary of Funds) | 240 |
| 2.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 242 |
| 3. 기금 수입 (Fund-Revenues) | 243 |
|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 246 |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49

SUMMARY OF FY 2011 BUDGET



01

201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 제1장 |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들판에서 바다에서 가을걷이와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으신 농어민 여러분, 공장에서, 산업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에서 애쓰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20여 개 주요국 정상들이 곧 서울에 오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당당한 주체로 설 것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저는 선진 일류국가의 꿈을 밝혔고, 지난 2년 반 동안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2년 전, 세계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저 역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들을 믿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2년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매주 한번씩 빠짐없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왔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정책과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를 통해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 제1차 워싱턴 G20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을 막고 국제간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했고, 세계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뚜렷한 경제 회복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에 올랐고 당초 전망했던 5.8%대의 성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는 3/4분기에 민간 분야, 제조업 중심으로 37만개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덕택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 속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대타협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 꽃핀 국민의 단합된 마음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경제회복의 온기는 아직 바닥까지 끌고루 퍼지지 않았습니다. 또 물가에도 불안 요인이 있기에,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정부를 믿고 함께 땀 흘려온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G20 서울정상회의가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정상회의에 세계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세계 경제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반드시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안전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의장국인 대한민국에게 지구촌 전체의 지속과 번영을 위해 봉사할 세계사적 소명이 주어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회의에 앞서 열린 경주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거버넌스 개혁은 물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확립에 진전을 이룬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식민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겪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G20 서울정상회의에 이어 2012년에는 세계 최정상 안보협의체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세계 50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삶의 양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 시대의 문 앞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로 화합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은 것도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 저는 금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해 더 큰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공정한 사회'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고,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친서민·중산층 정책에 국정운영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 최우선 과제입니다. 금년도 세계개편안 역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고용이 늘었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를 통해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2년 안에 민관 공동으로 7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 관련 물가를 세심하게 챙기고, 미소금융·햇살론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그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더 강하고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독일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1600개의 ‘작은 거인들’ (Small Giants)이 있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분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생태계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7월 논의가 시작된 이래 대기업들 역시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각고의 자기 혁신과 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 육성할 것입니다. 시장의 힘을 신뢰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동반성장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이끄는 경제의 두 수레바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모든 나라의 꿈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의 바람도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삶의 선진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의 양적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인이 행복하려면 경제적 여유와 건강,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내실 있는 정착과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 모델을 확산시킴으로써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돕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분만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의 안전은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폭력은 물론 교통사고, 유해식품 등 미래의 꿈나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전예방적 재난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는 높은 정신적 만족의 원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나눔사업과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서민 문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녹색성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녹색경쟁(Green Race)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초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야합의로 법을 제정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6월 출범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는 녹색성장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든든한 국제 자산이 될 것입니다. UN과 OECD, 세계경제포럼(WEF) 등은 우리의 녹색성장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녹색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녹색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입니다. 댐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하여 이수·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만의 대전환’이라는 2000년대 이후의 세계사적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한 금융공공기관의 임금 삭감은 IMF 위기 때에도 없었던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역이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제정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편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 통일입니다.

그 첫 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의 구축입니다. 나아가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낙후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도 이 변화의 대열에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일에 적극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족공동체로 나아가감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잘 살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정부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동북아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와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우리의 생존과 경제발전의 주춧돌입니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 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의 많은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농민과 중소기업인, 근로자를 위한 농협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고용 보험법,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일자리 마련, 제도 개선, 지역 발전, 국격 향상 등을 위한 많은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모두 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공정한 사회 구현,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시급한 것들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 보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U라는 거대한 시장의 선점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정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09조 6천억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5.7% 가 늘어난 수준으로, 총수입 증가율 8.2% 보다 2.5%p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0.7%p 개선된 GDP 대비 2.0%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먼저 "서민희망 예산"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의 중심은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로, 이를 포함한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3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빠듯한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예산안 편성은,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보육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 가정의 양육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둘째, 내년부터 전국 26만 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계 기업에 곧바로 취업토록 하고, 충분히 기술을 익힐 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할 경우 대학 진학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대학 입학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라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자립할 기회를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30만 명이 넘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해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도 당당한 우리 국민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배워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들은 또한 글로벌 시대의 인적 자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대비 예산”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에 24조원의 재정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로봇, 바이오신약, 수(水)처리, 그린 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 효과산업 육성과 해외 신흥시장 개척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미래의 성장을 이끌 녹색기술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GNI 대비 0.1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조 6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조 받던 때의 경험을 생각해, 다른 나라를 원조할 때 우리는 정성과 사랑을 담아 두 손으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계는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여 동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와 싸워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더욱 강해지는 도전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세계질서가 바뀌는 대변혁의 갈림길에서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나침반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뿌린 씨앗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살았던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를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비상했던 위대한 시대였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대통령 이 명 박

| 제2장 |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존경하는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경제상황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제공조의 틀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역사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성된 보다 안정적인 세계경제 질서는 각국의 지속적이고 균형된 성장뿐만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경제 상황은 3/4분기 성장률(전년동기대비 4.5%)이 상반기(7.6%)보다 다소 둔화되긴 하였으나 두자리 수의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소비·투자를 포함한 내수도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고 일자리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등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에 정부가 전망한 5.8%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 예산의 의미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간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의 위기극복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들이 있습니다. 수출·투자 등 각종 지표의 견조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확산되어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완전히 개선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회복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나라살림의 전체 모습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309조 6천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5.7%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5.7%)을 총수입 증가율(8.2%) 보다 2.5%p가 낮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금년(Δ 2.7%)보다 0.7%p 줄어든 GDP 대비 Δ 2.0%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13~'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금년(36.1%)보다 0.9%p 감소한 35.2%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소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2011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지금부터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희망 예산”입니다.

빠듯한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된 3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 특성화고 교육, 다문화가족 사회정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배움의 기회를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전국 26만 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추가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도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갖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여 능동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전체 복지분야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5.7%) 보다 높은 6.2% 수준이고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 27.9%가 됩니다. 복지지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통한 자립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는 3대 지원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에서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연간 환산규모로 전년(38만명)보다 늘어난 40만명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제, 미래 산업인력 양성 등을 확대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2010년 보다 8.0% 증가한 41조 3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고 금년에 도입한 든든학자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자율형 고교 등 다양한 학교모델을 확산시키는 등 초·중등 공교육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0% 증액한 5조 7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대비 예산”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는 일 못지않게 위기 이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미래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8.6%가 늘어난 14조 9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녹색원천기술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녹색성장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15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한시적으로 반영된 완료사업을 제외하면 금년보다 5.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슈퍼 4천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SOC 분야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금년보다 다소 감액된 24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철도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해 녹색 성장을 위한 투자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하여 가뭄과 홍수, 물 부족 등 시급한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하천을 여가·문화·관광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총 17조 7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의 고품질화, 녹색산업화로 강소(強小) 농어업을 육성하고 FTA 등 시장개방과 농어민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화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올해보다 5.0% 늘어난 4조 1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을 대폭 증액하여 지방재정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세종시 건설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도 당초 계획대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한 대비태세 확립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군 관사와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는 등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5.3%가 늘어난 13조 6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전 재해예방 투자를 지속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일 분야는 3조 7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도록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금년 1조 3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과미흡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정비하고 국고보조사업 일몰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세출부문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등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누수와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금년의 2조 5천억 원보다 크게 감소한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전국적 대규모 사업들의 감소로 전체 임대형 민자사업 수요가 줄었지만 늘어나는 문화·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공익기반시설 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요청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와 싸워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더욱 강해지는 도전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고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가 한껏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도 얻었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재와 미지(未知)의 미래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 앞에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가야할 먼 길이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해 더 큰 희망과 활기로 가득찬 공정한 사회가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희망과 미래대비를 위한 2011년도 예산안이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윤 증 현**

02

2011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11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 제1장 |

2011년도 나라살림 종합

1 재정운용 여건

금년도 세계경제는 작년보다 성장속도가 소폭 둔화되겠으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지역의 재정불안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표 1-1 •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연간 %)

| | 세계 | 미국 | EU | 일본 | 중국 |
|------|-----|-----|-----|-----|-----|
| OECD | 4.2 | 2.1 | 1.7 | 1.9 | 9.5 |
| IMF | 4.2 | 2.3 | 1.5 | 1.5 | 9.6 |

* 자료 : IMF('10년 10월), OECD('10년 11월)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수출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임금 회복, 금융시장 안정,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소비,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가 전망된다. 다만,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표 1-2 • 2011년 경제 전망(%)

| | '09년 | '10년 ^e | '11년 ^e |
|-------------|-------|-------------------|-------------------|
| 경제성장률 | 0.2 | 6.1 | 5 내외 |
| - 민간소비 | 0.2 | 4.2 | 4.3 |
| - 설비투자 | △9.1 | 23.8 | 7.0 |
| - 건설투자 | 4.4 | △1.7 | 2.1 |
| 수출증가율(통관기준) | △13.9 | 28.6 | 10.2 |
| 수입증가율(통관기준) | △25.8 | 31.8 | 14.8 |

* 자료 : '11년 경제정책방향('10.12.14)

2 세입 규모

| 2-1 | 총수입 : 2010년 대비 8.1% 증가한 314.4조원

경제 성장을 증가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 등에 따라 2011년 총수입은 2010년 대비 8.1%증가한 314.4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10년 대비 8.9% 증가한 212.1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10년 대비 10.1% 증가한 187.6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1년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성장률 증가 등으로 대부분의 세목이 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188.9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3.2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0년 대비 6.5% 증가한 102.3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 2011년 총수입 전망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총 수입 | 290.8 | 314.4 | 8.1 |
| ○ 예산 | 194.8 | 212.1 | 8.9 |
| (국세) ¹⁾ | (170.5) | (187.6) | (10.1) |
| 일반회계 | 171.7 | 188.9 | 10.0 |
| 특별회계 | 23.0 | 23.2 | 0.8 |
| ○ 기금 | 96.0 | 102.3 | 6.5 |
| (사회보장성기금) ²⁾ | (51.7) | (55.4) | (7.2) |

1)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차감 기준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참고]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3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4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 2-2 | 예산 수입 : 2010년 대비 8.9% 증가한 212.1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세입 : 2010년 대비 10.0% 증가한 188.9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데 2011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0년(163.5조원) 대비 10.6% 증가한 180.8조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0년(8.3조원) 대비 Δ 1.3%가 감소한 8.1조원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세목별로 조세수입 규모를 추정한 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이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10년 대비 10.5% 증가한 15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성장률 증가, 기업실적 상승, 취업자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고르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특히, 관세수입은 2010년 예산 대비 22.5% 증가한 11.4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 국세수입 증가율 10.6%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서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세외수입과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2011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0년 예산(8.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8.1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식매각수입이 0.5조원 감소한 반면 경상세외수입이 0.4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경상세외수입은 2010년(7.0조원) 대비 5.4% 증가한 7.4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등 경상이전수입 4.6조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9조원, 출자배당수입 등 재산수입 0.5조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1.4조원으로 전망하였다.

표 2-2 • 2011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합 계(I+II) | 171.7 | 188.9 | 10.0 |
| ○ 국세(I) | 163.5 | 180.8 | 10.6 |
| 내국세 ¹⁾ | 136.9 | 151.3 | 10.5 |
| 관세 | 9.3 | 11.4 | 22.5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1.7 | 12.4 | 5.7 |
| 교육세 | 4.5 | 4.6 | 1.3 |
| 종합부동산세 | 1.0 | 1.1 | 2.1 |
| ○ 세외수입(II) | 8.3 | 8.1 | △ 1.3 |
| 주식매각수입 | 1.3 | 0.8 | △ 38.1 |
| 경상세외수입 | 7.0 | 7.4 | 5.4 |

② 특별회계 세입 : 2010년 대비 0.8% 증가한 23.2조원

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23.0조원) 대비 0.8% 증가한 23.2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용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자체세입중에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정부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11년 6.9조원 수준으로 2010년(7.0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부담금 및 수수료 등 자체세입은 2010년(16.1조원) 대비 1.7% 증가한 16.3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 2011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합 계(I+II) | 23.0 | 23.2 | 0.8 |
| ○ 국세(I) ²⁾ | 7.0 | 6.9 | △ 1.4 |
| ○ 자체세입(II) ³⁾ | 16.1 | 16.3 | 1.7 |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과년도수입 등으로 구성

2) 주세·농어촌특별세

3)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용자회수, 수수료 등

[참고] 2010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

일자리 창출 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 7% → 임투공제 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임투공제 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 지역특구·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고용증대시 투자금액의 20% 추가지원)
- 고용유발업종(청소업, 경비업, 인력공급업 등) 세제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서민생활 안정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8% → 6%)
- 대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및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중량 2톤미만 농업용로더, 양송이 재배용 복토 등)
- 경차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1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기준공제 1~2% → 우대내용 1.3~2.6%)
-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기준공제 3/103 → 우대내용 개인 8/108, 법인 6/106)

지속성장 지원(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3D, LCD 등)
-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투자세액공제제도(3%) 일몰연장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3%) 일몰연장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2자녀 50 → 100만원, 2자녀 초과 100 → 200만원)

재정건전성 제고

- 비과세·감면 정비(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등 축소·폐지)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등)

| 2-3 | 기금 수입 : 2010년 대비 6.5% 증가한 102.3조원

2011년 기금 수입은 2010년 대비 6.5% 증가한 102.3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9.3% 증가한 37.6조원이고, 용자원금 회수는 6.8% 증가한 21.9조원, 재산수입 등 기타수입은 4.1% 증가한 42.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용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2010년 보다 9.3% 증가한 37.6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회수하는 용자원금 회수는 2010년 보다 6.8% 증가한 21.9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재산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10년 대비 4.1% 증가한 42.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 2011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합계(Ⅰ+Ⅱ+Ⅲ) | 96.0 | 102.3 | 6.5 |
| ○ 사회보장기여금(Ⅰ) | 34.4 | 37.6 | 9.3 |
| ○ 용자원금 회수(Ⅱ) | 20.5 | 21.9 | 6.8 |
| ○ 이자수입 등 기타(Ⅲ) | 41.1 | 42.8 | 4.1 |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국민주택기금 용자원금 회수 증가 등으로 2010년 대비 8.1% 증가한 29.1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6.9% 증가한 65.6조원, 계정성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원금 회수 감소 등으로 2.5% 감소한 7.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5 • 2011년 기금 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 ¹⁾ (B) | 증감률(B/A) |
|------------------------------|---------|------------------------|----------|
| 합 계(53개) | 96.0 | 102.3 | 6.5 |
| ○ 사업성 기금(43개) | 26.9 | 29.1 | 8.1 |
|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²⁾ | 61.4 | 65.6 | 6.9 |
| ○ 계정성 기금(4개) | 7.8 | 7.6 | 2.5 |

참고로 국회에서 확정된 총 64개 기금운용계획상의 기금수입(기금운용규모)은 369.3조 원이나 통합재정의 관점의 총수입은 102.3조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

둘째, 금융성기금 및 외평기금은 순수 재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53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총수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신설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지출 규모

| 3-1 | 총지출 규모 : 2010년 예산 대비 5.5% 증가한 309.1조원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2011년도 총지출은 309.1조원으로 2010년 292.8조원 대비 5.5%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지출은 216.3조원으로 2010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170.4조원, 특별회계는 45.9조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6.6% 및 1.1% 증가하였다.

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의 급여지출 증가, 차입금이자상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2010년 대비 6.0% 증가한 92.7조원 수준이다.

표 3-1 • 2011년 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총 지 출 | 292.8 | 309.1 | 5.5 |
| - 예 산 | 205.3 | 216.3 | 5.4 |
| · 일반회계 | 159.9 | 170.4 | 6.6 |
| · 특별회계(18개) | 45.4 | 45.9 | 1.1 |
| - 기 금 | 87.5 | 92.7 | 6.0 |

*통합재정지출(총지출-용자수입) :('10년) 264.4 → ('11년) 279.5조원 (5.7% 증)

[참고]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 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text{통합재정규모} = \text{경상지출} + \text{자본지출} + \text{순용자(용자지출 - 용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용자거래와 기업 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현재 일반정부 재정규모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포함되며 공기업은 제외된다.

| 3-2 | 예산 지출규모 : 2010년 예산 대비 5.4% 증가한 216.3조원

2011년도 총지출상 예산지출의 규모는 2010년 예산 대비 5.4% 증가한 216.3조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 대비 6.6% 증가한 170.4조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 1.1% 증가한 45.9조원이다.

총지출상 일반회계는 주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2010년 예산 대비 5.4% 증가한 216.3조원 규모이다. 먼저,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반영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별회계는 2010년 예산 대비 1.1% 증가한 45.9조원이며, 기타특별회계 13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로 총 18개로 되어있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간 및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지출증가율은 4.3%이다.

표 3-2 • 2010년 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예산 지출 | 205.3 | 216.3 | 5.4 |
| - 일반회계 | 159.9 | 170.4 | 6.6 |
| - 특별회계 | 45.4 | 45.9 | 1.1 |
| 예산순계 | 225.9 | 235.6 | 4.3 |

| 3-3 | 기금 지출규모 : 2010년 대비 6.0% 증가한 92.7조원

2011년 기금 지출 규모는 2010년보다 6.0% 증가한 92.7조원 이다.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25.1조원으로 2010년보다 6.2% 증가하였다.

2011년도 기금 지출규모는 2010년보다 6.0% 증가한 92.7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2010년 대비 5.2% 증가한 75.1조원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을 반영하여 2010년보다 6.5% 증가한 37.9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10년 대비 4.0% 증가한 1.4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10년 대비 9.8% 증가한 16.3조원이다.

표 3-3 • 2011년 기금 지출규모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합 계 (53개) | 87.5 | 92.7 | 6.0 |
| -(사회보장지출 ²⁾) | (23.6) | (25.1) | (6.2) |
| 사업비 | 71.4 | 75.1 | 5.2 |
| - 사업성 기금(43개) | 33.2 | 34.9 | 5.1 |
|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³⁾ | 35.6 | 37.9 | 6.5 |
| - 계정성 기금(4개) | 2.6 | 2.3 | △12.3 |
| 기금운영비 | 1.3 | 1.4 | 4.0 |
| 차입금이자상환 | 14.8 | 16.3 | 9.8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신설

2)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3)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4-1 |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1년 통합재정수지는 5.3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Delta 25.0$ 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이는 2010년 보다는 통합재정수지로는 7.3조원, 관리대상수지로는 5.1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세입측면에서는 경제성장률 상승과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유예 등에 따라 국세 수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며, 국유재산 임대·매각수입, 재화 및 요역 판매수입 등 경상세외 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세출측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지원, 미래대비 투자소요 등 지출소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지출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입여건 개선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지출 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합재정수지는 5.3조원 흑자로 2010년 보다는 7.3조원 개선할 계획이며, 관리대상수지는 $\Delta 25.0$ 조원 적자로 2010년 보다는 5.1조원 개선할 계획이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에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Delta 2.0\%$ 로서 2010년 $\Delta 2.7\%$ 보다는 0.7%p 개선된 것이다.

표 4-1 • 2010년 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통합재정수지(Ⅰ) | △2.0 | 5.3 | 7.3 |
| (GDP 대비, %) | (△0.2) | (0.4) | - |
| -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Ⅱ) | 28.1 | 30.3 | 2.2 |
| 관리대상수지(Ⅰ-Ⅱ) | △30.1 | △25.0 | 5.1 |
| (GDP 대비, %) | (△2.6) | (△2.0) | - |

[참고] 관리대상수지란 ?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원금 소요(2003년~2006년까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장래 연금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이 초기단계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실제 국가채무의 증가와 관리대상수지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지표로서 관리대상수지는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대상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 4-2 | 국가채무

2011년 국가채무는 2010년 예산의 전망치인 400.4조원(GDP 대비 34.7%) 보다 35.1조원 증가한 435.5조원(GDP 35.1%)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17.2조원), 일반회계 국채(21.0조원) 등에 기인한다.

국가채무 전망치 400.4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0.5% 수준인 220.0조원이며, 나머지 49.5% 수준인 215.5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용자채권 등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11년 기준 146.7조원)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관리하여 적정수준 유지 노력을 강화하여 채무비중을 50%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의 외평채와 국고채로 구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에 순수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국민주택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 국가채무 (2011년 예산 기준)

(단위:조원, %)

| | '09년 결산 | '10년 | | '11년 예산 |
|------------|---------|--------|--------|---------|
| | | 예산 | 전망 | |
| ○ 국가채무 | 359.6 | 407.2 | 400.4 | 435.5 |
| (GDP대비, %) | (33.8) | (36.1) | (34.7) | (35.1) |
| ① 적자성 채무 | 168.8 | 196.2 | 200.0 | 220.0 |
| 일반회계 적자국채 | 97.0 | 126.8 | 125.7 | 146.7 |
| (순증) | (34.0) | (29.3) | (28.7) | (21.0) |
| 공적자금 상환 | 49.5 | 48.0 | 47.0 | 47.0 |
| 지방정부순채무 | 13.5 | 12.6 | 19.0 | 18.2 |
| ② 금융성 채무 | 190.9 | 211.0 | 200.3 | 215.4 |
| 외평기금·채권 | 104.9 | 124.8 | 121.2 | 138.4 |
| 주택기금·채권 | 48.5 | 50.3 | 49.0 | 48.2 |
| 공자기금 융자계정 | 13.1 | 11.1 | 11.3 | 9.2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20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2011년 예산기준으로 GDP 대비 35.1% 수준이다. IMF 전망자료에 의하면 G-20 국가의 채무수준은 GDP 대비 미국 99.3%, 일본 234.1%, 독일 76.5% 등이며, G-20 평균은 78.8%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G-20 국가들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국채발행 등 적자재정에 의존한 결과, 최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표 4-3 • 국가채무 국가간 비교 (2011년 기준)

|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G-20 평균 |
|--------------|------|------|-------|------|------|------|---------|
| 국가채무 /GDP(%) | 35.1 | 99.3 | 234.1 | 76.5 | 87.6 | 81.9 | 78.8 |

| 제2장 |

재정운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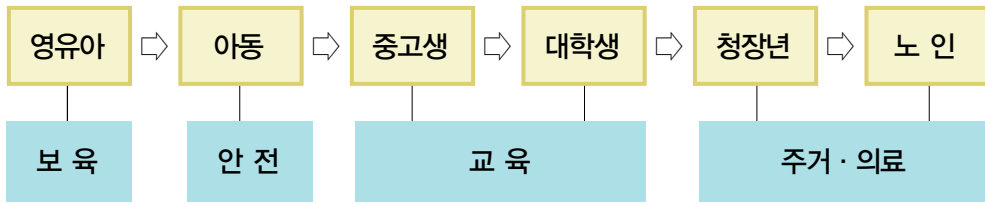
1 재원배분 방향

정부는 지난 2년여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고, 세계에서 위기극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예산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2011년 예산은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서민희망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생애단계별·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과제를 선정하여 금년(29조 1천억원) 보다 10.1% 증가한 32조 1천억원을 지원토록 하였다.

생애단계(life cycle)별 맞춤형 지원은, 생애기간중 가장 필요한 (1) 보육 (2) 아동안전 (3) 교육 (4) 주거·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 보육비 전액 지원·학교주변 CCTV 설치 확대·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5) 장애인 (6) 노인 (7) 저소득층 (8)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서민희망예산은 (i) 일을 통한 자립 유도 (ii)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iii)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 등 3가지 원칙하에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타겟으로 지원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친서민 지원과는 차별화 하였다.

20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이면서,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미래대비예산”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하고 금년(20.8조원) 보다 14.1% 증가한 23.7조원을 반영하였다.

우선, 미래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시장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선점되지 않은 로봇, 바이오·신약 등 첨단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문화 콘텐츠, 보건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0대 핵심소재(WPM : World Premier Material) 개발 지원(1,000억원), SW기술(WBS : World Best Software) 개발지원(900억원) 등 세계 일류상품을 만드는 World Best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수출이 예상되는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녹색성장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및 에너지 절약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녹색기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다.

아울러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종자자원 개발·보급, 한식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지원 확대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신기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천개를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한다. 소상공인의 창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형 수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하여 골목수퍼 4천개('12년까지 1만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할 것이다.

한편, 2011년 예산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을 대폭 증액하여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지원하였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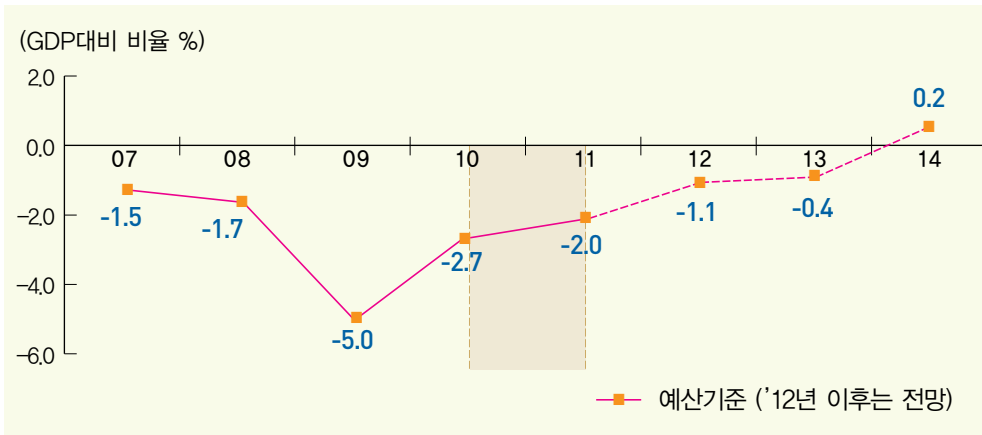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력 증강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장병사기진작 및 복무여건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서북도서 등 접경지역 긴급 전력 보강(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및 핵·미사일, 특수부대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충 수요를 중점 반영하였고, 민통선 이남 25km이내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 및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병영생활관, 군관사, 독신숙소 등 장병주거시설 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2010년 $\Delta 2.7\%$ \rightarrow 2011년 $\Delta 2.0\%$ 로 0.7%p 개선함으로써,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4년 흑자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10년 36.1% \rightarrow 2011년 35.1%로 1.0%p 개선하고, 2014년까지 당초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30%대 중반 목표를 30%대 초반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해나감과 동시에, 성과미흡사업 구조조정, 보조금 일몰제 도입 등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과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등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림 1-1 ● 관리대상수지 추이



공정한 사회

공평, 책임

자율, 창의

서민희망 예산

- 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 ②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③ 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④ 주거인정과 필수의료 지원
- ⑤ 장애인 삶의 질 개선
- ⑥ 노인 사회참여 촉진
- ⑦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 ⑧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건설

미래대비 예산

- ① 신성장동력 확충
- ②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 ③ 4대강 살리기
- ④ 기후변화 대응
- ⑤ 글로벌 리더십 강화
- ⑥ 농어업·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재고
- ⑧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 회복

2 24대 중점 추진과제

1.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 (2)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3)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4)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
- (5) 장애인 삶의 질 개선
- (6)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서비스 확대
- (7)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 (8)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

2.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 (9) 신성장동력 산업 지속 확충
- (10)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 (11) 4대강 살리기 지속 투자
- (1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개선
- (13) 국제기여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 (1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식품산업 육성
- (15)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16)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3. 지역 경제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예산

- (17) 지방재정 안정화 및 내실화
- (18)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 (19) 북한위협 대비 전력 증강 및 장병사기 진작
- (20) 국민생활 안전 보호 및 재해예방 강화
- (21) 국가유공자 지원 및 공무원 처우 개선

4.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 (22) 재정건전성 회복
- (23) 국민연금 등 기금재정 관리 강화 및 보조금 일몰제 도입
- (24) 일자리 사업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2-1 |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보육비 전액지원

만 0~5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이하 가정이 라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소득하위 50% 가정에서 소득하위 70% 가정으로 확대한 것으로 영유아 92만명에게 제공될 것이다. 1인당 최대 27만원까지 추가 혜택이 가능하다.

* 소득인정액 :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

●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대폭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비 지원도 부부합산 월소득 인정액 600만원 수준의 가정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로 인해 수혜자는 18천명('10년)에서 27천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1인당 최대 39만원까지 추가혜택이 가능하다.

● 자가 양육수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차상위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지급액도 월 10~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취업여성의 출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기존 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에 대해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역시 소득하위 50%에서 70%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재취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77개소였던 새로일하기센터를 2011년도 90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보육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육성한다. 2011.7월 부터 평가인증 결과 우수등급 이상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월 150~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 65개소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0~480만원을 지원한다. 퇴근시간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야간보육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6천명에서 1만명으로 증원한다.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로 활용토록 기존 10개소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20개소 까지 확대하고 개소당 1.3억원을 지원한다.

(2)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학교와 학교주변 안전 확보

학교주변 순찰 및 등·하교길 안전을 강화하고자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를 1,740명에서 2,270명으로 증원하고 노인 자원 봉사대를 3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또한 2010년 안전이 취약한 지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경비인력을 1,048명 배치한데 이어, 2011년에는 1,600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도로, 공원 등에 CCTV를 7,964개소에서 10,772개소로 증가시키고 통합관제센터를 27개소에서 61개소로 대폭 확대 설치하여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성범죄자 전자감독 강화 및 신상 공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2010년 22억원에서 2011년 5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19세 미만 아동 보호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상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TV,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4억원)

● 성폭력 피해아동 및 위기학생 보호 강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위한 아동 성폭력 전담 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며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전문가 치료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465억원에서 784억원으로 확대한다. 위협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 후 경찰에 인계하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2,000개소 추가 지정한다. (24,710→28,710개소)

(3)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특성화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

이미 지원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특성화고 재학생 26.3만명에게 수업료·입학금(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턴십 사업(4백명에게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신설하였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등 대학생 장학금 확대

1,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여 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 1.9만명에게 1인당 연간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도 2010년 1,817억원에서 2011년 2,31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 장학금 혜택이 적은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신설하여 전문대 학생 1,85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평균 52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

공하고,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75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저소득·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충

학습지도·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2,964개소에서 3,260개소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월320만원에서 월3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아동통합서비스 센터를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충한다. 저소득 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자립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을 확대한다.(63→73억원) 또한 장애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를 2010년 2,000명에서 2011년 2,316명으로 증원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28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 저소득층 50%에게 문화바우처 제공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권자)이 공연, 영화 등을 선택·관람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기초수급권 가구 아동·청소년의 스포츠강좌료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저소득층의 여행비용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등 소외계층 문화·여가 향유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문화바우처는 2010년 기준 35만명 수준에 불과하던 것을 85만 가구(가구원 기준 164만명 수준)가 누릴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인터넷 회원가입 및 포인트 방식의 불편함, 일률적인 50% 할인 프로그램만 제공되는 등으로 이용률이 낮았으나, 전용카드 발급으로 어르신 등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사람도 쉽게 사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용률이 제고될 전망이다.

*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지원규모(국고) : 2010년 96억원 → 2011년 379억원

●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공연장 등 문화시설 접근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 순회공연·연극 등을 개최하고, 도서 등 낙후지역에 우수문고를 배포하는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10년 93억원 → ’11년 133억원) 아울러, 소외지역 학교를 문화예술교육 시범학교(“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한다.(’08년~’11년 10개교, 2011년 신규 15개교 추가)

(4)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

●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주택시장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2010년 건설목표보다 3만호 확대한 21만호를 건설한다.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11만호 건설하고(52,969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주변 시세보다 15%이상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10만호 건설(42,064억원)하여 주택시장 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였다.

● 사회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그간 주거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저소득 유주택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1,2만호의 지붕·화장실·난방시설 등을 개보수한다(638억원). 특히, 다양한 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기초수급자→최근 5년 이내 탈수급자) 및 사업물량(8→12천호)을 확대한다. 또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단지(368개 단지)의 세대내부 및 주민편의 시설 개선(670억원)을 통해 노후 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이 제고될 전망이며, 사고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노후 LPG 호스를 교체(8.9만 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3,700개소)의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주거안전도를 향상시킨다.

● 도심 노후 지역 정비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여(120→500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된다. 또한, 부랑인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노후화된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예산을 15억원에서 36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결핵 발생률 '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

결핵은 후진국성 질병이지만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2010년 현재 10만명당 88명인 결핵발생률을 '13년까지 10만명당 4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노숙자 폐결핵 집중치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병의원 및 보건소에 결핵전담 간호사를 기존 47명에서 326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결핵환자 3만3천명에 대한 진료비(본인부담금의 1/2) 및 환자 가족 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 응급의료 및 전염병 예방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20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헬기의 도입 및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구급지원센터를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증외상·심뇌혈관 등 핵심응급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최근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 감염 관리를 위한 사업이 대폭 확대되며(4→44억원), 지방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17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불법 마약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관리와 마약류 의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을 1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출산과 자살예방 지원으로 생명존중 사회 조성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확충하고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역 3곳에 산부인과를 신규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 및 산모의 출산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3회까지 1회당 150만원을 지원하던 체외수정시술비를 180만원까지 확대(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액지원)하고 4회 시술자에 대하여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출산진료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인공임신 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상담을 신규로 실시하며, 자살예방 공익광고 확대·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생명존중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다.

● 식중독 예방 등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

집단 급식 등 위생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성 식중독균 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24억원에서 3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 등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5) 장애인 삶의 질 개선

●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2011.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로 전면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을 1급 3만명에서 1급 5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제공하던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의 일상생활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연간소요예산으로 1,348억원에서 2배 이상인 2,800억원이 필요하다.

● 장애인일자리 1만개 이상 제공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한다. 예산을 204억원에서 273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총 10,3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연 54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중증 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에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외출지원, 응급조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16억원의 예산으로 688가구를 지원하던 것을 4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2,50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뇌병변·자폐 등 장애가 있는 아동 3만7천명에게 언어·음악·미술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속 지원한다.

● 장애인의 의료·체육서비스 등 확충

의료급여 2종(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의 15%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2010년도 7만명 연 20만원에서 2011년도 10만명 연 31만원으로 인원 및 규모를 확대한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10년 63억원에서 2011년 70억원으로, 기능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 예산을 2010년 8억원에서 2011년 11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노후화된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보수·증개축 등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374→577억원)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기구 단가를 기존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대상 또한 26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였다.

(6)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서비스 확대

● 노인 일자리 20만개 제공

문화 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2010년 18.6만명에서 2011년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은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일자리 기회도 제공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1,000명, 월 16일 근무, 월 식비·교통비를 13만원 및 20만원 상당의 나눔포인트 지급)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27만명에서 31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독거노인에게 대한 가사지원 등 돌봄서비스 역시 14.6만명에서 17.3만명으로 확대한다.

● 농지연금 도입을 통한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만약 70세 고령농이 1.5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면 월 49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

전국 6만여개의 경로당에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연장하고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을 특별 지원한다.

(7)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5.6% 인상

올해에는 최저생계비가 작년 월 136.3만원(4인 가구)에서 143.9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급여수준이 상향되고 수급범위가 확대된다. 인상을 5.6%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수급자의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종전 15만원(3인 가구, 월평균)에서 21만원으로 확대하였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수급자가 근로와 동시에 일정금액(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3년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적립액의 2배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탈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 지급

올해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3년 내 탈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가구원에게 의료급여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가 근로소득 증가로 탈수급되더라도 급여를 지속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자활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규 추진

고용상황이 개선되어도 단기간에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총 4만명에게 일자리를 신규 제공한다.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재산 1.35억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원한다.

(8)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

● 다문화가족 보육비 전액 지원

2011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의 영유아(28천명)에게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580억원)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상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지도사가 2010년 100명에서 2011년 200명으로 확대하고, 이중언어강사(100명)를 새롭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

교통, 언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교육·상담서비스(한국어, 양육정보 등)를 제공하는 방문교육 지도사가 2010년 2,240명에서 2011년 3,200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및 폭력피해 시 자활지원 강화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하고자 취업멘토링 및 인턴지원(6개월간 50만원 지원, '10년 150명 → '11년 466명)을 강화한다. 한편,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쉼터,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거주·양육·직업훈련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2-2 |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9) 신성장동력 산업 지속 확충

● 첨단융합 · 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

잠재시장은 크나 시장 선점자가 없는 로봇, 바이오 · 신약, 그린카 등 첨단융합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대표적 첨단 융합분야인 로봇 관련 융합제품 · 전략부품개발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10년 812억원 → '11년 1,327억원)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 건강 관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바이오 · 신약산업의 도약기반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10년 906억원 → '11년 1,101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전기차 등 그린카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10년 1,039억원 → '11년 1,360억원)하였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 · 보건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 융복합 콘텐츠 개발 사업('10년 425억원 → '11년 460억원)과 보건 의료기술개발 사업을('10년 1,281억원 → '11년 1,385억원) 증액 반영하였다.

● 세계 일류상품을 만드는 World Best 기술개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선도기술, 부품소재, 소프트웨어(SW) 개발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원전과 같이 미래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 선도기술* 지원을 위해 2011년에 955억원을 반영하였다.

* 대상 : 자동차 · 조선 등 주력산업, 융합 · 신산업, 부품, IT, 에너지

다음으로 핵심부품 기술력 강화 및 중국 등 글로벌 新시장 공략을 통한 부품소재 세계 5강(G-5) 진입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10대 핵심소재(WPM : World Premier Material *) 개발 사업에 2011년 1,000억원을 반영하였다.

* 대상 :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LED, 자동차·조선 강판, 섬유 등

마지막으로 i-Phone 사례처럼 하드웨어(HW)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SW 기술(WBS : World Best Software) 개발 지원을 위해 2011년 900억원을 반영하였다.

● 창의적 기초연구에 1조원 투자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Catch-up) 연구에서 창조형(Leading-up) R&D로의 전환을 통한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정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012년까지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도에는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33.0%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2011년도에는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등 기초연구지원사업에 약 1조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공계 교수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10년 6,500억원 → '11년 7,500억원)하고, 대학의 창의적 소규모·집단연구 지원도 확대('10년 1,152 → '11년 1,202억원)하였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100억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200억원) 등 기초과학연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주·항공 등 거대과학분야 지원 확대

우주, 항공분야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서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주분야는 나로호 3차 발사를 지원(180억원)하고, 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10년 154억원 → '11년 315억원) 하였다. 또한, 정지궤도 복합위성('10년 21억원 → '11년 41억원) 등 위성개발 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우주분야 기술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항공분야는 2011년도에 민항기 완제기 개발을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90석급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민수 완제기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R&D 전문인력 양성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동력분야 핵심인재 양성이 미흡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산업인력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 동력 산업을 견인할 S/W·소재·에너지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R&D 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2010년 1,794억원에서 2011년 1,969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소프트웨어·융복합로봇·엔지니어·디자인·바이오·부품소재·에너지 분야 산학연 연계형 현장·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급연구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파견을 확대하였다.

또한, 산업단지내에 대학의 연구·교육 공간을 설치하여 청년들이 일하면서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를 형성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하였다.(3개 산업단지에 2011년 예산 240억원).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2011년부터 5년간 현장 맞춤형 인력 1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10)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 적극 육성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하도록 원전, 해외플랜트 건설 등 차세대 수출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 대비로 원자력 융합기술('10년 622억원 → '11년 941억원), 플랜트엔지니어링원천기술개발('10년 65억원→'11년 90억원) 등 원전과 해외플랜트 관련 기술개발을 대폭 확대하고, 원전 등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지원시스템 확충, 중소 플랜트 업체의 해외타당성조사 지원을 통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무역보험기금의 무역보험 계약 규모를 대폭 확대(190조원→200조원)하고 수출입은행 및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에 대한 출자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억원), 수출입은행 출자(1,000억원), 인프라펀드 출자(70억원)

● 새롭게 부상하는 +30억 신흥시장 개척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국가에 대한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신흥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경험부족 및 비용부담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KOTRA 등을 통해 해외전시회를 적극 지원하고 기존의 KOTRA의 해외지사(KBC:Korea Business Center)도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시장에 대한 심층적 조사, 해외진출에 대한 컨설팅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255억원), 농식품 중소기업 수출촉진(240억원)

(11) 4대강 살리기 지속 투자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속 지원

보 건설과 준설 공정률은 2010년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했으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1,400억원 감소한 3.1조원을 투자하여 상반기까지 보 건설과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수변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경관거점 36개소를 중심으로 테마초지 군락, 제방 숲 등 수목식재, 생태하천조성 및 4대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1,728km) 등을 완료한다.

표 2-1 ● 4대강 살리기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조원)

| 구 분 | 계 | '09 | '10 | '11 | '12 |
|------|-----|-----|-----|-----|-----|
| 재정투자 | 7.4 | 0.8 | 3.2 | 3.1 | 0.3 |

●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살리기도 지속 지원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4대강 외의 하천에 대해서도 2011년 1.1조원을 투자하여 4대강과 같이 치수·이수·환경·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1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개선

●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및 에너지 절약시설 확충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협의·결정하고, 과태료, 개선명령, 실적공개 등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10년 101억원 → '11년 268억원)한다. 또한, 본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인 국가 통계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도 확대('10년 82억원 → '11년 134억원)할 계획이다.

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에 대한 용자 확대('10년 1,350억원 → '11년 5,400억원)를 통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 태양광 · 풍력 · 원자력 등 녹색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관련 사업을 증액하였다. 우선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수출 400억불의 신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2010년 2,299억원에서 2011년 2,433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제2, 제3의 원전수출로 한국원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UAE 원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한국형 명품원전 개발을 위해 원전 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2010년 1,928억원에서 2011년 2,361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 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개발 사업을 2010년 2,003억원에서 2011년 2,153억원으로 반영하였다.

●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철도 투자비중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탄소배출이 많은 도로투자는 줄이고 철도투자비중*을 확대하는 SOC투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로는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신설 · 확장보다 용량보강(선형개량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철도는 고속철도 적기완공을 통한 국가기간망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도로 : 철도 투자 = ('10) 1.50 : 1 → ('11) 1.38 : 1

고속철도 투자를 대폭 확대('10년 5,700억원 → 2011년 9,000억원)하여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2014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 운영중인 인천공항철도에 KTX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연결선 건설을 추진('11년 800억원 신규반영)하여 '13년부터 KTX운행지역에서는 환승없이 KTX를 타고 직접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선(익산~순천) 전구간의 완공('10년 437억원 → 2011년 900억원)소요를 반영 하는 등 완공사업 위주로 중점 투자하였다.

* ('11년 완공사업) 경춘선(서울~춘천), 동순천~광양, 순천~여수, 제천~도담, 망우~금곡, 부산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강남~정자),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9개 사업

● 수질 개선 및 물 확보를 통한 생태환경 개선

4대강 및 기타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 투자규모를 2010년 21,317억원에서 2011년 22,706억원으로 증가시켰으며, 특히 오염이 심한 일부 지류·지천에 대해 822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생태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하였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수도작 중심의 우리 농업 여건 등을 감안, 113개 농업용 저수지 뚝 높임 사업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 1.1조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2.8억m³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농어촌 정주여건 등도 함께 정비한다.

(13) 국제기여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분담금 대폭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10년 1.3조원에서 2011년 1.6조원으로 증액(20% 증)하였고, 이에따라 국민소득(GNI) 대비 ODA비율은 2010년 0.13%에서 2011년 0.1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UN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국제기구분담금 규모를 2010년 6,806억원에서 2011년 8,156억원으로 대폭 확대(19.8% 증)하였다.

●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 체육행사의 차질없는 유치·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유치된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 하계U대회의 준비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12년 9월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지원을 통해 녹색성장 관련된 글로벌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2011년 11월 개최 예정인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 2012년 4월 개최 예정인 핵안보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

국제금융기구와 연계한 자원부국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출진흥정책 등 우리 고유의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개도국에 전파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식품산업 육성

● 고품질 농어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고품질 농어업 육성을 위해 종자자원 개발·보급을 확대한다(521 → 782억원). 종자업체들이 입주하여 육종연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신종자 상품화, 우수품종 증식·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생명 자원과 IT·BT 등 첨단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농어업 R&D 투자도 확대한다(7,770 → 8,625억원). 동식물 자원화, 환경친화형·비용절감형 생산기술 개발 등 R&D를 통해 미래 농어업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축산 부문의 체질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한·EU FTA 대응을 위한 축산업 부문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가공원료유(신규 10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1,147 → 1,633억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2007년 11월에 발표한 한·미 FTA 보완 대책('08년~'17년간 총 21.1조원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 한식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 지원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전통음식 원형복원,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을 추진한다(241 → 312억원). 또한, 농식품 주 수출시장인 중국 칭다오에 해외 물류센터를 건립(신규 200억원)하고 전북 익산에 농식품 기업·연구소들이 입주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33 → 40억원)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15)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기술 벤처창업 및 창업 초기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초기기업 기술지원을 확대(220 → 551억원)하고, 창업자금 용자도 대폭 늘릴 계획(11,000 → 14,000억원)이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4천개 육성(99 → 210억원)하고,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도 지속한다.

●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도전」 환경 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소매점의 시설현대화와 공동구매 등 조직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경영개선 교육과 컨설팅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하여 '12년까지 1만개의 골목수퍼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주변의 상권까지 개발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6)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청년·고령자에게 '직업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확대(3.1만명→5만명)하고, 지자체와 지역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2010년 171억원에서 2011년 298억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기존 훈련기관 주도 방식에서 기업 및 훈련생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훈련생이 직접 훈련 직종과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훈련을 3,088억원(전년대비 +1,174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IT·지식서비스 등 미래유망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을 15.6천명(전년대비 +1.9천명) 규모로 실시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훈련생 개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연간 200만원)를 발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직접 선택·수강하는 훈련방식

●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청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 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3.3만명, 1,456억원(전년대비 +3천명, +391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는『청년취업아카데미』 40개소를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청년 320팀에게 팀당 평균 3천만원 수준의 창업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17) 지방 재정 안정화 및 내실화

● 지방이전재원 전년대비 6.3조원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증양으로부터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이 전년대비 6.3조원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표 2-2 ● 지방이전재원 주요 변동내역

(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비 고 |
|-------------|---------|---------|----------|-----------------|
| 합 계 | 896,226 | 959,051 | 7.0 | |
| - 지방교부세 | 273,920 | 301,904 | 10.2 | 내국세 증가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22,980 | 352,831 | 9.2 | (136.9→151.4조원) |
| - 지자체보조금 | 299,326 | 304,316 | 1.7 | |

●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광특회계 인센티브 대폭 확대

공공청사 건축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방교부세 배분시 지자체 자구노력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부여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계획의 인센티브 재원을 대폭 확대('10년 1,000억원 → '11년 1,300억원) 편성하였다.

(18)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 지속 추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180개) 지방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2012년초까지 완료하고, 청사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10년 1.1조원 → ’11년 1.4조원)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주요 공정을 2011년 마무리하고, 2012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광역경제권 발전 투자 본격화

5+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표 2-3 ● 광역경제권 발전 투자 주요 변동내역

(억원, %)

| 주요사업 | ’10년 | ’11년 | 증감률(b/a) |
|----------------|-------|-------|----------|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 3,295 | 3,850 | 16.8 |
| 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 1,115 | 1,220 | 9.4 |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 180 | 370 | 105.6 |

또한 호남고속철도, 음성-제천 고속도로 등 30대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10년 3.5조원 → ’11년 4.0조원, 15.1%)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 SOC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19) 북한 위협 대비 전력증강 및 장병사기 진작

●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 투자 확대

서북도서 지역에 K-9자주포·대포병탐지레이더 증강배치, 정밀 타격 유도무기 등을 도입하고,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설치, 호위함·초계함용 어뢰음향 대항체계 장착 등 대잠능력을 보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탄도탄에 대한 탐지·요격 능력을 구비하고, F-15K 전투기 도입 및 무인항공기 개발 등 감시·정찰, 정밀타격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장병사기 진작 및 복무여건 개선

병영생활관 현대화 및 노후·협소한 군 관사·독신숙소 개선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병영생활관 신규시설 예산의 30%를 조립식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무늬 신형전투복과 식기세척기를 전군에 보급하고, 기능성 전투화와 군화건조기는 전방부대부터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폭파팀(UDT)·해난구조대(SSU)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는 등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화하였다.

(20) 국민생활 안전 보호 및 재해예방 강화

● 주민생활 안전 관련 예산 신규 반영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주민대피시설 확충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아울러, 민통선 이남 25km 이내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민방위 경보시설을 보강하고 주민대피시설을 신규 확충한다.

● 신속한 범죄 대응 능력 강화

각종 범죄·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서별 112신고센터를 지방청 단위의 통합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운용개소를 9개에서 11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동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과 연계하여 범죄와 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설·운영

범죄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624억원)을 신설한다. 구조금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장애 및 중상해자의 지급범위도 확대하였다.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도 투자를 강화한다.

* 유족구조금 단가인상 : 최대 3,000 → 5,400만원

* 장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 1~6급 → 1~10급

●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강화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상관측 장비를 확충하여 재해예보 능력도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편성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재해예방투자 : ('10년) 5,779 → ('11년) 5,818억원

* 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 : ('11년 신규) 200억원

(21) 국가유공자 지원 및 공무원 처우 개선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국가유공자에게 매일 지급하는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4% 인상하고 중상이자 보상금은 6.1~11.3%를, 6.25 군경자녀수당은 11~16.1%를 인상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3만원을 각각 인상 하여 매일 12만원, 18만원을 지급한다.

표 2-4 ● 국가유공자 보상금 변동내역

| 구분 | '10년 보상금 | '11년 보상금 | 증가율(%) |
|-------------|-----------------|-------------|-----------|
| 1급1항~3항 | 월 3,653~3,996천원 | 3,875~4,449 | 6.1~11.3 |
| 경상이자(5급) | 월 1,083천원 | 1,126 | 4.0 |
| 6.25 군경자녀수당 | 월 691~815천원 | 767~946 | 11.0~16.1 |

● 의료복지 등 확충

重輕傷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무료진료와 국가유공자 등이용하는 위탁병원 진료비를 증액('10년, 3,881 → '11년, 4,271억원)지원한다. 진료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보훈중앙병원에 대한 신축 완공('11년, 440억원) 지원 및 재활체육시설에 대한 완공('11년, 104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안장지원을 위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묘역확충지원, 국립영천호국원의 봉안당 건립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봉안담 건립 등을 지원한다('10년)103억원 → ('11년)164억원

● 공무원 처우개선 5.1% 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10년 2년 연속 보수 동결로 출선수범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1년에는 공무원 보수를 적정 수준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민간임금과의 격차, 물가전망 등을 감안하여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5.1% 인상한다.

* 처우개선율(%) : ('03년)6.5 ('05년)1.3 ('07년)2.5 ('08년)2.5 ('09년)동결 ('10년)동결 ('11년)5.1

이러한 보수인상율, 정원증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2011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25.4조원으로 전년대비 5.3% 수준 증가하였다.

* 인건비 규모 : ('10년) 24.1조원 (0.5%증) → ('11년) 25.4조원

| 2-4 |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

(22) 재정건전성 회복

재정수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채무는 2014년까지 30%대 초반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1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Delta 2.0\%$ 로서 2010년 $\Delta 2.7\%$ 보다 0.7%p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2009년~2013년 중기계획대로 2013년~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2011년 국가채무는 GDP대비 35.1%로서 2010년 36.1%보다 1.0%p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당초 30%대 중반 목표였던 것을 30%대 초반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림 2-1 ● 관리대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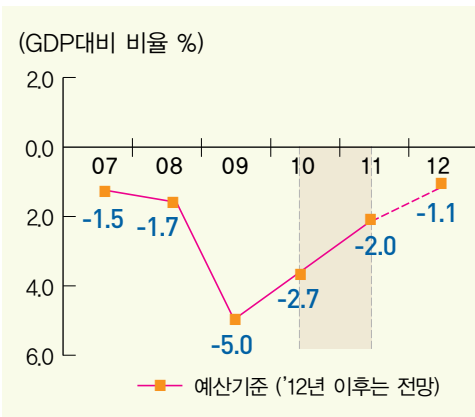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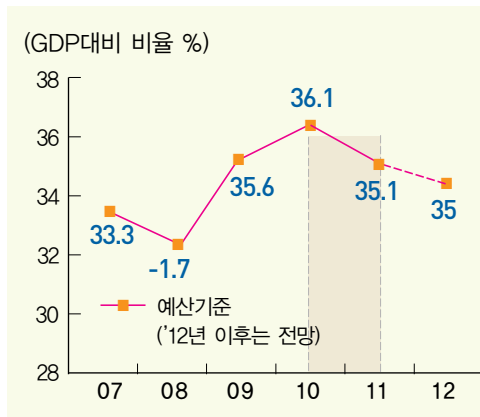


그림 2-2 ● 국가채무 추이



(23) 기금재정 관리 강화 및 보조금 일몰제 도입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무역보험기금, 구조조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11개 기금의 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장래 기금과 함께 대비하고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에는 중장기 기금운용 여건 및 전망, 기금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 부채 전망 및 관리계획, 보유자산의 변동내역 추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보조금 일몰제 도입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였다. 즉, 3년 이상 계속 지원사업 등 828개 보조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즉시 폐지(32개), 단계적 폐지(34개), 집행방식 개선(34개)' 등 100개 사업에 대해 일몰조치를 적용하여, 매년 200여개 수준으로 증가하던 보조사업을 2006년 이후 최초로 감축(△69개)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증가율도 2.4% 수준으로 대폭 둔화시킬 수 있었다.¹⁾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

1) 보조사업수 : ('06)1,163 → ('07)1,421 → ('08)1,711 → ('09)2,003 → ('10)2,122 → ('11)2,053개
보조사업예산 : ('06)30.3 → ('07)32.0 → ('08)38.2 → ('09)40.6 → ('10)42.7 → ('11)43.7조원

(24) 일자리 사업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 효율화

정부는 2010년 7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의 인턴사업, 봉사사업, 직업훈련 등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대폭 통·폐합하여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 일자리 사업수 : ('10년) 202개 사업 → ('11년) 153개 사업

또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79개 중 61개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100~10%)을 설정하여 정부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였다. 일반인을 채용하던 지급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낭비를 최소화하였다.

* 취업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예) : 노인일자리 확충 100%, 지역공동체일자리 80%, 숲가꾸기 50% 등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지속 추진

2010년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보강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부 사업위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 등 타 부처 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급여가 필요하나 누락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수혜자 자격 심사시 연령·건강·직업이력·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시군구별로 배치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통해 과다·중복 등 부적절한 의료기관 이용행위를 방지한다.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 조원, %)

| 주요사업 | '10년 | '11년 | 증감률 |
|----------------|--------------|--------------|------------|
| 1. R&D | 13.7 | 14.9 | 8.7 |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5.1 | 15.2 | 0.3 |
| 3. SOC | 25.1 | 24.4 | △2.7 |
| 4. 농림·수산·식품 | 17.3 | 17.6 | 2.2 |
| 5. 보건·복지·노동 | 81.2 | 86.4 | 6.3 |
| 6. 교육 | 38.3 | 41.2 | 7.8 |
| 7. 문화·체육·관광 | 3.9 | 4.2 | 7.8 |
| 8. 환경 | 5.4 | 5.8 | 6.2 |
| 9. 국방 [일반회계] | 29.6 | 31.4 | 6.2 |
| 10. 외교·통일 | 3.3 | 3.7 | 9.0 |
| 11. 공공질서·안전 | 12.9 | 13.7 | 5.6 |
| 12. 일반공공행정 | 48.7 | 52.4 | 7.5 |
| 총 지출 | 292.8 | 309.1 | 5.5 |

| 제3장 |

분야별 투자계획

1 R&D 분야

| 1-1 | 2011년 재정지원 방향

2011년도 R&D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010년 대비 8.7% 증가한 14조 8,90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미래 선도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해 기초·나노·생명 등의 분야를 확대 편성했으며,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제조·공정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R&D 투자

정부는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원천연구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창조형 R&D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저탄소·녹색분야, IT 융합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우주기술, 핵융합기술, 해양개발과 같은 미래지향적 거대기술 분야의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서 국익증진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신종질병, 식품안전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R&D 투자의 확대 기초를 유지한다.

● 성과확산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강화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노력할 계획이다. 첫째 R&D에 대한 국가 거버넌스 재정립과 과학기술혁신체제 강화를 주도한다. 둘째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통한 성과주의에 입각한 예산반영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넷째 정부출연(연)의 구조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R&D 선진

화를 조기 달성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의 고도화를 통해 R&D 투자 확대가 국가 과학기술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정보의 실시간 수집률 제고, 연구자 중심의 R&D 과제 정보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전주기적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향후 R&D 투자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1 ●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억원)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B/A) |
|---------------|---------|---------|----------|
| R&D 분야 계 | 137,014 | 148,902 | 8.7% |
| · 기초·나노·생명 등 | 35,424 | 38,926 | 9.9% |
| · 에너지·환경 등 | 21,230 | 22,835 | 7.6% |
| · 우주항공·건설교통 등 | 15,091 | 15,740 | 4.3% |
| · 기계·제조·공정 등 | 15,464 | 18,321 | 18.5% |
| · 정보·전자 | 21,789 | 22,972 | 5.4% |
| · 인력·장비구축 등 | 28,015 | 30,108 | 7.5% |

| 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 분야 투자 확대

선진국 추격형(Catch-up)에서 창조형(Leading-up) R&D를 통한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확대한다.

☞ 기초연구 비중 : ('10년) 31.3% → ('11년) 31.1%¹⁾

기존 추격형 연구개발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선도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연구

1) 기초연구 분야의 투자비중에 관한 최종적인 확정 발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에서 '11년 3월중 발표 예정

투자비중을 올해 33%로 확대했으며, 2012년까지 50% 투자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창의적 기초연구 저변확대 및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신진연구자, 여성과학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중견연구자와 리더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의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정목적·특정분야별로 조직화된 소규모 집단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추진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실

표 1-2 • 기초·원천연구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사 업 | '10년 | '11년 | 증감율 | 비고 |
|--------------|-------|-------|-------|----|
| 개인·기초연구 지원 | 6,500 | 7,500 | 15.4%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 | 100 | 순증 | 신규 |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분야 중점 지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시장잠재력이 크고 선점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 신성장동력 투자규모 : ('10년) 1.9조원 → ('11년) 2.2조원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로봇, 바이오 등 시장잠재력이 크고 선점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LED 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에 추가하여 최근 신성장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 기술을 비롯하여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에 대한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첨단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분야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콘텐츠 등 서비스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다.

표 1-3 ● 신성장동력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사 업 | '10년 | | '11년 | 증감율 | 비고 |
|----------------------------------|-------|----|-------|-------|----|
| | 본예산 | 추경 | | | |
|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 3,597 | - | 4,129 | 14.8% | |
| CT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 425 | - | 460 | 8.4%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5,607 | - | 6,288 | 12.1% | |

●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지원

녹색기술 선진화를 통한 녹색강국 건설을 위해 친환경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 **녹색기술 투자규모 : ('10년) 2.2조원 → ('11년) 2.5조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전지구적 문제해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선진화를 통한 녹색강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과 기초·원천연구 확대, 기존산업 그린화·신성장동력화,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을 발전전략

으로 제시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 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2배 이상인 2,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범부처 실행 전략인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09.5)'에서 제시된 27대 중점육성 녹색기술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기술 인력양성과 친환경 그린에너지원 확보,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녹색기술

표 1-4 ● 녹색기술 개발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사 업 | '10년 | '11년 | 증감율 | 비고 |
|-----------------|--------|--------|-------|----|
| (녹색기술개발지원 계) | 21,935 | 25,493 | 16.2% | |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2,299 | 2,433 | 5.8% | |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2,003 | 2,153 | 7.5% | |

●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분야 투자 확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삶의 질' 향상 분야와 공공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공공복지 안전연구 : ('10년) 50억원 → ('11년) 108억원

신종질병, 식품안전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기초를 유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재 R&D 분야의 예산을 꾸준히 증액할 계획이다.

우선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신종 인



백신개발, 식품안전

플루엔자, AI(조류독감바이러스), 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면역백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 또한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재 분야의 투자를 늘렸으며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 부문도 작년보다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 등의 국가재난형 동물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방제, 축산물안전성 위생관리기술개발을 위해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내 축산업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1-5 •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지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사 업 | '10년 | | '11년 | 증감율 | 비고 |
|------------|------|----|------|------|----|
| | 본예산 | 추경 | | | |
| 면역백신개발사업 | 150 | - | 150 | 0.0% | |
|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 | 198 | - | 216 | 9.0% | |

● 거대과학과 글로벌경쟁력 확보 분야 투자확대

미래지향적 거대기술 분야와 글로벌경쟁력 강화 효과가 큰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 한국형 발사체개발사업 : ('10년) 154억원 → ('11년) 315억원
- ☞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개발사업 : ('11년) 200억원 (신규)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자력기술, 핵융합기술, 우주기술, 해양개발, 극지연구 등 국익증진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거대기술 분야의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거대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핵융합실험로, 원자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형 원자로시스템 구축과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원자력 기술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위상 제고와 국가적 현안해결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등에 연차별로 적정소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발사체(KSLV-2) 등 우주 발사체와 위성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서 우주기술 자립기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표 1-6 ● 거대과학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사 업 | '10년 | '11년 | 증감율 | 비고 |
|----------------|-------|-------|---------|----|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1,306 | 1,420 | 8.8% | |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 1,528 | 964 | △ 36.9% | |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 154 | 315 | 105.2% | |

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2-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5.2조원 수준이며, 2010년도 특이소요를(유가완충준비금) 제외할 경우 5.1% 증가한 수준이다. 2011년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반 강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 집중 발굴·육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지능형 로봇, 그린카, 바이오 의료기기 등 녹색·신성장 동력산업 등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수입대체효과가 큰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원전 등 차세대 수출산업과 ‘+30억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반 확충 및 해외 자원개발 지속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세계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 한국광물자원공사 역할 강화 등 해외 자원개발도 지속 지원 한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아울러,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표 2-1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c/a) |
|--------------|----------|----------|-----------|
| < 합계 > | 151,165 | 151,604 | 0.3 |
| - 산업진흥고도화 | 51,488 | 54,389 | 5.6 |
| - 무역 및 투자유치 | 4,588 | 4,491 | △2.1 |
|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52,573 | 50,452 | △4.0 |
| - 산업금융지원 | 31,267 | 28,815 | △7.8 |
| - 산업기술지원 | 7,426 | 9,168 | 23.5 |
| - 산업중소기업일반 | 3,823 | 4,289 | 12.2 |

| 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10년) 51,488억원 → ('11년) 54,389억원 (5.6%증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지능형 로봇, 그린카, 바이오 의료기기 등 녹색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에 대한 정부 R&D투자를 확대하고, R&D자금, 전문인력 양성 및 신성장동력펀드 등을 단계적·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진단 및 지원패키지를 구성하는 등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를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의 공급기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출연연구소의 연구인력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장기 파견하고, 출연연 연구자원을 기술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소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고용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체험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한국형 기업가 정신을 구축·확산하고,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 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등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충분히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중소소매점의 시설현대화와 공동구매 등 조직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교육 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이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핵심 유망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이전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기존의 지방이전보조금을 지역투자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지방이전기업은 물론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역투자촉진보조금으로 개편하였다.

표 2-2 ● 산업진흥·고도화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c/a) | 비 고 |
|----------------|----------|----------|-----------|-----|
| 합 계 | 51,488 | 54,389 | 5.6 | |
| -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 3,597 | 4,129 | 14.8 | |
| - 그린카 수송시스템 | 939 | 1,125 | 19.8 | |
| - 지능형로봇보급 확산 | 30 | 366 | 1,128.7 | |
| - 중소지식서비스 기업육성 | 99 | 210 | 112.0 | |
| - 시장경영혁신 지원 | 369 | 411 | 11.4 | |
| - 소규모점포조직화 | 201 | 247 | 22.9 | |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원전 및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확대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에 대한 개척을 적극 지원

☞ ('10년) 4,588억원 → ('11년) 4,491억원 (△2.1%감소)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하도록 원전, 해외플랜트 건설 등 중장기 수출보험,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계약규모를 대폭 확대(190조원 → 200조원)한다.

또한 원자력 융합기술, 플랜트엔지니어링원천기술개발 등 수출관련 기술개발을 대폭 확대하고, 원전 등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해외플랜트 업체의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을 통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국가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등을 통한 해외전시회를 적극 지원하고 기존의 KOTRA의 해외지사(KBC:Korea Business Center)도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표 2-3 ●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c/a) | 비 고 |
|--------------|----------|----------|-----------|-----|
| 합 계 | 4,588 | 4,491 | △2.1 | |
| - 무역보험기금 출연 | 1,000 | 1,000 | - | |
| - 상해엑스포 지원 | 223 | - | 순감 | |
| - KINTEX 2단계 | 356 | 351 | △1.3 | |
| - KOTRA 지원 | 1,839 | 1,997 | 8.6 | |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투자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형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한다.

☞ ('10년) 52,573억원 → ('11년) 50,452억원 (△4.0%감소)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³⁾ 대비 △30%)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요인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벤토리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저비용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 분야를 집중 투자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ESCO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1,350억원→5,400억원)하여 ESCO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ESCO산업을 구심점으로, 에너지절약산업을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정부 지원없이 민간 시장 자율에 따라 에너지절약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NA, Negotiated Agreement)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일반 주택(그린홈 100만호),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원해왔다. 2011년 부터는 태양광, 풍력 등 경쟁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화하여 녹색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 Business As Usual :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 정책수준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4) Energy Service Company : 기업 등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을 선투자 해주고, 절약시설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형태



풍력발전기

글로벌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공기업 대형화에 주력한다.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대형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희유금속 등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광물자원공사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해양 플랜트

표 2-4 ●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c/a) | 비 고 |
|-------------|----------|----------|-----------|-----|
| 합계 | 52,573 | 50,452 | △4.0 | |
| - 신재생에너지분야 | 7,855 | 9,591 | 22.1 | |
| - 온실가스 감축지원 | 5,974 | 7,137 | 19.6 | |
| - 유전개발사업 출자 | 12,556 | 7,100 | △43.5 | |

● 산업금융 부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창업기업 및 장기시설자금 등에 역점을 두고, 서민금융 지원은 지속 강화한다.

☞ ('10년) 31,267억원 → ('11년) 28,815억원 (△7.8%감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정책금융은 경기회복 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인 서민들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대폭 강화함에 따라 전체 정책금융 규모는 2010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금융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 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용자규모를 줄이는 대신, 창업 및 성장초기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담보확보가 곤란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도 고액·장기보증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녹색·신성장 영위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은 지속 확대한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 출시한 저신용 개인근로자나 소상공인, 농·어업인에 대한 햇살론(보증부 서민전용대출)은 2011년에도 그 규모를 확대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5 ● 산업금융 지원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c/a) | 비 고 |
|----------------|----------|----------|-----------|-----|
| 합 계 | 31,267 | 28,815 | △7.8 | |
|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 - | 200 | 순증 | |
| - 매출채권보험 | 100 | 180 | 80.0 | |
| - 창업기업지원(용자) | 11,000 | 14,000 | 27.3 | |
| - 신성장기반지원(용자) | 11,600 | 7,820 | △32.6 | |
| - 긴급경영안정지원(용자) | 2,500 | 2,200 | △12.0 | |

● 산업기술 지원 부문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하여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R&D 투자지원을 강화한다.

☞ ('10년) 7,426억원 → ('11년) 9,168억원 (23.5%증가)

중소기업은 영세성과 핵심역량 미흡으로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역량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 → 중견 → 대기업에 이르는 R&D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창업과 녹색·신성장·기술 융합 등 미래 성장산업을 뒷받침하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전문기업화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제조기반분야와 녹색·그린 IT, 차세대 조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의료, 나노소재, 지식서비스 등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내 중소기업 전담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R&D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획역량을 강화하며 연구개발과 사업화용자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신기술과 국산화제품을 개발하는 “민·관 R&D 협력펀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R&D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표 2-6 • 산업기술 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c/a) | 비 고 |
|---------------|----------|----------|-----------|-----|
| 합 계 | 7,426 | 9,168 | 23.5 | |
| - 창업성장기술개발 | 756 | 950 | 25.7 | |
| - 개발기술사업화지원용자 | 1,580 | 2,580 | 63.3 | |

3 SOC 분야

| 3-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SOC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4.4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7%(△6,700억원) 감소된 수준이다. 이는 경제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증액된 SOC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른 것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예산(11년 : 21.4조원)을 2009년 당초 정부안(20.7조원)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여 SOC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였다.

●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도로 대 철도 투자비중 조정

도로는 기 축적된 스톡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신설·확장보다 기존도로의 용량보강(선형개량 등) 중심으로 투자효율성에 역점을 두었다. 탄소배출이 많은 도로투자를 축소하여 도로와 철도의 투자비중을 2010년 1.5:1에서 2011년 1.38:1로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의 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는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위하여 고속철도 투자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물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4대강 사업에 3.1조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고 4대강 이외의 국가·지방하천에 대해서도 2011년 1.1조원을 투자하여 4대강사업과 같은 하천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용수 확보와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 생산·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확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 도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등 내륙물류기지 건설을 지속 추진하여 물류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 공항·항만의 안전 및 물류시설 확충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항 소음대책 투자를 확대한다. 항만은 기존 항만의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 및 배후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지원

광역경제권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정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항만 등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성장거점간 물류애로 조기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30대 선도프로젝트 : ('10년) 35,102억원 → ('11년) 40,417억원

표 3-1 ●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 (B-A) | % |
|------------------|----------------|----------------|---------------|-------------|
| 【SOC】 | 251,106 | 244,406 | △6,700 | △2.7 |
| (4대강 제외시) | 218,906 | 213,606 | △5,300 | △2.4 |
| (4대강 사업) | 32,200 | 30,800 | △1,400 | △4.3 |
| 교통 및 물류 | 175,219 | 167,989 | △7,230 | △4.1 |
| ○ 도로 | 80,038 | 74,487 | △5,551 | △6.9 |
| ○ 철도·도시철도 | 53,512 | 54,056 | 544 | 1.0 |
| ○ 해운·항만 | 18,617 | 16,333 | △2,284 | △12.3 |
| ○ 항공·공항 | 666 | 679 | 13 | 2.0 |
| ○ 물류 등 기타 | 22,386 | 22,434 | 48 | 0.2 |
| 국토 및 지역개발 | 75,888 | 76,417 | 529 | 0.7 |
| ○ 수자원 | 51,076 | 50,182 | △894 | △1.8 |
| ○ 지역 및 도시 | 15,919 | 16,424 | 505 | 3.2 |
| ○ 산업단지 | 8,893 | 9,811 | 918 | 10.3 |

| 3-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도로 부문

그간 중점투자가 이루어진 도로부문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신규투자 및 단순확장보다는 기존도로의 개량과 용량보강에 중점투자하였다.

그간의 투자로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OECD 국가중 상위수준(30개국중 5위)이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노선의 병행 등 유사·중복투자에 대한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탄소배출, 고가도로·터널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 등도 감안하여 도로부문은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투자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 도로 신규사업 : ('10년) 38개 → ('11년) 10개

다만,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국가의 주요 기간교통망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도로사업 : ('10년) 10,938억원 → ('11년) 11,699억원

고속도로 건설은 전주~광양, 신갈~호법 등 완공임박 노선과 진주~마산 등 교통혼잡 구간의 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소요를 반영하였다.

국도는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로 개량과 교통 혼잡구간 조기 해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히, 완공위주의 지원을 위해 신규 착공사업은 최소화하고 투자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기존 도로의 안전시설(가드레일)에 대한 일제정비('11년 300억 신규반영)와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인명사고 예방과 국민의 편의성제고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고,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등을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도로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 ('10년) 834억원 → ('11년) 1,030억원

표 3-2 ●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b/a) | 비 고 |
|----------|----------|----------|-----------|-----------------|
| 계(A+B) | 80,038 | 74,488 | △6.9 | |
| 국토부(A) | 77,281 | 72,033 | △6.8 | |
| - 고속도로 | 11,405 | 11,474 | 0.6 | - 완공위주 집중투자 |
| - 국도건설 | 41,950 | 38,794 | △7.5 | - 신규사업 최소화 |
| - 민자건설 | 5,955 | 4,151 | △30.3 | -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원 |
| - 지자체도로 | 9,519 | 8,544 | △10.2 | - 국지도 등 |
| - 국도유지관리 | 8,452 | 9,070 | 7.3 | - 국도시설개량 안전개선 등 |
| 행안부(A) | 2,757 | 2,455 | △11.0 | |

● 철도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국 반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고속철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일반철도는 개통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기존노선과 고속철도를 연계하여 KTX 수혜지역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국민들의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시설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동선개선 및 환승시설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10년) 42,020억원 → ('11년) 44,338억원 (5.5%증가)

탄소배출이 많고 환경훼손 문제 등이 지적되어온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장거리·대용량 수송, 환경친화성,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철도투자를 확대하였다.

* 도로 : 철도 투자비중 = ('10년) 1.50 : 1 → ('11년) 1.38 : 1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 ~ 부산 신선 구간은 2010년 12월 개통하였으며, 향후 대전·대구 도심 통과 구간도 2014년까지는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2014년까지 서울~광주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인근의 선로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고속철도사업(수서~평택)을 2011년 본격착수,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KTX 산천호

* 고속철도 투자규모 : ('10년) 5,700억원 → ('11년) 9,000억원

일반철도는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선전철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2011년도에 개통 예정인 중앙선 용문~원주, 전라선 복선전철화, 순천~여수, 영동선 철도이설 등 개통 및 완료사업을 집중 지원하였다.

인천공항철도에 KTX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연결선 건설을 추진하여('11년 800억원 신규반영) KTX운행지역에서는 환승없이 인천공항을 이용('12년말 완공예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선(익산~순천) 전구간 완공('10년 437억원 → '11년 900억원)하여 KTX를 운행하는 등 KTX수혜지역을 확대하고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인 진주~광양, 부전~마산, 원주~강릉 및 서해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철도사업 : ('10년) 7,017억원 → ('11년) 8,837억원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주변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광역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투자효과가 조기실현 될 수 있도록 구간별 우선개통을 추진한다.

2011년말까지 수원~인천 사업의 오이도~송도구간 및 오리~수원사업의 죽전~기흥구간의 우선개통을 추진하고 왕십리~선릉('12년), 용산~문산('12년) 등 개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지원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일반 및 광역철도 개통건수 : ('10년) 4건 → ('11년) 6건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 연계교통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시설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건널목 입체화, 시설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철도 시설개량 : ('10년) 1,211억원 → ('11년) 1,333억원

표 3-3 ●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 (c/a) | 증감율 (b/a) | 비 고 |
|--------|----------|----------|----------|-----------|-------------------------|
| 합 계 | 42,020 | 44,338 | 2,318 | 5.5 | |
| - 고속철도 | 5,700 | 9,000 | 3,300 | 57.9 | - 경부·호남·수도권고속철도 등 3개 사업 |
| - 일반철도 | 16,886 | 15,845 | △1,041 | △6.2 | - 경춘선 복선전철 등 34개 사업 |
| - 광역철도 | 8,896 | 8,559 | △337 | 3.8 | - 용산-문산 등 13개 사업 |
| - 철도운영 | 10,538 | 10,934 | 39 | 3.6 | - 철도공사경영지원 등 |

● 도시철도 부문

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적기에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완공이 임박한 서울 지하철 7호선,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 의정부 경전철 건설 등 사업 위주로 개통에 필요한 재정소요 중 국고부담분은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자체 주관 국제스포츠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11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14년 아시안게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교통 수단인 도시철도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CDM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였고, 지자체의 재정운영 압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하철 부채 문제를 지자체가 책임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간 공동합의에 따른 부채상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표 3-4 ● 도시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 (c/a) | 증감율 (b/a) | 비 고 |
|----------------|----------|----------|----------|-----------|------------------|
| 합 계 | 11,491 | 9,718 | △1,773 | △15.4 | |
| - 도시철도 건설지원 | 6,439 | 5,884 | △555 | △8.6 | - 서울9호선 등 15개 사업 |
| - 도시철도 경영지원 | 5,052 | 3,834 | △1,218 | △24.1 | - 지하철 부채상환지원 등 |

● 해운 · 항만부문

항만물동량과 비교하여 항만하역능력이 충분함에 따라 부두시설 투자비율을 축소하고,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배후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비율을 확대하여 항만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10년) 18,617억원 → ('11년) 16,333억원 (△12.3% 감소)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만으로 육성한 부산항과 광양항간 차별화된 목표설정과 인프라 확충으로 두 항만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부산항은 2011년에 컨테이너부두 2-3단계 4선석을 완공하고, 옹동배후단지 확보 및 배후철도 전철화 등도 완료한다. 광양항은 배후단지 확보를 통한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체 물동량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20년까지 256만톤의 산단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새만금 신항을 적기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방파제 건설공사를 연내 착공한다.

그 밖에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배후권 기간산업을 고려한 항만별 특화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기반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울산신항을 오일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평택당진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철재(1선석), 양곡(2선석)등 벌크부두를 2011년에 완공한다.



컨테이너 부두 전경

특히, 백령도, 연평도, 울릉도 등 주요 거점 항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인아라뱃길 개장('11.10월)에 맞추어 선박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진입항로, 관리부두 등 관련 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이다.

해운강국을 통한 국부창출을 목표로 해운인력 양성사업, 연안해운 활성화, 해상교통 안전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지역 해상교통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표 3-5 ● 해운·항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사업 | '10년 (a) | '11년 (b) | 증감율 (b/a) | 비고 |
|-------------|----------|----------|-----------|-----------|
| 합계 | 18,617 | 16,333 | △12.3 | |
| ○신항만 개발 | 8,355 | 7,217 | △13.6 | 9개 신항만 건설 |
| -부산항 신항 | 2,798 | 2,794 | △0.1 | |
| -울산신항 | 1,211 | 938 | △22.5 | |
| ○주요항 | 2,353 | 2,262 | △3.9 | |
| ○일반항 | 4,729 | 4,211 | △11.0 | |
| ○유지보수, 해운 등 | 3,180 | 2,643 | △16.9 | |

● 수자원부문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강의 퇴적토를 걷어내고 수질을 개선하여 물그릇을 키우고 생명을 살리는 4대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용수 확보, 재해예방 등 수자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10년) 51,076억원 → ('11년) 50,182억원 (△1.8% 감소)

4대강 사업은 물 확보,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 사업으로 2010년말 기준 전체공정률이 46%에 이르렀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강살리기 강천보 조감도

부족한 용수의 확보와 홍수조절 등을 위한 댐 건설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섬진강댐 등 8개 기존 댐의 치수 능력증대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물부족 해소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체계조정 등 광역상수도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군위다목적댐

4대강 외의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홍수예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사업의 투자확대 등을 위해 2011년 1.3조원을 투자한다.

표 3-6 ●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사업 | '10년 (a) | '11년 (b) | 증감율 (b/a) | 비고 |
|-----------|----------|----------|-----------|---------|
| 합계 | 51,076 | 50,182 | △1.8 | |
| ○광역상수도 건설 | 257 | 188 | △26.8 | |
| ○수자원정책지원 | 176 | 181 | 2.8 | |
| ○댐 건설 | 4,579 | 3,246 | △29.1 | 5개댐 건설등 |
| ○하천정비 | 46,064 | 46,567 | 1.1 | |
| - 4대강 살리기 | 32,200 | 30,800 | △4.3 | |

● 물류 등 기타 부문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및 물류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정보화사업을 통해 국토해양 지식정부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10년) 18,619억원 → ('11년) 19,820억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시관 등 핵심기반시설이 2011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4,605억원)하고, 해양영토 관리강화를 위한 해양지리

자원 조사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해양관광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 관광자원 기반 시설조성 지원 및 독도 영토수호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내륙물류기지(군포·파주) 건설을 '13년까지 준공하고, 국도변 화물차휴게소 건설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제3자 물류건설팅, 지원,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R&D 사업은 해수담수화플랜트, U-Eco City, 차세대 고속철도,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실용화 등 23개 사업에 6,091억원을 편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전략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보화사업은 국토공간정보 통합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41개 사업에 918억원을 지원하여 사이버 국토를 구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22억원) 및 복합환승센터(30억원)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395억원), 보행편의구역조성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 안정성 제고를 위해 안전도 평가시험, 제작결함 조사, 안전기준 국제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친환경·고효율 교통수단으로 전환시 보조금을 확대 지원(50억원)하는 등 녹색교통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

표 3-7 ●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사업 | '10년 (A) | '11년 (B) | 증감율 | | 비고 |
|---------------------|----------|----------|-------|-------|-------------|
| | | | B-A | A-B | |
| 합계 | 18,619 | 19,820 | 1,201 | 6.5 | |
| ○물류정책 | 1,052 | 873 | △179 | △17.0 | 내륙물류기지 등 |
| ○국토해양 연구개발 | 5,680 | 6,091 | 411 | 7.2 | R&D |
| ○국토해양 정보화 | 793 | 918 | 125 | 15.8 | 정보화 |
| ○해양정책 (여수박람회 포함) | 4,095 | 4,999 | 904 | 22.1 | 여수박람회 등 |
| ○대중교통육성 등 | 6,999 | 6,939 | △60 | △0.9 | BRT, 저상버스 등 |

●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지역거점조성사업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 혁신도시 건설 지원사업 : ('10년) 1조 1,469억원 → ('11년) 1조 3,664억원
 - 청사신축비 : ('10년) 9,352억원 → ('11년) 1조 2,095억원
 - 기반시설비 : ('10년) 2,000억원 → ('11년) 1,470억원
- 기업도시 시범사업 : 관광레저형(태안, 서남해안, 무주), 지식기반형(원주, 충주), 산업교역형(무안)
-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반시설 지원 : ('10년) 69억원 → ('11년) 128억원

특히 낙후지역 개발과 신성장축 육성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초광역권 개발 시범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계획적 도시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기능 개선을 위해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한옥도시건축, U-city사업을 위한 시범도시 및 인력양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토공간 정보체계구축 및 지형조사 지원 사업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개 국가산업단지의 추가 개발(09.9월 지정) 등을 통해 기업입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에 중점을 둬으로써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 * 5개 신규 국가산단 : 대구, 포항, 장항, 구미, 광주·전남
- * 산단진입도로 지원건수 : ('09년) 52건 → ('10년) 65건 → ('11년) 71건
- * 산단진입도로 완공건수 : ('09년) 13건 → ('10년) 17건 → ('11년) 19건

표 3-8 •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단위:억원, %)

| 사업 | '10년 (a) | '11년 (b) | 증가율 (b/a) | 비고 |
|-------------|----------|----------|-----------|--------------|
| ○ 지역 및 도시부문 | 13,704 | 15,918 | 16.1 | |
| - 행복청 | 5,761 | 6,942 | 20.4 | |
| - 지역개발 | 5,241 | 5,913 | 12.8 |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
| - 도시정책 | 396 | 1,230 | 310.6 |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등 |
| - 국토정보관리 | 1,590 | 1,106 | △30.5 | 부동산 공시 등 |
| - 국토지리정보원운영 | 716 | 727 | 1.5 | |
| ○ 산업단지부문 | 8,893 | 9,810 | 10.3 | |
| - 산단진입도로 | 7,627 | 8,233 | 7.3 | 완공위주 지원 추진 |

4 농림수산식품 분야

| 4-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7.6조원으로 2010년 본예산 17.3조원 대비 2.2% 증가하였다. 2011년 재정투자의 중점은 고품질 종자 개발·보급, 농림 R&D, 식품산업 육성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

● 고품질 농어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고품질 종자자원 개발·보급을 통해 농어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지원한다. 종자연구시설 설치, 신종자 상품화 개발, 우수품종 증식·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생명 자원과 IT·BT 등 첨단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농어업 R&D 투자를 확대한다.

●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축산 부문의 체질개선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한·EU FTA에 대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원료유,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 한식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 지원

한식 원형복원 지원,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을 통해 한식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중국 칭다오에 농식품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출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 관련 기업·연구소들이 입주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 농어업 보조금 지원 내실화

농어업 자생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비료,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투입재 보조는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그간의 쌀 과잉공급을 감안하여 농업생산기반 조성은 기존 지구의 완공 위주로 지원을 내실화한다.

표 4-1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b/a) |
|---------|----------|----------|-----------|
| 합 계 | 172,571 | 176,354 | 2.2 |
| - 농업·농촌 | 136,684 | 139,988 | 2.4 |
| - 수산·어촌 | 14,045 | 13,052 | △7.1 |
| - 임업·산촌 | 16,354 | 16,953 | 3.7 |
| - 식품업 | 5,488 | 6,361 | 15.9 |

| 4-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농업·농촌 부문

종자개발·R&D 등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고, 시장개방·기후변화·곡물 부족 등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한다.

- ☞ 종자 관련 투자 : ('10년) 521억원 → ('11년) 782억원
- ☞ 농림 R&D 투자 : ('10년) 7,769억원 → ('11년) 8,622억원
- ☞ 농산물 계약재배 비중 : ('10년) 생산량의 10% → ('11년) 15%

우리 농업에 활용할 종자를 우리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종자 연구개발 및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민간 종자업체·연구소 등이 입주하여 종자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올해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육종연구를 통해 개발한 신품종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우수품종 증식보급시설 확충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산업적으로 유용한 각종 동식물자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종자연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자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 관련 R&D를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농업기술,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천연의약 신소재 개발, 재해·병충해 등에 강한 환경적응형 품종 육성 등 생명산업 관련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농수산물을 활용한 면역 증진형 기능성 강화 식품개발, 김치·장류 등 전통웰빙식품의 발효제어 기술개발 등 고부가 식품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R&D를 통해 농업을 생명산업·식품산업 등과 접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친환경 녹색 농업도 지속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한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단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농식품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올해부터 도입·시행한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2010년 10월에 타결된 한·EU FTA 대응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비하여 한우농가들을 규모화·조직화한 한우사업단을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시장개방이 원유 생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공원료유 생산을 지원하고 친환경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더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1조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한 한·미 FTA 보완대책 역시 차질없이 수행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온난화 등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대비 투자도 확대한다. 저수지 뚝 높임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농촌 지역의 다양한 용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폭염·태풍·가뭄 등 각종 이상기후와 재해로 고통 받는 농가들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도 제고한다.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식량 도입경로를 확보한다. 국내생산이 수요에 못 미치는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곡물 수출국의 유통시설을 취득·운영하여 부족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제 곡물시장 불안 등 외부 충격이 국내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곡물부족 대응과 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현행 쌀 위주의 농업을 콩·옥수수·채소 등 다양한 작물로 다변화한다. 쌀을 재배하던 농가가 쌀 이외의 타작물로 재배작목을 전환할 경우 300만원/ha의 생산전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농지 매입·비축 사업을 활용하여 공사가 매입한 논을 타작물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 작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무·배추 등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한 유통구조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산지 저온유통시설 확충 등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시설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복지 지원도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농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 수급을 신청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충분히 반영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어업인 재해공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등 지원도 확대한다.

표 4-2 ●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b/a) | 비고 |
|----------------|----------|----------|-----------|----|
| 합 계 | 136,684 | 139,988 | 2.4 | |
| - 종자산업 육성 | 521 | 782 | 50.1 | |
| - 농림 R&D | 7,769 | 8,622 | 11.0 | |
| - 논 소득기반 다양화 | - | 1,200 | 순증 | |
| - 농지 매입·비축 | 750 | 1,500 | 100.0 | |
| - 농어업 재해보험 | 1,029 | 1,367 | 32.9 | |
|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 5,951 | 7,993 | 34.3 | |
| - 저수지 독 높임 | 4,066 | 8,480 | 108.6 | |
| - 축사시설 현대화 | 1,147 | 1,633 | 42.3 | |
|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 - | 200 | 순증 | |

● 수산·어촌 부문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및 고품질 안전 수산물 공급을 중점 지원한다.

☞ 수산자원사업단 운영 : ('10년) - → ('11년) 533억원

수산자원사업단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어족자원을 관리한다.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건강종묘 방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한다. 강·하천 등 내수면에 대해서도 토종종묘 보급, 산란장 설치 등 자원 조성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지역특화 수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식품개발을 도모한다. 또한,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전염병 분석 진단, 질병 분석장비 확충, 양식장 예찰 및 방역 등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수산물의 정확한 검사를 위한 수산물 검역·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수산업 육성과 수산식품 안전을 도모한다.

표 4-3 ● 수산·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b/a) | 비고 |
|----------------------|----------|----------|-----------|----|
| 합 계 | 14,045 | 13,052 | Δ7.1 | |
| - 수산자원사업단 운영 | - | 533 | 순증 | |
|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88 | 144 | 63.9 | |
| -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 체계 구축 | 75 | 100 | 33.8 | |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 629 | 677 | 7.6 | |
| - 국가어항 건설 | 1,341 | 1,393 | 3.9 | |

● 임업·산촌 부문

산림품종 다양성 증진, 산림의 복원·보호 및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지원한다.

목재 자급률 : ('10년) 13.6% → ('11년) 15.0%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림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산림품종의 다양성 증진을 지원한다. 산림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품종 시험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조성하여 산림자원 연구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국내외 유용식물자원의 수집, 희귀·특산 식물의 안정적 보전 및 복원,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관리 등 관련 연구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의 복원·보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DMZ 일원, 백두대간 등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도모한다. 국유림 목재를 산업용·토목용·바이오매스용 등으로 공급하여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임도를 확충하여 산림자원への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도 지속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4-4 ●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b/a) | 비고 |
|-----------------|----------|----------|-----------|----|
| 합 계 | 16,354 | 16,953 | 3.7 | |
| -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 334 | 619 | 85.4 | |
| - 산림복원 | 42 | 105 | 149.3 | |
| -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 145 | 167 | 15.2 | |
| - 임도시설 | 1,039 | 1,136 | 9.4 | |
|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 252 | 281 | 11.5 | |
|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 1,352 | 1,407 | 4.0 | |

● 식품업 부문

한식세계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식품산업 기반 구축과 식품 안전성 강화도 중점 지원한다.

☞ 농식품 수출액 : ('10년) 59억불 → ('11년) 76억불

한식 R&D, 홍보, 인력양성 등 한식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한다. 전통음식의 원형복원과 현대적 재해석, 산업화 방안 마련 등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현지시장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 한식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장개방 대응과 식품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을 지원한다. 농식품 주 수출시장인 중국 칭다오에 해외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최근 소득증가로 고품질 청정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기업·연구소들이 입주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지속 지원하여 식품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지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설계비·투자유치비 등 필수소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식품산업 거점인 광역클러스터 조성도 확대한다.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염전 바닥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고 산지 종합처리장을 건립하는 등 천일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한다. 이를 통해 우리 음식의 주재료인 천일염의 위생성·안전성을 제고하고 우리 음식을 명품화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HACCP)도 더욱 활성화하여 축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표 4-5 •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 (a) | '11년 (b) | 증감률 (b/a) | 비고 |
|--------------------|----------|----------|-----------|----|
| 합 계 | 5,488 | 6,361 | 15.9 | |
| - 한식세계화 | 241 | 312 | 29.3 | |
| -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 | - | 200 | 순증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33 | 40 | 20.1 | |
| - 천일염산업 육성 | 87 | 100 | 15.5 | |
|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 3,602 | 3,652 | 1.4 | |

5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 5-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6.4조원으로 2010년 81.2조원보다 6.3%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는 서민희망 8대 핵심과제를 선정, 32.2조원 규모로 집중 지원하여 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였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86.4조원이다.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28.0%)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7.0%) 역시 최고 수준이다. 작년말 국회 예산안 확정 후 일각에서는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사업이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것을 삭감되었다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복지예산 86.4조원은 당초 정부안 86.3조원 보다 1,214억원 증가하였다.

● 서민희망 8대 핵심과제 집중 지원

정부는 전체 복지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 8개를 선정해 중점 지원하려고 한다. 핵심과제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를 생애단계(life cycle)와 취약계층에 따라 선정했다. 생애단계별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 · 의료 부문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는 모두 32.2조원이 투입된다.

표 5-1 ●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
| 〈 합 계 〉 | 812,464 | 863,926 | 6.3 |
| 사회복지분야 | 739,161 | 788,926 | 6.7 |
| ○ 기초생활보장 | 73,045 | 75,240 | 3.0 |
| ○ 취약계층지원 | 15,212 | 13,427 | △1.2 |
| ○ 공적연금 | 259,856 | 281,833 | 8.5 |
| ○ 보육·가족·여성 | 23,693 | 28,759 | 21.4 |
| ○ 노인·청소년 | 36,630 | 38,759 | 5.8 |
| ○ 노 동 | 122,935 | 126,180 | 2.6 |
| ○ 보 훈 | 36,093 | 38,737 | 7.3 |
| ○ 주 택 | 167,162 | 180,536 | 8.0 |
| ○ 사회복지일반 | 4,534 | 5,455 | 20.3 |
| 보건분야 | 73,303 | 75,000 | 2.3 |
| ○ 보건의료 | 17,037 | 15,599 | △8.4 |
| ○ 건강보험 | 53,826 | 57,102 | 6.1 |
| ○ 식품의약품안전 | 2,440 | 2,299 | △5.8 |

| 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여 급여수준이 상향되고 수급범위가 확대된다.

☞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 ('10년) 136.3만원 → ('11년) 143.9만원

올해에는 최저생계비가 작년 월 136.3만원(4인 가구)에서 143.9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인상을 5.6%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종전 15만원(3인 가구, 월평균)에서 21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수급자가 근로와 동시에 일정금액(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3년내 탈수급시 근로

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적립액의 2배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3년 내 탈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가구원에게 의료급여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가 근로소득 증가로 탈수급되더라도 급여를 지속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자활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표 5-2 ●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비 고 |
|----------|---------|---------|-----------|-----|
| 〈 합 계 〉 | 73,045 | 75,240 | 3.0 | |
| ○ 의료급여 | 34,995 | 36,718 | 4.9 | |
| ○ 희망키움통장 | 249 | 296 | 18.9 | |
| ○ 자활사업 | 3,984 | 4,203 | 5.5 | |

● 노인·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 부문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하고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한다.

- ☞ 노인 맞춤형 일자리 : ('10년) 18.6만명 → ('11년) 20만명
- ☞ 기초노령연금 : ('10년) 375만명 → ('11년) 387만명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0년) 27만명 → ('11년) 31만명
- ☞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 ('10년) 3만명 → ('11년) 5만명
- ☞ 돌보미 파견서비스 : ('10년) 688가구 → ('11년) 2,500가구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노인적합령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 보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16.6→17.6만개로 늘리고 양질의 민간분야 일자리를 2→2.4만개로 확대하여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수급자가 2010년 375만명에서

2011년 387만명으로 늘어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 역시 2010년 27만명에서 2011년 31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던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면 개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외에도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며 지원대상 역시 2010년 3만명에서 2011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을 기르는 가정에게 제공되던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2010년 688가구에서 2011년 2,500가구로 대폭 확대하여 제공한다.

표 5-3 ● 노인·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비 고 |
|------------------|---------|------------|-----------|-----|
| 〈 합 계 〉 | 51,842 | 52,186 | 6.6 | |
| ○ 노인일자리 | 1,516 | 1,642 | 8.3 | |
| ○ 기초노령연금 | 27,236 | 28,253 | 3.7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3,323 | 3,883 | 16.9 | |
| ○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 1,348 | (연간) 2,800 | 107.7 | |
| ○ 장애아 돌보미 파견 서비스 | 16 | 40 | 150.0 | |

● 보육·가족·여성 부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목표로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의 출산 및 보육 여건의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

☞ 영유아보육료 : ('10년) 소득하위50% → ('11년) 소득하위70%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에서 70%까지(4인가구 소득인정액: 258 → 480만원)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92만명에게 1인당 최대 27만원까지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취업여성의 출산여건을 개선하고자 월 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40%라는 정률제로 개편하여 최대 100만원까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0세아를 둔 맞벌이·한부모 취업가정에게 집으로 돌보미를 파견하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월소득 258만원에서 480만원으로 확대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77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1천개의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아울러 자정까지 근무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도 6천명에서 1만명으로 증원한다.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이 13천가구에서 32천가구로 대폭 확대된다(201→402억원) 특히, 이중 만0세아에게 지원되는 영아정기돌봄은 소득하위 50%이하에서 소득하위 70%로 자격도 완화하였다. 최근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한국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및 양육정보,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도 159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된다. (83 → 114억원)

표 5-4 ● 보육·가족·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비 고 |
|------------------|---------|---------|-----------|-----------|
| 〈 합 계 〉 | 23,693 | 28,759 | 21.4 | |
| ○ 영유아보육료 | 16,322 | 19,346 | 18.5 | |
| ○ 육아휴직급여 | 1,399 | 2,125 | 52.0 | |
| ○ 공공형보육시설 | 0 | 80 | 순증 | |
| ○ 아이돌보미 지원 | 201 | 402 | 99.5 | 13→32천가구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83 | 114 | 55.3 | 159→200개소 |

● 노동 부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직자, 산재근로자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10년) 122,935억원 → ('11년) 126,180억원

저소득층·청년·고령자에게 '직업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확대(3.1만명→5만명)하고,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전년대비 확대(2.5만명→3.2만명) 실시한다. 유망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조성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고, 청년층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도 112억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속 지원(33,660억원→33,772억원)하고, 산업재해 근로자 보상을 위한 산재급여도 적극 지원(38,005억원→38,159억원) 한다.

표 5-5 ● 노동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122,935 | 126,180 | 2.6 | |
| ○ 예 산 | 11,750 | 13,156 | 12.0 | |
| - 취업성공패키지 | 289 | 574 | 98.6 | 취약계층 취업지원 |
| - 사회적기업육성 | 1,487 | 1,615 | 8.6 | 사회적기업 지원 |
| ○ 기 금 | 111,185 | 113,024 | 1.7 | |
| - 고용보험기금 | 59,168 | 60,462 | 2.2 | 고용안정지원 |
| - 산재기금 | 46,270 | 46,590 | 0.7 | 산재급여 등 지원 |
| - 임채기금 | 2,376 | 2,936 | 23.6 | 체당금 지원 |
| - 장애인기금 | 2,327 | 2,201 | △5.4 | 장애인 고용촉진 |
| - 근복지금 | 1,044 | 835 | △20.0 | 근로자 복지지원 |

● 국가보훈 부문

국가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인상하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료시설과 국립묘지 안장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현충시설 건립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확충한다.

☞ **보훈 : ('10년) 36,093억원 → ('11년) 38,737억원 (7.3%)**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 단가를 4% 인상*하고 전몰유족·배우자에게 보상금 3% 추가 인상, 중상이자 부가금 신설** 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12만원)과 무공영예수당(15만원)을 전년대비 각각 3만원 인상한다.

* 독립유공자(훈장1~3등급) : ('10년) 4,054 → ('11년) 4,216천원

중상이자(1급 1항) : ('10년) 2,077 → ('11년) 2,160천원

전몰군경유족·배우자 : ('10년) 948 → ('11년) 1,014천원

** 1급 1항 312천원, 1급 2항 196천원, 1급 3항 94천원

重輕傷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무료진료와 국가유공자 유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진료비를 지원한다.('10년) 3,881억원 → ('11년) 4,271억원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훈중앙병원 완공(440억원)을 지원하고 부산보훈병원에 대한 외래진료·수술실 확장(64억원) 및 재활체육시설 완공(104억원)을 지원한다. 나라사랑 정신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재필박사 기념관 건립(17억원) 및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3억원)을 지원하고 6.25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필리핀 참전기념관 건립(5억원)을 반영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안장지원을 위하여 국립대전 현충원에 대한 묘역확충지원, 영천호국원의 봉안당 건립, 이천호국원의 봉안당 건립 및 임실호국원의 봉안당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10년)106억원 → ('11년)155억원

국민들이 독립기념관을 즐겨찾도록 친환경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입체영상콘텐츠, 거례의집 구조물 보완공사, 안내휴게소 증·개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에 64억원을 반영하였다.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 및 참전국과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6.25 전쟁 60주년 사업 추진기획단 7억원 지원 및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등에 42억원을 지원한다.

표 5-6 ● 보훈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비 고 |
|--------------|---------|---------|-----------|-----------|
| 합 계 | 36,093 | 38,737 | 7.3 | |
| ○ 예 산 | 34,618 | 37,172 | 7.4 | |
| - 보훈급여금 | 26,449 | 28,950 | 9.5 | 단가4~16.1% |
| - 진료비 | 3,881 | 4,271 | 10.0 | |
| - 안장시설지원 | 106 | 155 | 46.2 | |
| ○ 기 금 | 1,475 | 1,564 | 6.0 | |
| - 노후복지, 복지시설 | 245 | 255 | 4.1 | |

● 주택 부문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확대(18→21만호)하고, 노후 불량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시설개선 예산을 증액하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수준을 제고한다.

- ☞ 보금자리주택건설 : ('10년) 88,119 → ('11년) 95,033억원(7.8% 증가)
- ☞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 : ('10년) 500 → ('11년) 670억원(34.0% 증가)
-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 ('10년) 415 → ('11년) 638억원(53.7% 증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서민층 주거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2011년에는 2010년 목표 물량보다 3만호 증가한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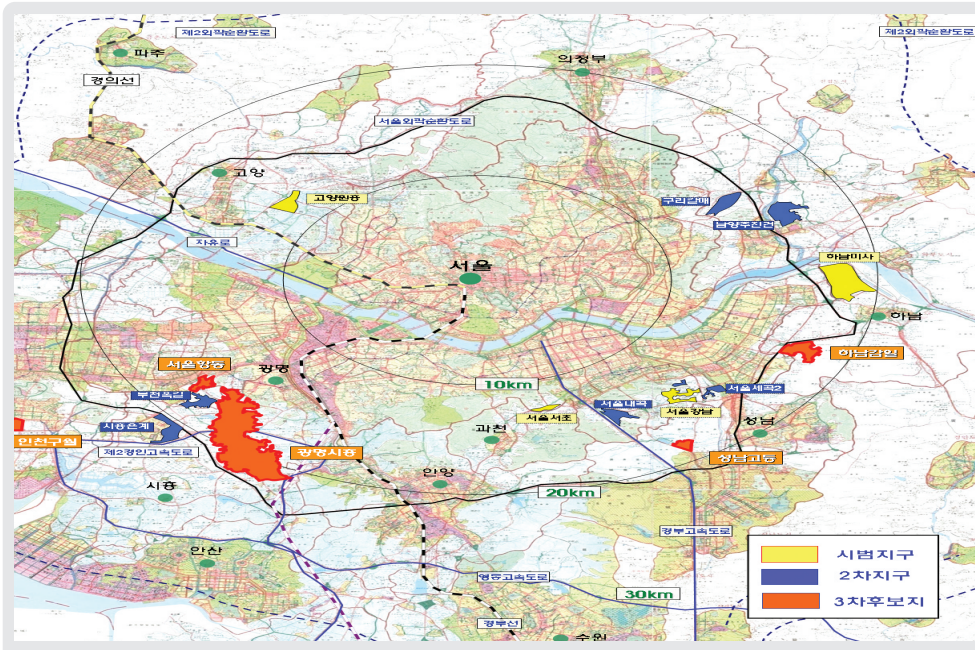
시중전세가의 30%수준(보증금 200~300만원, 월임대료 5~6만원)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1.5만호), 시중전세가의 55~70%수준(보증금 1,000~2,400만원, 월임대료 12~25만원)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5.5만호)의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주변시세에 비하여 15%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10만호)과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4만호)을 건설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외벽단열, 공동이용 시설(놀이터 등) 등의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며,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 1.2만호의 지붕·화장실·옹벽 등 개·보수를 통해 자가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도 주거복지정책의 혜택을 향유하게 된다. 특히, 주택개보수 사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년 이내 탈수급자로 확대하였다.

표 5-7 ● 주택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비 고 |
|-------------------|----------------|----------------|------------|-----|
| 부문 합 | 167,162 | 180,536 | 8.0 | |
| ○ 주택기금(소계) | 165,362 | 178,129 | 7.7 | |
| - 보금자리주택건설 | 88,119 | 95,033 | 7.8 | |
| - 주택구입·전세자금 | 56,977 | 57,000 | - | |
| - 준주택 | - | 300 | 순증 | |
| ○ 예산(소계) | 1,800 | 2,407 | 33.7 | |
| -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그린홈) | 500 | 670 | 34.0 | |
| -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 | 415 | 638 | 53.7 | |
| - 재정비촉진사업지원 | 120 | 500 | 316.7 | |



보금자리주택지구 위치도

제2부
2011년도 나만살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 공적연금 부문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 급여 지급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 공적연금 급여규모 : ('10년) 20.6조원 → ('11년) 23.7조원 (14.9%증)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연금별 수급자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크게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2010년 301만명에서 2011년 322만명으로, 공무원연금은 2010년 31만명에서 2011년 32만명, 군인연금은 2010년 7.5만명에서 2011년 7.9만명, 사학연금은 2010년 3.7만명에서 2011년 4.1만명으로 수급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10년 49%에서 2011년 48.5%로 하향 조정('09년부터 매년 0.5%p 감소하여 2028년에 40%수준)되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한다.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은 2010년 6.3%에서 2011년 6.7%, '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표 5-8 ● 공적연금 급여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연금수급자 |
|---------|---------|---------|-----------|---------------|
| 합계 | 206,263 | 237,057 | 14.9 | |
| - 국민연금 | 90,174 | 103,598 | 14.9 | · 301 → 322만명 |
| - 공무원연금 | 76,839 | 92,035 | 19.8 | · 31 → 32만명 |
| - 군인연금 | 21,063 | 23,516 | 11.6 | · 7.5 → 7.9만명 |
| - 사학연금 | 18,187 | 17,908 | △1.5 | · 3.7 → 4.1만명 |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 부문

☞ 보건의료 분야 재정규모 : ('10년) 73,303 → ('11년) 75,000억원

'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헬기 및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한다. 또한 119 구급지원센터를 신설하며 중증외상·심뇌혈관 등 핵심응급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 감염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사업에 2010년 4억원에서 2011년 44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 배정하였다.

표 5-9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c) | 증감률 (c/a) | 비 고 |
|-----------|---------|---------|-----------|-----------|
| 합계 | 73,303 | 75,000 | 2.3 | |
| - 보건의료 | 17,037 | 15,599 | △8.4 | · 오송이전 완료 |
| - 건강보험 | 53,826 | 57,102 | 6.1 | · 국고지원 확대 |
| - 식품의약품안전 | 2,440 | 2,299 | △5.8 | · 오송이전 완료 |

6 일자리 분야

| 6-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일자리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8조원으로 2010년보다 1.0%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역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 사업이 축소(△3,212억원)됨에 따라 전체 규모가 927억원 감소했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8.7조원으로 2010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4만명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3만명→3.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14.4만명→16.3만명) 등을 확대한다.

● 고용서비스, 창업인센티브 부문을 중점 확대

2010년에는 경기회복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부문으로의 원활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25.8%), 창업인센티브(14.5%) 부문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표 6-1 ● 일자리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 (b) | 증감률 (b/a) |
|-----------------|----------|----------|-----------|
| 합계 | 88,986 | 88,059 | △1.0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외시) | (84,530) | (86,815) | (2.7) |
| - 직접 일자리창출 | 27,270 | 25,122 | △7.9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11,518 | 11,241 | △2.4 |
| - 고용서비스 | 2,495 | 3,138 | 25.8 |
| - 고용장려금 | 8,818 | 8,234 | △6.6 |
| - 창업인센티브 | 1,386 | 1,587 | 14.5 |
| - 실업급여 등 | 37,498 | 38,737 | 3.3 |

| 6-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직접 일자리창출 부문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55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직접 지원한다.

☞ 직접 일자리창출 : ('10년) 2.7조원, 58만명 → ('11년) 2.5조원, 55만명

* 연간환산 지원인원 : ('10년) 38만명 → ('11년) 40만명

2011년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은 2010년 58만명보다 3만명 축소된 55만명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인원 감소는 경기회복이 예상되어 한시적 성격의 『지역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 사업을 축소(10만명→4만명)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지원인원은 2010년 48만명에서 2011년 52만명으로 확대된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성과가 좋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3만명→3.3만명)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4만명(상하반기 각 2만명) 수준으로 실시한다.

표 6-2 ● 직접 일자리창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27,270 | 25,122 | △7.9 | |
|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1,065 | 1,456 | 36.7 | |
| - 지역공동체 일자리 | 4,456 | 1,244 | △72.1 | |
| - 숲 가꾸기 | 3,132 | 2,938 | △6.2 | |
| - 노인 일자리 | 1,516 | 1,642 | 8.3 | |
| - 장애인 일자리 | 204 | 273 | 33.8 | |

● 직업능력개발 부문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확대하고, 부처간 유사·중복 훈련사업은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10년) 1,914억원 → ('11년) 3,045억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수 : ('10년) 41개 → ('11년) 25개

2011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은 전년보다 2.4% 감소한 1조 1,241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예산 감소는 경기회복, 사업방식 개편(참여자 자부담 설정) 등을 반영하여 실직자·근로자 직업훈련을 축소(3,675억원→3,045억원)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실직자·근로자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수요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 하는 계좌제 방식을 전면 도입(1,914억원→3,045억원)하고 지원대상도 실업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훈련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홍보·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실업자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으로 통합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훈련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훈련권 소사업』으로 통합한다.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청년층 지원을 대폭 확대(8천명→14천명)하고,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취업사관 학교』를 신설(100명 시범실시)하여 직업훈련(1년 무상) 및 자립수당(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표 6-3 ● 직접 일자리창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11,518 | 11,241 | △2.4 | |
|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1,060 | 1,505 | 42.0 | |
|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 1,227 | 1,229 | 0.2 | |
|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 4,106 | 4,247 | 3.4 | |
| - 실직자·근로자 직업훈련 | 3,675 | 3,045 | △17.1 | |

● 고용서비스 부문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

☞ 고용서비스 : ('10년) 2,495억원 → ('11년) 3,138억원

저소득층·청년·고령자에게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을 확대(3.1만명→5만명)하고, 건설·간병·파출 일용근로자에게 무료로 직업을 알선하는 취업지원센터를 2010년 9개소에서 2011년 30개소로 확충한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등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도 확대 설치(77개소→90개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간호협회를 통해 구인·구직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청년층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40개 대학 약 8천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대기업 협력업체 등이 공동으로 맞춤형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를 시범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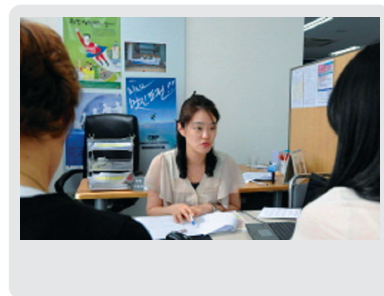


표 6-4 ● 고용서비스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2,495 | 3,138 | 25.8 | |
| - 취업성공패키지 | 289 | 574 | 98.6 | |
| - 새로일하기센터 | 200 | 233 | 16.5 | |
| -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지원 | - | 15 | 순증 | |
| - 청년취업아카데미 | - | 308 | 순증 | |

● 고용장려금 부문

단시간 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를 강화한다.

☞ 고용장려금 : ('10년) 8,818 → ('11년) 8,234억원

단시간 근로 및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거나, 유망업종 창업,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창출 1인당 연간 720만원~1,0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지원금』을 2010년 95억원에서 2011년 125억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월 50만원(정액)을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를 2011년부터는 평균임금의 40%(월50만원~100만원)로 인상한다. 한편,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998억원 → 360억원으로 축소한다.

표 6-5 ● 고용장려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8,818 | 8,234 | △6.6 | |
| - 고용창출지원사업 | - | 232 | 순증 | |
| - 임금피크제지원금 | 95 | 125 | 31.6 | |
| - 육아휴직급여 | 1,399 | 2,125 | 51.9 | |
| - 고용유지지원금 | 998 | 360 | △63.9 | |

● 창업인센티브, 실업급여 등 부문

지식서비스 등 유망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실직자 및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한다.

- ☞ 창업인센티브 : ('10년) 1,386 → ('11년) 1,587억원
- ☞ 실업급여 등 : ('10년) 37,498 → ('11년) 38,737억원

청년층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1인 창조기업육성 사업을 대폭 확대(99억원→210억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도 확대(769억원→788억원)할 계획이다.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직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2011년에 33,772억원을 지원하고, 도산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 지원도 확대(2,166억원→2,663억원)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중 생계비 대부자금을 확대(109억원→153억원)한다.

표 6-6 ● 창업인센티브 및 실업급여 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창업인센티브 합계 | 1,386 | 1,587 | 14.5 | |
| - 1인 창조기업 육성 | 99 | 210 | 112.1 | |
| - 신기술벤처창업활성화 | 769 | 788 | 2.5 | |
| 실업급여 등 합계 | 37,498 | 38,737 | 3.3 | |
| - 구직급여 | 33,660 | 33,772 | 0.3 | |
| - 체당금 지급 | 2,166 | 2,663 | 22.9 | |
|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109 | 153 | 40.4 | |

7 교육 분야

| 7-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1.2조원으로 2010년 38.3조원보다 7.8% 증가하였다.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교육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확충

대학생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을 위한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및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유치원비·학교급식비 등 지원도 확대할 나갈 것이다.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과목별·학생 수준별 학업성취도에 대응한 교과교실제 등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확산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다문화 학생·저소득 학생 등 우선배려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폭력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대학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및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대학 구조조정 및 국립대학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 선진 직업교육체제 구축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

특성화고는 구조조정 및 정예화를 통해 취업 중심학교로 육성하고, 전문대학은 우수 기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교육분야 ODA를 확대하고, 재외 동포 교육을 내실화하여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7-1 ● 교육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비 고 |
|----------------|---------|---------|-----------|-----|
| 합계 | 382,557 | 412,361 | 7.8 | |
| - 유아 및 초·중등 교육 | 325,467 | 354,847 | 9.0 | |
| - 고등 교육 | 50,440 | 49,769 | △1.3 | |
| - 평생·직업 교육 | 5,378 | 6,490 | 20.7 | |
| - 교육 일반 | 1,272 | 1,254 | △1.4 | |

| 7-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유아·장애학생,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325,467억원 → ('11년) 354,847억원 (9.0% 증가)

2011년에는 月소득 450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 가구의 유아 학비는 전액 지원(유아가정의 70%)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5,153 → 6,395억원)한다. 학교에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1인당 30 → 36만원) 및 대상 인원(39 → 48.6만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2010년에 첫 시행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과목별·학생 수준별 학업성취도에 대응한 교과교실제를 확대(806 → 862개교)할 계획이다. 현재 무료제공 중인 EBS 수능 강의의 품질을 향상시켜 전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 대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안전 강화를 위해 2010년에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1,048개 학교에 경비인력을 첫 배치한데 이어, 2011년에는 1,600개교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을 가속화(45 → 83억원)하고,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학교 영어 교육과 연계하여 실용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39 → 75억원)한다.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 실태 조사 등을 실시(7 → 17억원)하고,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신규로 개발한다. 장애학생과 교사가 산업체 직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고, 국립 특수학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승합차량 구입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1년 세입 증가 전망에 따라 2010년 32.3조원보다 약 3조원 수준 증가한 35.3조원이 될 전망이다.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수 학습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지원, 학교재정지원, 지방채 및 BTL 상환, 인건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표 7-2 •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325,467 | 354,847 | 9.0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22,980 | 352,831 | 9.2 | |
| -국가 영어 능력평가 시험 개발 및 운영 | 45 | 83 | 84.4 | |
|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 39 | 75 | 92.3 |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51 | 61 | 19.6 | |



장애인 도우미



학자금 대출

● 고등교육 부문

대학생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50,440억원 → ('11년) 49,769억원 (△1.3% 감소)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1,000억원)을 신설하고,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도 확대(1,817 → 2,313억원)한다. 또한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96억원)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 장학금도 확대(750 → 810억원)한다.

그리고 2010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든든학자금(ICL)이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추천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대출 미상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재원 조달 비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설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11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2010년 대출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1세기형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확산 지원 확대 등 대학 교육역량을 강화(2,900 → 3,030억원)하며, 2단계 BK21을 지속적으로 추진(2,370억원)하고 연간 3,000만원 수준의 박사과정 학생 연구장학금(Fellowship)을 신설(95억원)하여 학업·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해외학자와의 공동연구·전공신설 등을 지원하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1,552억원)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사업비 및 시간강사료 지원을 확대(714 → 1,137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원 석·박사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대학원 추가 신설을 억제하고, 대학원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부실대학원의 퇴출구조를 마련하여 대학 시간강사가 과잉 배출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학의 배출 인력이 산업계 수요와 숙련 수준을 반영하는 데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통폐합(190억원), 사립대학 경영컨설팅(40억원), 대학 평가·인증 강화(17억원), 대학정보 공개시스템 내실화 등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국립대학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6개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던 10개 해외 인턴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요자의 이용 편의와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턴십 기회 제공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취업을 돕고 대학 교육과정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동 사업을 확대(169 → 215억원)할 계획이다.

표 7-3 ● 고등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50,440 | 49,769 | △1.3 | |
|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3,566 | 5,218 | 46.3 | |
| - 대학 교육역량 강화 | 2,900 | 3,030 | 4.5 | |
| -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 714 | 1,137 | 59.2 | |
|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 169 | 215 | 27.2 | |
| -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 - | 95 | 순증 | |

● 평생·직업교육 부문

특성화고 장학금 등을 신설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교육분야 ODA 확대 및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하여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5,378억원 → ('11년) 6,490억원 (20.7% 증가)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이 참여하는 개방적 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지원(25 → 40억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지원(신규 14억원)할 것이다.

201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성화고 장학금을 신설한다.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등 기지원자를 제외한 26.3만명에게 교육비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현장연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지원 활동을 지원(신규 510억원)한다.

교육역량과 교육성과가 뛰어난 전문대학들이 스스로의 발전전략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2,600억

원)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30억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개도국의 교육원조 수요를 적극 지원하여 친한 이미지의 구축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아프리카 국가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신탁기금을 신설(12억원)한다. 또한, 개도국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Global Korea Scholarship Program」을 체계화(467억원)하여 한국형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우디, 모로코 등 국가에는 교육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ICT 기반의 시범교실 운영을 통해 우리 교육의 해외진출을 신규로 지원(20억원)한다.

재외국민 자녀들이 국내 교육과 연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의 시설 및 교직원의 확충과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595억원)한다.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민족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내 초청 교육, 재외 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사업을 확대(6→23억원)할 계획이다.

표 7-4 ● 평생·직업 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5,378 | 6,490 | 20.7 | |
|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 | 1,264 | 순증 | |
|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 25 | 40 | 60.0 | |
| -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 - | 14 | 순증 | |
|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 2,600 | 2,600 | - | |
| - 한국형 첨단 교육서비스 수출 지원 | - | 20 | 순증 | |
| -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 | 88 | 118 | 34.2 | |
| -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확립 | 6 | 23 | 383.3 | |

8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8-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2조원으로 2010년 3.9조원보다 7.8% 증가하였다.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외계층 등 온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온 국민이 쉽게 누릴수 있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미술관서울관 등 품격있는 국가상징 문화공간을 차질없이 조성하고, 문화바우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소외지역도 골고루 누리는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해나간다. 아울러, 안동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재를 3D로 제작하는 등 활용가치를 제고한다.

●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 집중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3D 등 차세대콘텐츠 인력양성·R&D 투자 확대, 제작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여건 개선 및 콘텐츠업체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저작권보호활동 강화, 건전유통 활성화 등 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병행 추진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아울러, MICE¹⁾, 생태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역사·생태 등 지역특색에 맞는 新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1)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지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스포츠강사 파견 확대 등 생활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해나가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유치 지원,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등 훈련여건 개선을 통해 전문체육의 경쟁력도 강화해나간다.

표 8-1 ●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
| 합계 | 38,990 | 42,045 | 7.8 |
| - 문화예술 | 15,240 | 16,811 | 10.3 |
| - 관광 | 8,896 | 9,257 | 4.1 |
| - 체육 | 7,303 | 8,403 | 15.1 |
| - 문화재 | 5,212 | 5,228 | 0.3 |
| - 문화 및 관광일반 | 2,338 | 2,346 | 0.3 |

| 8-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문화예술부문

온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 ('10년) 70조원 → ('11년) 74.5조원

미술관·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미술관서울관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도 차질없이 조성('10년 667억원 → '11년 1,406억원)한다.

저소득층도 문화공연 관람, 스포츠강좌, 관광·여행 기회를 골고루 누리도록 문화·스포츠·여행바우처 사업('10년 96 → '11년 379억원)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문화예술공연, 문학나눔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강화하여 소득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골고루 문화향유기회를 누리도록 한다.



문학나눔/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아울러 초·중·고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극·무용 등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소외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하는 등 향후 문화예술의 수요자 및 창작주체로서 미래세대의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고용을 창출한다. 3D化·개방化·융복합化 등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R&D투자 확대, 제작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여 콘텐츠 업체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영화 등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조치 강화, 콘텐츠의 건전 유통·활용 촉진 등 시장구조 선진화를 병행 추진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나간다.

표 8-2 ● 문화예술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15,240 | 16,811 | 10.3 | |
| - 글로벌 펀드 조성 | - | 400 | 순증 | |
| - 국가상징문화공간 조성 | 667 | 1,406 | 52.6 | |
| - 소외계층문화향유 지원 | 96 | 379 | 294.8 | 수혜자수 확대 |

● 관광부문

MICE*, 생태관광 등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新관광 자원 개발로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 외래관광객수 목표 : ('10년) 880만명 → ('11년) 960만명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민의 높아진 여가수요에 부합하도록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MICE산업(124→139억원), 생태녹색관광(146→218억원) 등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MICE 유치·개최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순천만 습지센터 건립, 스토리가 있는 생태탐방로길 조성 확대(10→20개) 등 생태관광 자원을 개발한다. 이와 함



생태탐방로

께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역사·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간다.

외래관광객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국제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관광분야를 통한 신성장을 도모한다. 외래관광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을 지속 확충(1,901억원 융자)하고, 고궁 및 역사문화, 전통 문화예술 공연, 세계무형문화유산 등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고궁활용 전통문화예술공연

또한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초관광 자원 개발과 지역간 연계를 통한 광역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8-3 ●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8,896 | 9,257 | 4.1 | |
| - MICE육성 | 124 | 139 | 12.5 | |
| - 생태녹색관광개발 | 146 | 218 | 49.3 | |
| - 관광진흥기반 확충 | 3,820 | 4,364 | 14.2 | |

● 체육부문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육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유치 지원 및 훈련여건 개선 등 전문체육을 육성한다.

☞ **체육부문 : ('10년) 7,303억원 → ('11년) 8,403억원(15.1% 증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국민생활체육지도자(1,950명)·초등학교 스포츠강사(1,500명) 지속 지원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및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국민체육센터(45개소), 운동장체육시설(170개소), 개방형다목적체육관(25개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5개소) 등 공공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유치활동도 지원한다.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 인천국가대표종합훈련장 완공으로 훈련여건을 개선하여 전문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천장애인 종합체육시설 보강 등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표 8-4 ●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7,303 | 8,403 | 15.1 | |
| - 국제경기대회 지원 | 1,848 | 1,950 | 5.5 | |
| - 생활체육육성 | 2,640 | 2,917 | 10.5 | |

● 문화재부문

안동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활동을 강화하고 활용가치도 함께 제고한다.

☞ 세계유산보존 : ('10년) 424억원 → ('11년) 534억원(25.9% 증가)

안동하회마을, 경주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10.7)를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한층 강화하며, 문화재를 생동감 있는 3D 영상 기록물로 제작하여 활용가치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안동하회마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 등의 보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재보호기금을 확대하여 문화재의 재난 방지 시스템 및 궁능방재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강릉 선교장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설립하여 아태지역의 무형유산보호 활동 강화 등 국제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을 증대하여 국가적 위상을 제고해나간다.

표 8-5 ● 문화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계 | 5,212 | 5,228 | 0.3 | |
| - 문화재보호기금 | 1,214 | 1,238 | 2.0 | |
| - 문화재보수정비(총액) | 2,100 | 1,880 | △10.5 | 세계유산보존관리 별도 분리 220억 |
| - 궁능원 보존관리 | 447 | 477 | 22.0 | |

9 환경 분야

| 9-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환경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8조원으로 2010년 5.4조원보다 6.2% 증가하였다. 예산은 6.2% 증가한 5.0조원이고, 기금(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수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산발전기금)은 6.2% 증가한 0.8조원이다.

●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수질개선에 지속 투자

수질 개선을 위한 하·폐수처리시설과 건강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농어촌 등 환경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지속 지원한다.

●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녹색생활 국민 참여 확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 환경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고부가가치 환경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실시하고,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도 확대해 나간다.

표 9-1 ●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
| 합계 | 54,164 | 57,520 | 6.2 |
| - 상하수도 · 수질 | 35,864 | 38,726 | 7.4 |
| - 폐기물 | 2,780 | 2,707 | △2.6 |
| - 대기 | 2,851 | 3,010 | 5.6 |
| - 자연 | 4,176 | 4,116 | △1.4 |
| - 해양 | 2,077 | 2,121 | 2.1 |
| - 환경일반 | 6,415 | 7,039 | 9.7 |

| 9-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상하수도 · 수질 부문

전국 하천과 호소를 생명·생태가 살아 있는 건강한 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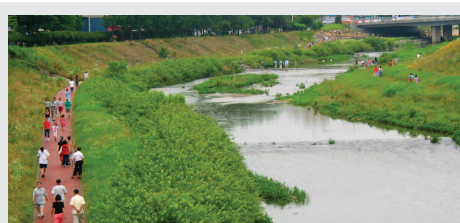
☞ 하수처리장 확충 : ('10년) 6,213억원 → ('11년) 7,486억원

☞ 비점(非點)오염저감 : ('10년) 212억원 → ('11년) 412억원

그간 하천 녹조의 주요 원인이 되어온 인(P) 성분의 방류기준이 2012년부터 대폭 강화되며,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제한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안양시 학의천 복원 전



안양시 학의천 복원 후

그동안 유출 경로가 명확한 하수처리장·관거 등 점(點)오염원 저감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산재되어 있고 빗물에 의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비점(非點)오염원에 의한 오염도 증가하고 있어, 생태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수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을 건강하게 되돌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강화한다.

농어촌·도서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9-2 ● 상하수도·수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35,863 | 38,526 | 7.4 | |
| ○ 예산 | 28,579 | 30,907 | 8.1 | |
| - 하수처리장 | 6,213 | 7,486 | 20.5 | |
| - 하수관거 | 6,465 | 5,284 | 18.3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 821 | 852 | 3.8 | |
| - 생태하천 복원 | 1,235 | 1,311 | 6.2 | |
| - 비점오염원관리 | 212 | 412 | 94.3 | |
| - 상수도확충 및 관리 | 3,536 | 3,727 | 5.4 | |
| -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 983 | 1,486 | 51.2 | |
| ○ 기금 | 7,284 | 7,619 | 4.6 | |
| - 4대강 수계기금 | 7,284 | 7,619 | 4.6 | |

● 폐기물 부문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원화 등이 어려운 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 구축 : ('10년) 0억원 → ('11년) 23억원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자원화·에너지화하여 자원고갈에 대비한다. 국가의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 하는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자원화·에너지화가 어려운 폐기물은 인체·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노후 소각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에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집하·선별장 등 재활용 시설을 현대화하여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영세 재활용 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한다.

표 9-3 ● 폐기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2,780 | 2,707 | △2.6 | |
| ○ 예산 | 2,780 | 2,707 | △2.6 | |
| - 쓰레기 처리시설 | 812 | 758 | △6.7 | |
| - 폐기물 자원화 | 758 | 749 | △1.2 | |
|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27 | 28 | 2.0 | |
| - 폐기물 감량정책 추진 | 17 | 20 | 17.6 | |
| - 농촌폐비닐 사업 | 121 | 71 | △41.3 | |

● 자연 부문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생물자원의 주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 ('10년) 0억원 → ('11년) 89억원

☞ 생물자원발굴·분류 : ('10년) 70억원 → ('11년) 85억원

내륙과 연안·도서를 연결하는 생태축을 복원하여 녹색한반도(Green Korea)를 구현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생태탐방로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자연의 보전과 이용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가 생물자원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2010년 10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을 통해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의 주권을 확고히 하고, 생물자원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과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9-4 ● 자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4,176 | 4,116 | △1.4 | |
| ○ 예산 | 4,176 | 4,116 | △1.4 | |
| - 습지보전관리 | 101 | 114 | 12.9 | |
|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68 | 79 | 16.2 | |
| - 국립생태원 건립 | 989 | 571 | △42.3 | |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 80 | 250 | 212.5 | |
| - 야생생물유전자원활용 지원기반 구축 | 6 | 12 | 100.0 | |

● 대기 부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사회 구현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에 지속 투자한다.

☞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 : ('10년) 281억원 → ('11년) 300억원

☞ 자동차배출가스관리 : ('10년) 68억원 → ('11년) 184억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非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기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완속 및 급속 충전시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경유 자동차 개조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외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해 나간다.

표 9-5 ● 대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2,851 | 3,010 | 5.6 | |
| ○ 예산 | 2,851 | 3,010 | 5.6 | |
|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 체계구축 | 0 | 59 | 순증 | |
| - 수도권대기개선 | 1,402 | 1,306 | △6.8 | |
| - 수도권외 대기개선 | 171 | 168 | △1.8 | |
|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 378 | 404 | 6.9 | |

● 해양 및 환경일반 부문

환경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면 등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 : ('10년) 54억원 → ('11년) 84억원

☞ 석면피해구제기금 : ('10년) 0억원 → ('11년) 134억원

Global Top 환경기술 개발을 목표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R&D 성과를 사업화하도록 우수 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체의 인프라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착 및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녹색도시의 모델을 조기에 창출하는데 지원을 확대한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시행한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 및 치료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복원을 위해 해양생태계 기초자료 조사와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 및 갯벌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염전 등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방치되어 훼손·오염된 일부 연안에 대하여 갯벌로 복원하여 연안 생태계 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아울러 태안유류오염사고('07.12.7)의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을 위해 대부·대지급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생물의 개체수와 다양성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연구를 위한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을 적극 뒷받침한다.

표 9-6 ● 해양 및 환경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환경일반 | 6,415 | 7,039 | 9.7 | |
| ○ 예산 | 6,291 | 6,776 | 7.7 | |
|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 | 54 | 84 | 55.6 | |
| - 녹색생활확산 및 선도사업 지원 | 34 | 48 | 41.2 | |
| - 저탄소 녹색도시 지원 | 10 | 100 | 900 | |
| - 석면관리 종합대책 | 31 | 48 | 54.8 | |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200 | 130 | △35.0 | |
| - 신화학물질(REACH)대응 및 화학물질체계 선진화 | 43 | 57 | 32.6 | |
| ○ 기금 | 124 | 263 | 112.1 | |
| - 수계관리기금 | 124 | 129 | 4.0 | |
| - 석면피해구제기금 | - | 134 | 순증 | |
| 합 계 - 해양환경 | 2,077 | 2,121 | 2.1 | |
| ○ 예산 | 1,918 | 1,962 | 2.3 | |
| -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 | 162 | 330 | 103.2 | |
| -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 250 | 100 | △60.0 | |
| ○ 기금 | 159 | 159 | - | |
|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74 | 106 | 43.2 | |

10 국방 분야

| 10-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국방비(일반회계 총계 기준) 규모는 2010년 보다 6.2% 증가한 31.4조원 수준이며, 북한위협 대비 핵심전력 증강과 장병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

● 북한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 및 국방 R&D 투자 확대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서북도서 전력을 긴급 보강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대잠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지휘통제·감시정찰·정밀타격 등 핵심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 R&D 투자를 확대한다.

● 현존전력 극대화 및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고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리부속 확충 등 정비활동과 과학화 훈련 등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후·협소한 군 주거시설 개선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표 10-1 ● 국방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
| 국방비 ^주 합계 | 295,627 | 314,031 | 6.2 |
| - 방위력개선 | 91,030 | 96,935 | 6.5 |
| - 병력운영 | 121,204 | 128,186 | 5.8 |
| - 전력유지 | 83,393 | 88,910 | 6.6 |

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총계

| 10-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방위력개선 부문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보강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향상하고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국방 R&D 투자를 확대한다.

☞ 방위력개선 투자 : ('10년) 9.1조원 → ('11년) 9.7조원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하여 서북도서 지역에 K-9자주포·대포병탐지레이더 증강배치, 전술비행선·정밀타격 유도무기 도입 등 탐지 및 타격전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설치, 호위함·초계함용 어뢰음향 대항체계 장착 등 대잠수함 전력을 보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 군사위협에 대비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차기유도무기 등 탄도탄에 대한 탐지·요격 및 방호 능력을 구비하며, F-15K 전투기 도입 등 정밀타격 전력을 확충하고, 항만감시체계 구축,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 등 감시·정찰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방위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구·핵심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국방녹색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증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민군겸용 기술개발·신개념 기술시범사업 등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표 10-2 ●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91,030 | 96,935 | 6.5 | |
| - 무기체계 양산 및 도입 | 71,482 | 75,241 | 5.3 | • 함정, 항공기, 화력탄약 등 |
| - 국방 R&D 투자 | 17,945 | 20,164 | 12.4 | • 국방비대비 비중: ('10년) 6.1%→ ('11년) 6.4% |
| - 방위사업종합지원 등 기타 | 1,603 | 1,530 | △4.6 | |



K-9자주포



F-15K 전투기

● 병력운영 부문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유급지원병 및 부사관 확대 등을 통해 정예화를 추진한다.

☞ **병력운영 : ('10년) 12.1조원 → ('11년) 12.8조원**

정보·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추진에 따라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되, 이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첨단장비의 상시 전력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급지원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부사관의 비중도 확대하여 병력의 정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유급지원병은 숙련 직위 및 첨단기술 직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무복무기간 완료후 6~18개월간 추가 복무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10년 6,100명에서 1,245명을 증원하여 2011년에는 7,34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부사관도 1,128명을 증원한다.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중폭파팀(UDT)과 해난구조대(SSU)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함정근무수당과 항공수당도 10% 인상하였다. 또한 장병사기 진작을 위해 방한·방수 기능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 보급을 확대하고, 1인당 급식비 단가를 2010년 5,650원에서 2011년 5,820원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해군 UDT/SSU 훈련

표 10-2 • 병력운영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121,204 | 128,186 | 5.8 | |
| - 인건비 (법정부담금 포함) | 105,362 | 111,725 | 6.0 | • 유급지원병 확대 : 397 → 546억원 |
| - 급식·피복비 | 15,842 | 16,461 | 3.9 | • 급식비 : 1일 5,650 → 5,820원 |

● 전력유지 부문

전력유지는 현존전력 극대화과 장병사기 진작을 위해 정비활동 및 교육훈련 강화, 군 주거시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전력유지 : ('10년) 8.3조원 → ('11년) 8.9조원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싸우면 이기는 선진강군 육성 및 현존 전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장비유지비 및 수리부속비(20,549→21,375억원), 실전적 사격훈련 강화를 위한 교육용 탄약(2,585→2,857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가상훈련 및 실전과 유사한 모의훈련을 통하여 빈틈없는 전시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CBT(Computer Based Training)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564→597억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무형전력인 군 정신교육(182→239억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장병사기 진작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침대형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과 군 관사·독신장교 숙소 등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병영시설 공사에 조립식 공법을 도입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기세척기 및 군화건조기 보급, 여군 전용 화장실 설치 등 신세대 장병들에 부합하는 병영생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구명정, 구명조끼 등 안전관련 장비·물자(137→503억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장병 사기진작 및 생명·신체의 안전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10-3 ● 전력유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83,393 | 88,910 | 6.6 | |
| - 군수지원 및 협력 | 35,557 | 37,345 | 5.0 | •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지원 2조 1,375억원 등 |
|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 19,893 | 23,323 | 17.2 | • 군 주거시설 개선 1조 519억원 등 |
| - 교육훈련 | 4,196 | 4,492 | 7.0 | • 과학화훈련 597억원 등 |
| - 기타 | 23,747 | 23,750 | 0.01 | |



군화건조기

11 외교·통일 분야

| 11-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3.7조원으로 2010년 본예산 3.4조원보다 9.0% 증가하였다. 국제기여 관련 지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2010년 9,140억원에서 1조 1,136억원으로 21.8% 증액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쌀·비료 국제 단가 하락으로 인해 2010년 7,159억원에서 6,139억원으로 14.2% 감소하였다.

● 국제기여 확대 등을 통한 국격 제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받는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성장한 만큼 베푸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다변화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브랜드화하며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여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순회영사서비스 확대 등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애로해결 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등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을 도울 것이다. 더불어, 재외동포 2~3세대 전문인력의 재외공관 채용, 노후화된 재외공관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최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으나, 북한의 진정성이 내포된 태도변화가 있을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성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해나갈 것이다.

표 11-1 ●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c/a) |
|------------|---------|---------|-----------|
| 합 계 | 33,497 | 36,512 | 9.0 |
| - 외교·통상 부문 | 20,519 | 24,004 | 17.0 |
| - 통일 부문 | 12,978 | 12,508 | △3.6 |

| 1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외교·통상 부문

국제기여 확대를 통한 국격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의 주도를 위해 외교·통상부문 총지출은 2조 4,004억원을 편성하였다.

☞ 외교·통상부문 총지출 : ('10년) 20,519 → ('11년) 24,004억원

2011년도 외교·통상부문 총지출은 2조 4,004억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증액 등 국제기여 확대에 의해 2010년도 보다 3,485억원 증가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2010년 0.13%에서 2011년 0.14%까지 확대하였고, UN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국제기구분담금 규모를 2010년 3,461억원에서 2011년 4,1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개발도상국 의료지원

한·미FTA의 조기비준과 FTA 추진 대상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44→51억원)하는 한편, 저탄소·녹색성장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58억원)하였다. 더불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 외교를 지속 지원(90억원)하였다.

해외여행경보제, 재외국민보호콜센터 운영, 순회영사서비스 확대 등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59억원)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애로 해결 및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 반영(25억원)하였다. 더불어, 재외동포 2~3세대 전문 인력 중심의 재외공관 행정원 충원사업을 지원(125억원)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의 리모델링을 지원(65→162억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인프라도 확충하였다.

표 11-2 ● 외교·통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20,519 | 24,004 | 17.0 | |
| - 국제기구분담금 | 3,461 | 4,175 | 20.6 | PKO분담금 등 |
| - 공적개발원조(ODA) | 9,140 | 11,136 | 21.8 | KOICA출연, EDCF |
| -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 239 | 325 | 35.8 | 재외국민보호, 재외동포재단 지원 등 |

● 통일 부문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통일부문 총지출은 1조 2,508억원을 편성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 ('10년) 11,189 → ('11년) 10,153억원

2011년도 남북협력기금 전체 규모는 1조 3,768억원으로 경수로와 관련된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규모 감소와 인도적 지원 사업인 대북 쌀·비료 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2010년도 보다 8,511억원 감소하였다. 이 중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3,92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대북 식량·비료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40만톤과 30만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북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88억원을 반영하였다. 최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나 북한의 태도 변화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대북수해지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을 제고시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2 하나원 신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등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한 예산을 증액(834 → 1,190억원)하여 편성하였다.

표 11-3 •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12,978 | 12,508 | △3.6 | |
| - 사회문화교류 | 88 | 88 | - | 인적왕래 지원 |
| - 인도적 지원 | 8,040 | 7,399 | △ 8.0 | 대북식량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등 |
| - 남북경협 | 3,987 | 3,968 | △ 0.5 | 개성공단 조성 등 |

[참고]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의 집행기관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 제공한 자금 흐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지원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관련되어야 하며, 둘째, 지원주체가 정부나 이의 대행기관이고, 셋째, 지원조건은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 혹은 종교적 목적의 지원, 학술 및 문화교류 차원의 지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 등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ODA는 주체별로 크게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국가 대 국가로 공여되는 원조로서 상환의무에 따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구분되며, 다자간 협력은 1970년대부터 채택된 원조방식으로 개도국 원조시 그 나라에 직접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국제기구 분담금 또는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이다.

다자간 협력은 양자간 협력에 비해 국제기구에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주도로 원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참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우리나라는 2009.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 DAC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24번째 DAC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0.1.1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중이다.

우리나라는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형 ODA모델의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가는 한편, DAC 가입을 계기로 ODA규모를 2012년 GNI대비 0.15%, 2015년 0.2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 공공질서·안전 분야

| 12-1 | 재정지원 방향

2011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13.7조원으로 2010년 12.9조원보다 5.6%증가하였다. 2011년 예산은 사법 인프라 확충, 범죄로부터 국민생활 안전보장, 범죄 예방 시스템 강화 및 해양주권 수호, 사전 재해예방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 전자법원 구현 등 사법 인프라 확충

전자소송 확대, 재판업무시스템 고도화, 소송 인프라 확충 등 종이 없는 소송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헌법연구원을 신설하여 헌법재판 제도의 중장기적인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및 범죄피해자 지원

흉악범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성충동자 약물치료·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보호 강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설,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법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범죄예방시스템 강화 및 해양주권 수호

과학 수사장비를 확보하여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교통과학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노후함정대체건조, 보유 장비 운영·유지비 투자 확대 등 해양 경비 및 치안 역량을 강화하여 해상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한다.

● 사전 재해예방 투자강화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관련 R&D 투자를 포함한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천안함 도발에 따른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대피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안전망을 강화한다.

표 12-1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
| 합 계 | 129,337 | 136,565 | 5.6 |
| - 법원 및 헌재 | 13,628 | 14,273 | 4.7 |
| - 법무 및 검찰 | 23,450 | 25,434 | 8.5 |
| - 경찰 | 75,427 | 78,164 | 3.6 |
| - 해경 | 9,457 | 10,399 | 10.0 |
| - 재난관리 | 7,374 | 8,296 | 12.5 |

| 1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법원 및 헌재 부문

인터넷을 이용한 소장 제출·사건처리·판결 통지 등 종이 없는 소송 지원을 통한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한다.

☞ 전자소송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신규) : ('11년) 103억원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 제출, 소송비용 납부, 사건기록의 실시간 조회 등 인터넷 재판을 확대·시행한다. 또한 전자송달과 전자적 변론으로 재판기간을 단축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편익 위주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을 본격화하여 국내외 헌법이론·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화·복잡화 되어가는 헌법재판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가를 양성한다.

표 12-2 • 법원 및 헌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13,628 | 14,273 | 4.7 | |
| - 사법업무전산화 | 367 | 451 | 22.9 |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등 |
| -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 - | 18 | 순증 |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 교육 등 |

● 법무 및 검찰 부문

법질서 확립으로 아동·여성의 성폭력 예방 및 범죄의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 수사일반 등 : ('10년) 1,552억원 → ('11년) 1,730억원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후 처벌 및 치료보다는 사전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24시간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성충동범죄자 약물치료, 신상공개제도 등을 통해 여성·아동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특히, 살인·강도·강간 등 11개 유형 범죄자는 유전자(DNA) 관리로 재범을 예방한다.



성폭행범자 전자발찌 착용

범죄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신설·운영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기준도 대폭 확대하여 투자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교육

대전 솔로몬 로-파크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남부지역에도 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 솔로몬 로-파크를 신축한다. 헌정사관·입법체험실·과학수사실·모의법정실·교도소 체험실 등을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출입국 심사에 지문·안면심사 등 입국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위·변조 여권 활용 등 불법입국자를 방지하여 외국인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한다.



부산솔로몬 로-파크 개념도

표 12-3 ●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23,450 | 25,434 | 8.5 | |
| - 수사일반 등 | 1,552 | 1,730 | 11.5 | 공안수사, 마약수사,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등 12개 사업 |
| - 범죄피해자지원기금 | - | 624 | 순증 |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11개사업 |
| - 솔로몬 로-파크 신축 | - | 17 | 순증 | |
| - 성폭력범죄예방사업 | 22 | 60 | 270.2 |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공개 등 |
| - 외국인출입국관리 사무소 시설운영 | 88 | 186 | 110.5 | 지문확인시스템구축, 시설운영, 외국인등록증 발급 |

● 경찰 부문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및 과학수사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신고시스템 지원 강화 등 범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한다.

☞ 생활안전활동 : ('10년) 86억원 → ('11년) 160억원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지능화·연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장비 보강, 장비 현대화 등 치안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신속한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12 신고 대응시스템(9개소→11개소)을 확대 운영한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과학장비를 확충하고 모범 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 등 치안 협력을 강화한다.

야간집회를 허용하되, 위해성 논란이 있는 장비 구입은 줄이고, 경찰관과 집회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구입은 확대하여 집회·시위 문화를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12-4 ●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75,427 | 78,164 | 3.6 | |
| - 생활안전활동 | 86 | 160 | 85.7 | 통합112신고센터확대 |
| - 교통과학장비관리 | 734 | 984 | 34.0 | 무인단속장비운용 |
| - 범죄감식및관리 | 85 | 172 | 102.4 | DNA D/B 구축 |
| - 범죄수사역량강화 | 62 | 111 | 81.9 | 범죄수사비 현실화 |

● 해양경찰 부문

노후함정대체건조, 보유 장비 운영·유지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해양 경비 및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연안구조장비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 노후함정대체건조 : ('10년) 885억원 → ('11년) 1,099억원

☞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신규) : 52억원(5년간 287억원 투자)

선령 초과 노후함정을 대체 건조하여 경비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정비비 및 통신장비 등 운영·유지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양자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위반선박 검거 위한 해·공입체적 작전

안전에 취약한 소형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고속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 등 연안구조장비 도입을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표 12-5 ● 해양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9,457 | 10,399 | 10.0 | |
| - 노후함정대체건조 | 885 | 1,099 | 24.2 | 함정 42, 순찰정 3척 |
| - 운영·유지비 | 481 | 600 | 24.7 | 정비비, 통신장비 구입 |
| - 연안구조장비도입 | 25 | 54 | 116 | 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 각 10대 |
| - 해양경비안전망구축 | - | 52 | 순증 | 어선 9,047척 |

● 재난 관리 부문

재난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천안함 도발에 따른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피시설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 ☞ 재해예방투자 : ('10년) 5,779억원 → ('11년) 5,818억원
- ☞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10년) → ('11년) 420억원

'09년부터 대폭 확대된 재해예방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관련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동안 예비비로 지원하던 사유재산 복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소하천 정비

천안함 도발사건 후속조치로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국민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하여 안전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민대피시설

표 12-6 ●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 구 분 | '10년(a) | '11년(b) | 증감률 (b/a) | 비 고 |
|--------------------|---------|---------|-----------|-----------------------------|
| 합 계 | 7,374 | 8,296 | 12.5 | |
| - 재해예방투자 | 5,779 | 5,818 | 0.7 | 재해위험지구 211 등 |
| - 사유재산복구지원 | - | 200 | 순증 | 신속한 복구지원 |
| -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지원 | - | 498 | 순증 | 대피시설, 정주생활지원 등 |
|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 - | 367 | 순증 | CCTV 1,208개소, 통합관제센터 27개소 등 |

03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11년도 예산

제2장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 제1장 |

2011년도 예산

1 2011년도 예산 총칙

❖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
| ① 일반회계 | 209,930,268,146,000원 |
|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726,715,000,000원 |
|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 14,489,864,000,000원 |
| ④ 등기특별회계 | 240,070,424,000원 |
|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 42,986,000,000원 |
|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084,722,000,000원 |
|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 4,271,463,911,000원 |
|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652,832,000,000원 |
|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386,900,000,000원 |
|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785,936,000,000원 |
|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822,660,000,000원 |
|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1,366,387,161,000원 |
|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71,876,000,000원 |
| 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9,852,576,000,000원 |
|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 1,389,006,566,000원 |
| ⑯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716,353,832,000원 |
| ⑰ 조달특별회계 | 382,200,431,000원 |
| ⑱ 우편사업특별회계 | 3,672,054,000,000원 |
| ⑳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2,207,991,000,000원 |

- ❖ 제2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 제3조 2011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 제4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 제5조 2011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 ❖ 제6조 2011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 ❖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 제8조 2011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 |
|---|---------------------|
|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 15,000,000,000,000원 |
|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 2,000,000,000,000원 |
|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 10,000,000,000,000원 |

- ❖ 제9조 2011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① 국민주택기금 | 11,500,000,000,000원 |
|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 82,500,000,000,000원 |
| ③ 외국환평형기금 | 1,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

-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 통신 사업·기동전력 사업·함정 사업·항공기 사업·화력탄약 사업·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사업·정밀타격/신포수무기 사업·국방연구개발 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 회 계 | 수입 | 지출 |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금융영업수입 부가보험료수입 | 지급이자 보험보상금 |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레바논·아이티·소말리아 및 아랍에미리트(UAE) 해외 파병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 | |
|--|------------------|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 30,000,000,000원 |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0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 70,000,000,000원 |
|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전출금 | 36,374,000,000원 |
|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전출금 | 329,449,000,000원 |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 | |
|----------------------------|------------------|
|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 634,941,560,000원 |
| ②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 145,900,939,000원 |
| ③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 16,887,000,000원 |
| ④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 5,456,000,000원 |
| ⑤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 290,177,000,000원 |
|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 329,449,000,000원 |
|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 61,175,000,000원 |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원자력 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7,080,000,000원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 (Summary of Budget)

|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 구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 | 금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1.내국세 (Internal Taxes) | 136,932,700 | 68.0 |
| 2.관세 (Customs Duties) | 9,276,800 | 4.6 |
| 3.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Tax) | 11,695,000 | 5.8 |
| 4.교육세 (Educational Tax) | 4,541,700 | 2.3 |
| 5.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RealEstateTax) | 1,046,100 | 0.5 |
| 6.세외수입 (Non-Tax Revenues) | 37,791,156 | 18.8 |
| · 국채발행 (Non-Tax Revenues) | 29,300,000 | 14.6 |
| · 기타수입 (Others) | 8,491,156 | 4.2 |
| 합 계 (Total) | 201,283,456 | 8.5 |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 증 감 Change |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151,363,200 | 72.1 | 14,430,500 | 10.5 |
| 11,365,700 | 5.4 | 2,088,900 | 22.5 |
| 12,366,800 | 5.9 | 671,800 | 5.7 |
| 4,601,800 | 2.2 | 60,100 | 1.3 |
| 1,068,100 | 0.5 | 22,000 | 2.1 |
| 29,164,668 | 13.9 | △8,626,488 | △22.8 |
| 21,000,000 | 10.0 | △8,300,000 | △28.3 |
| 8,164,668 | 3.9 | △326,488 | △3.8 |
| 209,930,268 | 100.0 | 8,646,812 | 4.3 |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1.국세 (Tax Total) | 163,492,300 |
| 가.내국세 (Internal Taxes) | 136,932,700 |
| 나. 관세 (Customs Duties) | 9,276,800 |
|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Tax) | 11,695,000 |
|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 4,541,700 |
| 마.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RealEstateTax) | 1,046,100 |
| 2.세외수입 (Non-Tax Revenues) | 37,791,156 |
|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 374,355 |
|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 4,425,278 |
| 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 930,396 |
|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 184,247 |
|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 1,034,256 |
| 바.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 33,951 |
| 사.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 1,269,000 |
| 아.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 29,539,675 |
| 합 계 (Total) | 201,283,456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증 감 Change | |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180,765,600 | 17,273,300 | 10.6 |
| 151,363,200 | 14,430,500 | 10.5 |
| 11,365,700 | 2,088,900 | 22.5 |
| 12,366,800 | 671,800 | 5.7 |
| 4,601,800 | 60,100 | 1.3 |
| 1,068,100 | 22,000 | 2.1 |
| 29,164,668 | △8,626,488 | △22.8 |
| 459,652 | 85,297 | 22.8 |
| 4,630,963 | 205,685 | 4.6 |
| 948,009 | 17,613 | 1.9 |
| 237,405 | 53,158 | 28.9 |
| 1,072,311 | 38,055 | 3.7 |
| 10,584 | △23,367 | △68.8 |
| 785,744 | △483,256 | △38.1 |
| 21,020,000 | △8,519,675 | △28.8 |
| 209,930,268 | 8,646,812 | 4.3 |

나. 국세수입 내역(Tax Revenues)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 136,932,700 |
| (1) 소득세 (Income Tax) | 37,234,300 |
| (가) 신고분 (Not Withheld Income Tax) | 14,960,600 |
|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 22,273,700 |
| (2) 법인세 (Corporation Tax) | 36,867,100 |
| (3) 상속세 (Inheritance Tax) | 2,701,500 |
|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 1,320,100 |
| (나) 증여세 (Gift Tax) | 1,381,400 |
|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46,948,800 |
| (5)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 4,779,200 |
| (7)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 3,691,700 |
| (8) 인지세 (Stamp Tax) | 596,400 |
| (9)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 | 4,113,700 |
| 나. 관세 (Customs Duties) | 9,276,800 |
|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 11,695,000 |
|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 4,541,700 |
| 마.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RealEstateTa) | 1,046,100 |
| 합 계 (Total) | 163,492,300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증 감 Change | |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151,363,200 | 14,430,500 | 10.5 |
| 40,037,900 | 2,803,600 | 7.5 |
| 15,127,000 | 166,400 | 1.1 |
| 24,910,900 | 2,637,200 | 11.8 |
| 41,300,100 | 4,433,000 | 12.0 |
| 3,092,100 | 390,600 | 14.5 |
| 1,300,100 | △20,000 | △1.5 |
| 1,792,000 | 410,600 | 29.7 |
| 52,937,300 | 5,988,500 | 12.8 |
| 5,012,400 | 233,200 | 4.9 |
| 3,920,700 | 229,000 | 6.2 |
| 532,400 | △64,000 | △10.7 |
| 4,530,300 | 416,600 | 10.1 |
| 11,365,700 | 2,088,900 | 22.5 |
| 12,366,800 | 671,800 | 5.7 |
| 4,601,800 | 60,100 | 1.3 |
| 1,068,100 | 22,000 | 2.1 |
| 180,765,600 | 17,273,300 | 10.6 |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 소 Agency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
|--|--------------------------|-----------------------|------------------------------|-----------------|
| | 일반세입 GeneralRev. | 국채 Government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계 Total |
| (01)대통령실 (Office of the President) | 73,067 | 0 | 0 | 73,067 |
| (02)국회 (National Assembly) | 924,000 | 0 | 0 | 924,000 |
| (03)대법원 (Supreme Court) | 319,553,000 | 0 | 0 | 319,553,000 |
| (05)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 838,000 | 0 | 0 | 838,000 |
| (06)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0 | 0 | 0 | 0 |
| (07)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 303,192 | 0 | 0 | 303,192 |
| (08)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943,960 | 0 | 0 | 943,960 |
| (10)기획재정부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166,066,325,005 | 29,300,000,000 | 0 | 195,366,325,005 |
|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 136,932,700,000 | 0 | 0 | 136,932,700,000 |
| ② 관세 (Customs Duties) | 9,276,800,000 | 0 | 0 | 9,276,800,000 |
|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 11,695,000,000 | 0 | 0 | 11,695,000,000 |
|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 4,541,700,000 | 0 | 0 | 4,541,700,000 |
| ⑤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RealEstateTax) | 1,046,100,000 | 0 | 0 | 1,046,100,000 |
|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 2,574,025,005 | 29,300,000,000 | 0 | 31,874,025,005 |
| (11)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 343,947,703 | 0 | 0 | 343,947,703 |
| (12)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 120,127,000 | 0 | 0 | 120,127,000 |
| (13)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 564,600 | 0 | 0 | 564,600 |
| (14)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1,765,180,543 | 0 | 0 | 1,765,180,543 |
| (15)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59,939,000 | 0 | 0 | 59,939,000 |
| (16)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22,482,055 | 0 | 0 | 22,482,055 |
| (17)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 38,666,792 | 0 | 0 | 38,666,792 |
| (18)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19,083,000 | 0 | 0 | 19,083,000 |
| (19)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245,307,000 | 0 | 0 | 245,307,000 |
| (20)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 222,302,501 | 0 | 0 | 222,302,501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 | | 증 감 Change | | | |
|-----------------------|-----------------------|------------------------------|-----------------|---------------------|-----------------------|------------------------------|----------------|
| 일반세입 GeneralRev. | 국채 Government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계 Total | 일반세입 GeneralRev. | 국채 Government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계 Total |
| 84,079 | 84,079 | 0 | 84,079 | 11,012 | 0 | 0 | 11,012 |
| 1,040,000 | 1,040,000 | 0 | 1,040,000 | 116,000 | 0 | 0 | 116,000 |
| 371,280,000 | 371,280,000 | 0 | 371,280,000 | 51,727,000 | 0 | 0 | 51,727,000 |
| 789,000 | 789,000 | 0 | 789,000 | △49,000 | 0 | 0 | △49,000 |
| 1,779 | 1,779 | 0 | 1,779 | 1,779 | 0 | 0 | 1,779 |
| 366,057 | 366,057 | 0 | 366,057 | 62,865 | 0 | 0 | 62,865 |
| 1,008,030 | 1,008,030 | 0 | 1,008,030 | 64,070 | 0 | 0 | 64,070 |
| 183,001,210,709 | 183,001,210,709 | 0 | 204,001,210,709 | 16,934,885,704 | △8,300,000,000 | 0 | 8,634,885,704 |
| 151,363,200,000 | 151,363,200,000 | 0 | 151,363,200,000 | 14,430,500,000 | 0 | 0 | 14,430,500,000 |
| 11,365,700,000 | 11,365,700,000 | 0 | 11,365,700,000 | 2,088,900,000 | 0 | 0 | 2,088,900,000 |
| 12,366,800,000 | 12,366,800,000 | 0 | 12,366,800,000 | 671,800,000 | 0 | 0 | 671,800,000 |
| 4,601,800,000 | 4,601,800,000 | 0 | 4,601,800,000 | 60,100,000 | 0 | 0 | 60,100,000 |
| 1,068,100,000 | 1,068,100,000 | 0 | 1,068,100,000 | 22,000,000 | 0 | 0 | 22,000,000 |
| 2,235,610,709 | 2,235,610,709 | 0 | 23,235,610,709 | △338,414,296 | △8,300,000,000 | 0 | △8,638,414,296 |
| 374,888,000 | 374,888,000 | 0 | 374,888,000 | 30,940,297 | 0 | 0 | 30,940,297 |
| 133,487,000 | 133,487,000 | 0 | 133,487,000 | 13,360,000 | 0 | 0 | 13,360,000 |
| 565,300 | 565,300 | 0 | 565,300 | 700 | 0 | 0 | 700 |
| 1,805,210,543 | 1,805,210,543 | 0 | 1,805,210,543 | 40,030,000 | 0 | 0 | 40,030,000 |
| 92,237,000 | 92,237,000 | 0 | 92,237,000 | 32,298,000 | 0 | 0 | 32,298,000 |
| 27,621,094 | 27,621,094 | 0 | 27,621,094 | 5,139,039 | 0 | 0 | 5,139,039 |
| 39,195,739 | 39,195,739 | 0 | 39,195,739 | 528,947 | 0 | 0 | 528,947 |
| 20,283,000 | 20,283,000 | 0 | 20,283,000 | 1,200,000 | 0 | 0 | 1,200,000 |
| 90,254,000 | 90,254,000 | 0 | 90,254,000 | △155,053,000 | 0 | 0 | △155,053,000 |
| 388,367,000 | 388,367,000 | 0 | 388,367,000 | 166,064,499 | 0 | 0 | 166,064,499 |

| 소 Agency 관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
|--|--------------------------|-----------------------|------------------------------|-----------------|
| | 일반세입 GeneralRev. | 국채 Government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계 Total |
| (22)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15,577,000 | 0 | 0 | 15,577,000 |
| (23)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823,000 | 0 | 0 | 823,000 |
| (24)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45,329,000 | 0 | 0 | 45,329,000 |
| (27)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 2,176,140 | 0 | 0 | 2,176,140 |
| (28)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20,000 | 0 | 0 | 20,000 |
| (30)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350,363,000 | 0 | 0 | 350,363,000 |
| (32)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 373,380,856 | 0 | 0 | 373,380,856 |
| (33)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12,192,651 | 0 | 0 | 12,192,651 |
| (35)국세청 (National Tax Adm.) | 674,787,799 | 0 | 0 | 674,787,799 |
| (36)관세청 (Customs Service) | 20,225,000 | 0 | 0 | 20,225,000 |
| (38)통계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2,364,630 | 0 | 0 | 2,364,630 |
| (39)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 470,771 | 0 | 0 | 470,771 |
| (40)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69,795,000 | 0 | 0 | 69,795,000 |
| (41)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 936,448,698 | 0 | 0 | 936,448,698 |
| (42)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15,054,000 | 0 | 0 | 15,054,000 |
| (43)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 20,057,066 | 0 | 0 | 20,057,066 |
| (44)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 5,434,060 | 0 | 0 | 5,434,060 |
| (45)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188,447,280 | 0 | 0 | 188,447,280 |
| (46)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 | 11,558,000 | 0 | 0 | 11,558,000 |
| (48)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 | 8,270,000 | 0 | 0 | 8,270,000 |
| (49)기상청 (Meteorological Adm.) | 2,172,000 | 0 | 0 | 2,172,000 |
| (50)해양경찰청 (National Maritime Police Adm.) | 1,950,000 | 0 | 0 | 1,950,000 |
| 합계 (Total) | 171,983,456,369 | 29,300,000,000 | 0 | 201,283,456,369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 | | 증 감 Change | | | |
|-----------------------|-----------------------|------------------------------|-----------------|---------------------|-----------------------|------------------------------|---------------|
| 일반세입 GeneralRev. | 국채 Government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계 Total | 일반세입 GeneralRev. | 국채 GovernmentBonds |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 합계 Total |
| 13,044,000 | 0 | 0 | 13,044,000 | △2,533,000 | △2,533,000 | 0 | △2,533,000 |
| 2,740,000 | 0 | 0 | 2,740,000 | 1,917,000 | 1,917,000 | 0 | 1,917,000 |
| 84,481,000 | 0 | 0 | 84,481,000 | 39,152,000 | 39,152,000 | 0 | 39,152,000 |
| 2,407,000 | 0 | 0 | 2,407,000 | 230,860 | 230,860 | 0 | 230,860 |
| 20,000 | 0 | 0 | 20,000 | 0 | 0 | 0 | 0 |
| 311,565,000 | 0 | 0 | 311,565,000 | △38,798,000 | △38,798,000 | 0 | △38,798,000 |
| 408,221,157 | 0 | 0 | 408,221,157 | 34,840,301 | 34,840,301 | 0 | 34,840,301 |
| 10,710,000 | 0 | 0 | 10,710,000 | △1,482,651 | △1,482,651 | 0 | △1,482,651 |
| 550,368,000 | 0 | 0 | 550,368,000 | △124,419,799 | △124,419,799 | 0 | △124,419,799 |
| 21,841,000 | 0 | 0 | 21,841,000 | 1,616,000 | 1,616,000 | 0 | 1,616,000 |
| 2,977,227 | 0 | 0 | 2,977,227 | 612,597 | 612,597 | 0 | 612,597 |
| 333,747 | 0 | 0 | 333,747 | △137,024 | △137,024 | 0 | △137,024 |
| 63,651,000 | 0 | 0 | 63,651,000 | △6,144,000 | △6,144,000 | 0 | △6,144,000 |
| 928,737,000 | 0 | 0 | 928,737,000 | △7,711,698 | △7,711,698 | 0 | △7,711,698 |
| 11,083,000 | 0 | 0 | 11,083,000 | △3,971,000 | △3,971,000 | 0 | △3,971,000 |
| 26,939,270 | 0 | 0 | 26,939,270 | 6,882,204 | 6,882,204 | 0 | 6,882,204 |
| 6,024,000 | 0 | 0 | 6,024,000 | 589,940 | 589,940 | 0 | 589,940 |
| 110,589,000 | 0 | 0 | 110,589,000 | △77,858,280 | △77,858,280 | 0 | △77,858,280 |
| 13,689,315 | 0 | 0 | 13,689,315 | 2,131,315 | 2,131,315 | 0 | 2,131,315 |
| 8,311,000 | 0 | 0 | 8,311,000 | 41,000 | 41,000 | 0 | 41,000 |
| 2,153,100 | 0 | 0 | 2,153,100 | △18,900 | △18,900 | 0 | △18,900 |
| 2,495,000 | 0 | 0 | 2,495,000 | 545,000 | 545,000 | 0 | 545,000 |
| 188,930,268,146 | 21,000,000,000 | 0 | 209,930,268,146 | 16,946,811,777 | 16,946,811,777 | 0 | 8,646,811,777 |

라. 성질별 세외수입(Non-Tax Revenues by Objects)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 374,355 |
|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 98,164 |
|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 220,300 |
|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 1,658 |
|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Others) | 54,232 |
|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 4,425,278 |
| 56. 벌금, 몰수금및과태료 (Fine &- Confiscation) | 3,075,437 |
| 57. 변상금 및 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 57,753 |
|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 662,778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 629,309 |
|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 930,396 |
| 62. 병원수입 (Hospital Income) | 7,174 |
|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 3,952 |
| 65. 면허료및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 604,934 |
| 66. 입학금및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 261,943 |
| 68. 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 5,565 |
| 69. 잡수입 (Other) | 46,827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증 감 Change | |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459,652 | 85,297 | 22.8 |
| 100,569 | 2,405 | 2.4 |
| 276,290 | 55,990 | 25.4 |
| 1,349 | 309 | △18.6 |
| 81,443 | 27,211 | 50.2 |
| 4,630,963 | 205,685 | 4.6 |
| 3,195,380 | 119,943 | 3.9 |
| 67,821 | 10,068 | 17.4 |
| 527,612 | △135,166 | △20.4 |
| 840,150 | 210,841 | 33.5 |
| 948,009 | 17,613 | 1.9 |
| 7,439 | 265 | 3.7 |
| 351 | △3,601 | △91.1 |
| 607,022 | 2,088 | 0.3 |
| 265,882 | 3,939 | 1.5 |
| 3,809 | △1,756 | △31.6 |
| 63,507 | 16,680 | 35.6 |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 184,247 |
|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 346 |
|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 10,089 |
| 65. 면허료및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 149,628 |
| 69. 잡수입 (Other) | 24,185 |
|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 1,034,256 |
|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 8,748 |
|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 1,025,503 |
|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 5 |
|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 33,951 |
| 75. 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 s) | 23,663 |
| 77. 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 10,288 |
|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 1,269,000 |
| 84. 유가증권매각대 (Sales of- State-holding Stocks) | 1,269,000 |
|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 29,539,675 |
|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 75,375 |
| 92. 예탁금원금회수 (Collection of deposit) | 155,000 |
|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 29,300,000 |
| 95. 예탁이자수입 (Interest from deposit) | 9,300 |
| 합계 (Total) | 37,791,156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증 감 Change | |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237,405 | 53,158 | 28.9 |
| 583 | 237 | 68.5 |
| 11,623 | 1,534 | 15.2 |
| 167,804 | 18,176 | 12.1 |
| 57,395 | 33,210 | 137.3 |
| 1,072,311 | 38,055 | 3.7 |
| 10,349 | 1,601 | 18.3 |
| 1,061,955 | 36,452 | 3.6 |
| 7 | 2 | 40.0 |
| 10,584 | △23,367 | △68.8 |
| 6,299 | △17,364 | △73.4 |
| 4,285 | △6,003 | △58.3 |
| 785,744 | △483,256 | △38.1 |
| 785,744 | △483,256 | △38.1 |
| 21,020,000 | △8,519,675 | △28.8 |
| 20,000 | △55,375 | △73.5 |
| 0 | △155,000 | △100.0 |
| 21,000,000 | △8,300,000 | △28.3 |
| 0 | △9,300 | △100.0 |
| 29,164,668 | △8,626,488 | △22.8 |

| 2-1-2|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1.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 44,345,662 | 22.0 |
| 2.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11,995,450 | 6.0 |
| 3.외교 · 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 2,045,772 | 1.0 |
| 4.국방 (National Defense) | 29,737,419 | 14.8 |
| 5.교육 (Education) | 37,862,963 | 18.8 |
| 6.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 1,727,865 | 0.9 |
| 7.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 2,730,502 | 1.4 |
| 8.사회복지 (Social Welfare) | 22,492,281 | 11.2 |
| 9.보건 (Health) | 5,521,958 | 2.7 |
| 10.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6,506,389 | 3.2 |
| 11.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4,274,332 | 2.1 |
| 12.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 15,008,371 | 7.5 |
| 13.통신 (Communication) | 561,905 | 0.3 |
| 14.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 10,705,145 | 5.3 |
| 15.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3,667,442 | 1.8 |
| 16.예비비 (Reserve Funds) | 2,100,000 | 1.0 |
| 합 계Total | 201,283,456 | 100.0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 증 감 Change |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46,670,186 | 22.2 | 2,324,524 | 5.2 |
| 12,864,004 | 6.1 | 868,554 | 7.2 |
| 2,324,336 | 1.1 | 278,564 | 13.6 |
| 31,579,978 | 15.0 | 1,842,559 | 6.2 |
| 40,844,487 | 19.5 | 2,981,524 | 7.9 |
| 1,806,026 | 0.9 | 78,161 | 4.5 |
| 2,949,597 | 1.4 | 219,095 | 8.0 |
| 23,691,806 | 11.3 | 1,199,525 | 5.3 |
| 5,660,625 | 2.7 | 138,667 | 2.5 |
| 5,123,748 | 2.4 | △1,382,641 | △21.3 |
| 4,441,641 | 2.1 | 167,309 | 3.9 |
| 14,616,800 | 7.0 | △391,571 | △2.6 |
| 386,192 | 0.2 | △175,713 | △31.3 |
| 10,515,605 | 5.0 | △189,540 | △1.8 |
| 4,055,235 | 1.9 | 387,793 | 10.6 |
| 2,400,000 | 1.1 | 300,000 | 14.3 |
| 209,930,268 | 100.0 | 8,646,812 | 4.3 |

나. 소관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01. 대통령실 (Office of the President) | 162,131 |
| 02. 국회 (National Assembly) | 447,857 |
| 03. 대법원 (Supreme Court) | 1,123,123 |
| 04.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 25,932 |
| 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 275,666 |
| 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21,203 |
| 07.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 90,648 |
| 08.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483,672 |
| 09.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453,520 |
| 10. 기획재정부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14,485,260 |
| ○ 예비비 (Contingency) | 2,100,000 |
| ○ 일반경비 (General Adm.) | 12,385,260 |
| 11.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 40,872,523 |
| ○ 교육재정교부금 (Revenue Sharing to Local Educational Agency) | 32,297,958 |
| ○ 일반경비 (General Adm.) | 8,574,565 |
| 12.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 1,520,357 |
| 13.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 504,212 |
| 14.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2,256,528 |
| 15.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20,459,699 |
| 16.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31,207,323 |
| ○ 지방재정교부금 (Revenue Sharing) | 27,391,951 |
| ○ 일반경비 (General Adm.) | 3,815,372 |
| 17.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 1,249,425 |
| 18.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4,815,141 |
| 19.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3,450,514 |
| 20.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 19,533,545 |
| 21.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2,605,111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증 감 Change | |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161,881 | △250 | △0.2 |
| 517,491 | 69,634 | 15.5 |
| 1,184,179 | 61,056 | 5.4 |
| 31,450 | 5,518 | 21.3 |
| 253,265 | △22,401 | △8.1 |
| 24,317 | 3,114 | 14.7 |
| 101,007 | 10,359 | 11.4 |
| 496,399 | 12,727 | 2.6 |
| 477,143 | 23,623 | 5.2 |
| 15,860,277 | 1,375,017 | 9.5 |
| 2,400,000 | 300,000 | 14.3 |
| 13,460,277 | 1,075,017 | 8.7 |
| 44,171,494 | 3,298,971 | 8.1 |
| 35,283,120 | 2,985,162 | 9.2 |
| 8,888,374 | 313,809 | 3.7 |
| 1,744,398 | 224,041 | 14.7 |
| 555,621 | 51,409 | 10.2 |
| 2,430,429 | 173,901 | 7.7 |
| 21,709,576 | 1,249,877 | 6.1 |
| 33,780,488 | 2,573,165 | 8.2 |
| 30,190,380 | 2,798,429 | 10.2 |
| 3,590,108 | △225,264 | △5.9 |
| 1,360,098 | 110,673 | 8.9 |
| 3,313,701 | △1,501,440 | △31.2 |
| 3,441,707 | △8,807 | △0.3 |
| 20,736,845 | 1,203,300 | 6.2 |
| 2,816,603 | 211,492 | 8.1 |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22.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1,142,211 |
| 23.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167,955 |
| 24.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21,961,356 |
| 25. 특임장관실 (Office of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 6,343 |
| 26. 법제처 (Ministry of Legislation) | 22,027 |
| 27.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 3,432,534 |
| 28.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22,285 |
| 30.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Commission) | 325,637 |
| 32.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 73,830 |
| 33.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3,146,391 |
| 34.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60,748 |
| 35. 국세청 (National Tax Adm.) | 1,414,491 |
| 36. 관세청 (Customs Service) | 402,767 |
| 38. 통계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409,434 |
| 39.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 174,703 |
| 40.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9,103,017 |
| 41.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 7,176,846 |
| 42.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478,701 |
| 43.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 478,440 |
| 44.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 539,329 |
| 45.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1,151,919 |
| 46.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 | 1,475,374 |
| 48.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 | 239,102 |
| 49.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 242,593 |
| 50. 해양경찰청 (National Maritime Police Adm.) | 901,236 |
|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Multi 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 690,798 |
| 합계(Total) | 201,283,456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증 감 Change | |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1,295,780 | 153,569 | 13.4 |
| 169,671 | 1,716 | 1.0 |
| 21,526,705 | △434,651 | △2.0 |
| 9,409 | 3,066 | 48.3 |
| 24,431 | 2,404 | 10.9 |
| 3,687,781 | 255,247 | 7.4 |
| 22,079 | △206 | △0.9 |
| 305,017 | △20,620 | △6.3 |
| 78,843 | 5,013 | 6.8 |
| 1,555,631 | △1,590,760 | △50.6 |
| 61,326 | 578 | 1.0 |
| 1,421,192 | 6,701 | 0.5 |
| 417,291 | 14,524 | 3.6 |
| 280,185 | △129,249 | △31.6 |
| 176,856 | 2,153 | 1.2 |
| 9,693,546 | 590,529 | 6.5 |
| 7,623,111 | 446,265 | 6.2 |
| 515,673 | 36,972 | 7.7 |
| 445,928 | △32,512 | △6.8 |
| 598,807 | 59,478 | 11.0 |
| 1,211,240 | 59,321 | 5.1 |
| 1,531,092 | 55,718 | 3.8 |
| 225,070 | △14,032 | △5.9 |
| 278,245 | 35,652 | 14.7 |
| 995,772 | 94,536 | 10.5 |
| 611,216 | △79,582 | △11.5 |
| 209,930,268 | 8,646,812 | 4.3 |

다. 기능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 44,345,662 | 22.0 |
| 1) 입법및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 723,523 | 0.4 |
|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 453,520 | 0.2 |
| 3) 지방행정·재정지원(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 27,808,121 | 13.8 |
| 4) 재정·금융(Budget & Finance) | 12,824,282 | 6.4 |
|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 713,676 | 0.4 |
|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 1,822,541 | 0.9 |
|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11,995,450 | 6.0 |
| 1) 법원및헌재 (Court & of Constitutional Court) | 1,149,054 | 0.6 |
| 2) 법무및검찰 (Justice & Prosecution) | 2,256,528 | 1.1 |
| 3) 경찰 (Police) | 7,215,128 | 3.6 |
| 4) 해경 (Maritime Police) | 890,990 | 0.4 |
|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 483,750 | 0.2 |
| 3.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 2,045,772 | 1.0 |
|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 525,415 | 0.3 |
| 2) 외교·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 1,520,357 | 0.8 |
| 4. 국방 (National Defence) | 29,737,419 | 14.8 |
|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 12,120,392 | 6.0 |
|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 8,339,307 | 4.1 |
|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ce improvement) | 9,103,017 | 4.5 |
|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 174,703 | 0.1 |
| 5. 교육 (Education) | 37,862,963 | 18.8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 32,858,784 | 16.3 |
|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 4,635,494 | 2.3 |
|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 241,488 | 0.1 |
|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 127,197 | 0.1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 증 감 Change |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46,670,186 | 22.2 | 2,324,524 | 5.2 |
| 770,756 | 0.4 | 47,233 | 6.5 |
| 477,143 | 0.2 | 23,623 | 5.2 |
| 30,710,977 | 14.6 | 2,902,856 | 10.4 |
| 12,294,030 | 5.9 | △530,252 | △4.1 |
| 665,691 | 0.3 | △47,985 | △6.7 |
| 1,751,590 | 0.8 | △70,951 | △3.9 |
| 12,864,004 | 6.1 | 868,554 | 7.2 |
| 1,215,629 | 0.6 | 66,575 | 5.8 |
| 2,430,429 | 1.2 | 173,901 | 7.7 |
| 7,668,101 | 3.7 | 452,974 | 6.3 |
| 982,197 | 0.5 | 91,207 | 10.2 |
| 567,647 | 0.3 | 83,897 | 17.3 |
| 2,324,336 | 1.1 | 278,564 | 13.6 |
| 579,938 | 0.3 | 54,523 | 10.4 |
| 1,744,398 | 0.8 | 224,041 | 14.7 |
| 31,579,978 | 15.0 | 1,842,559 | 6.2 |
| 12,818,580 | 6.1 | 698,189 | 5.8 |
| 8,890,995 | 4.2 | 551,688 | 6.6 |
| 9,693,546 | 4.6 | 590,529 | 6.5 |
| 176,856 | 0.1 | 2,154 | 1.2 |
| 40,844,487 | 19.5 | 2,981,525 | 7.9 |
| 35,785,615 | 17.0 | 2,926,831 | 8.9 |
| 4,579,735 | 2.2 | △55,760 | △1.2 |
| 353,711 | 0.2 | 112,224 | 46.5 |
| 125,426 | 0.1 | △1,771 | △1.4 |

| 구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 | 금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6.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 1,727,865 | 0.9 |
|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 986,270 | 0.5 |
| 2) 관광 (Tourism) | 11,137 | 0.0 |
| 3) 체육 (Sports) | 59,680 | 0.0 |
|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 478,440 | 0.2 |
| 5) 문화및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 192,338 | 0.1 |
| 7.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 2,730,502 | 1.4 |
|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 125,391 | 0.1 |
|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 2,605,111 | 1.3 |
| 8.사회복지 (Social Welfare) | 22,492,281 | 11.2 |
|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 7,286,456 | 3.6 |
|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 1,291,814 | 0.6 |
|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 1,715,545 | 0.9 |
| 4) 보육·가족및여성 (Childcare, Family & Women) | 2,307,133 | 1.1 |
| 5) 노인·청소년(The Aged & Youth) | 3,520,650 | 1.7 |
| 6) 노동 (Labor) | 1,142,211 | 0.6 |
| 7)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 3,432,534 | 1.7 |
| 8) 주택 (Housing) | 1,348,321 | 0.7 |
| 9)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 447,618 | 0.2 |
| 9.보건 (Health) | 5,521,958 | 2.7 |
| 1) 보건의료 (Healthcare) | 963,304 | 0.5 |
|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4,319,551 | 2.1 |
|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 239,102 | 0.1 |
| 10.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6,506,389 | 3.2 |
|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 4,889,300 | 2.4 |
|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 1,151,919 | 0.6 |
|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 465,170 | 0.2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 증 감 Change |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1,806,026 | 0.9 | 78,161 | 4.5 |
| 1,098,020 | 0.5 | 111,750 | 11.3 |
| 11,831 | 0.0 | 694 | 6.2 |
| 59,993 | 0.0 | 313 | 0.5 |
| 445,928 | 0.2 | △32,513 | △6.8 |
| 190,254 | 0.1 | △2,083 | △1.1 |
| 2,949,597 | 1.4 | 219,095 | 8.0 |
| 132,994 | 0.1 | 7,603 | 6.1 |
| 2,816,603 | 1.3 | 211,492 | 8.1 |
| 23,691,806 | 11.3 | 1,199,525 | 5.3 |
| 7,516,784 | 3.6 | 230,328 | 3.2 |
| 1,146,586 | 0.5 | △145,228 | △11.2 |
| 1,677,345 | 0.8 | △38,200 | △2.2 |
| 2,658,957 | 1.3 | 351,824 | 15.2 |
| 3,734,996 | 1.8 | 214,346 | 6.1 |
| 1,295,780 | 0.6 | 153,569 | 13.4 |
| 3,687,781 | 1.8 | 255,248 | 7.4 |
| 1,446,648 | 0.7 | 98,327 | 7.3 |
| 526,930 | 0.3 | 79,312 | 17.7 |
| 5,660,625 | 2.7 | 138,667 | 2.5 |
| 788,413 | 0.4 | △174,891 | △18.2 |
| 4,647,142 | 2.2 | 327,591 | 7.6 |
| 225,070 | 0.1 | △14,032 | △5.9 |
| 5,123,748 | 2.4 | △1,382,640 | △21.3 |
| 3,473,380 | 1.7 | △1,415,920 | △29.0 |
| 1,211,240 | 0.6 | 59,321 | 5.1 |
| 439,128 | 0.2 | △26,042 | △5.6 |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4,274,332 | 2.1 |
| 1) 산업금융지원 (Support for Industry Finance) | 349,201 | 0.2 |
| 2) 산업기술지원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 474,857 | 0.2 |
| 3) 무역및투자유치 (Trade & Investment Inducement) | 445,071 | 0.2 |
| 4) 산업진흥·고도화(Promotion & Development of Industry) | 2,144,846 | 1.1 |
| 5) 에너지및자원개발 (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 435,084 | 0.2 |
| 6) 산업·중소기업일반 (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425,274 | 0.2 |
|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 15,008,371 | 7.5 |
| 1) 도로 (National Road) | 6,630,870 | 3.3 |
| 2) 철도 (Railroad) | 4,134,511 | 2.1 |
| 3) 도시철도 (City Railroad) | 1,226,701 | 0.6 |
| 4)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 1,466,232 | 0.7 |
| 5) 항공·공항(Aviation & Airport) | 12,932 | 0.0 |
| 6) 물류등기타 (Logistics & Others) | 1,537,125 | 0.8 |
| 13. 통신 (Communication) | 561,905 | 0.3 |
|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 561,905 | 0.3 |
|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 10,705,145 | 5.3 |
| 1) 수자원 (Water Resources) | 5,107,550 | 2.5 |
| 2) 지역및도시 (Region & City) | 5,592,595 | 2.8 |
|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 5,000 | 0.0 |
|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3,667,442 | 1.8 |
| 1) 기술개발 (Technology Development) | 1,518,293 | 0.8 |
| 2)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 1,860,309 | 0.9 |
| 3)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 288,840 | 0.1 |
| 16. 예비비 (Reserve Funds) | 2,100,000 | 1.0 |
| 1) 예비비 (Reserve Funds) | 2,100,000 | 1.0 |
| 합계 (Total) | 201,283,456 | 100.0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 증 감 Change | |
|-----------------------|--------------------|------------|-------------|
| 금 액 Amount | 구성비(%) Composition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4,441,641 | 2.1 | 167,308 | 3.9 |
| 300,012 | 0.1 | △49,189 | △14.1 |
| 539,100 | 0.3 | 64,243 | 13.5 |
| 434,686 | 0.2 | △10,385 | △2.3 |
| 2,375,649 | 1.1 | 230,803 | 10.8 |
| 371,004 | 0.2 | △64,080 | △14.7 |
| 421,190 | 0.2 | △4,084 | △1.0 |
| 14,616,800 | 7.0 | △391,570 | △2.6 |
| 6,244,728 | 3.0 | △386,141 | △5.8 |
| 4,327,465 | 2.1 | 192,954 | 4.7 |
| 1,071,831 | 0.5 | △154,870 | △12.6 |
| 1,322,902 | 0.6 | △143,330 | △9.8 |
| 12,685 | 0.0 | △247 | △1.9 |
| 1,637,188 | 0.8 | 100,063 | 6.5 |
| 386,192 | 0.2 | △175,713 | △31.3 |
| 386,192 | 0.2 | △175,713 | △31.3 |
| 10,515,605 | 5.0 | △189,540 | △1.8 |
| 5,018,160 | 2.4 | △89,390 | △1.8 |
| 5,497,245 | 2.6 | △95,350 | △1.7 |
| 200 | 0.0 | 4,800 | △96.0 |
| 4,055,235 | 1.9 | 387,793 | 10.6 |
| 1,721,692 | 0.8 | 203,399 | 13.4 |
| 1,992,929 | 0.9 | 132,620 | 7.1 |
| 340,614 | 0.2 | 51,774 | 17.9 |
| 2,400,000 | 1.1 | 300,000 | 14.3 |
| 2,400,000 | 1.1 | 300,000 | 14.3 |
| 209,930,268 | 100.0 | 8,646,812 | 4.3 |

라. 성질별 세출내역(Expenditure by Functions)

| 구 분 Classification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 21,884,137 |
|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 21,884,137 |
|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 15,569,363 |
|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 11,246,973 |
| 220 여비 (Travel Expenses) | 546,504 |
|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 860,797 |
|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 189,632 |
|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 1,609,942 |
| 260 연구개발비 (R & D Expenses) | 1,115,514 |
|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 103,007,690 |
| 310 보전금 (Compensation) | 8,561,667 |
|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 4,915,512 |
|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 76,267,123 |
|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 1,086,287 |
| 350 출연금 (Funding) | 12,177,101 |
|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 17,209,806 |
| 410 토지매입비 (Land Assets) | 1,243,789 |
|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 7,703,433 |
|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 7,934,243 |
|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 20,859 |
| 460 출자금 (Investment) | 307,482 |
|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 6,762,853 |
|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 6,762,853 |
| 600 전출금등 (Transfers) | 34,745,343 |
|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 34,745,343 |
|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 2,104,265 |
| 71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 2,104,265 |
| 합계 (Total) | 201,283,456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증 감 Change | |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23,175,836 | 1,291,699 | 5.9 |
| 23,175,836 | 1,291,699 | 5.9 |
| 16,045,848 | 476,485 | 3.1 |
| 11,671,716 | 424,743 | 3.8 |
| 553,696 | 7,192 | 1.3 |
| 849,848 | △10,949 | △1.3 |
| 186,513 | △3,119 | △1.6 |
| 1,663,328 | 53,385 | 3.3 |
| 1,120,748 | 5,234 | 0.5 |
| 110,995,604 | 7,987,914 | 7.8 |
| 9,296,763 | 735,096 | 8.6 |
| 4,878,805 | △36,707 | △0.7 |
| 82,908,814 | 6,641,691 | 8.7 |
| 1,115,128 | 28,841 | 2.7 |
| 12,796,094 | 618,993 | 5.1 |
| 17,766,470 | 556,665 | 3.2 |
| 710,378 | △533,411 | △42.9 |
| 8,485,857 | 782,424 | 10.2 |
| 8,403,319 | 469,077 | 5.9 |
| 14,816 | △6,043 | △29.0 |
| 152,100 | △155,382 | △50.5 |
| 7,466,551 | 703,698 | 10.4 |
| 7,466,551 | 703,698 | 10.4 |
| 32,075,951 | △2,669,392 | △7.7 |
| 32,075,951 | △2,669,392 | △7.7 |
| 2,404,008 | 299,743 | 14.2 |
| 2,404,008 | 299,743 | 14.2 |
| 209,930,268 | 8,646,812 | 4.3 |

마. 2011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 구 분 Classification |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 | | |
|---|----------------------------|-------------------------|---|---------------------------------|
| | 계 (Total) | 보수 (110-01) Wages | 기타직보수 (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 일용임금 (110-03) Daily Wages |
|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 2,180,102 | 2,180,102 | 61,004 | 37,239 |
|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8,097,731 | 8,097,731 | 159,244 | 12,303 |
| 3.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 370,462 | 370,462 | 92,205 | 6,665 |
| 4. 국방 (National Defence) | 8,639,573 | 8,639,573 | 48,594 | 17,567 |
| 5. 교육 (Education) | 1,823,852 | 1,823,852 | 105,392 | 5,881 |
|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 256,764 | 256,764 | 57,504 | 20,940 |
|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 0 | 0 | 0 | 0 |
|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 556,432 | 556,432 | 124,848 | 24,086 |
| 9. 보건 (Health) | 81,460 | 81,460 | 653 | 7,034 |
|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532,510 | 532,510 | 47,669 | 35,470 |
|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124,572 | 124,572 | 8,480 | 46 |
|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343,342 | 343,342 | 27,644 | 2,569 |
| 13. 통신 (Communication) | 92,043 | 92,043 | 5,188 | 918 |
|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 8,410 | 8,410 | 205 | 2,901 |
|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68,585 | 68,585 | 3,566 | 1,072 |
| 16. 예비비 (Reserve Funds) | 0 | 0 | 0 | 0 |
| 합계 (Total) | 23,175,836 | 23,175,836 | 742,199 | 174,691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물건비 (200) Goods Service | 이전지출 (300) Current Transfer | 자산취득 (400) Capital Exp. | 상환지출 (500) Lending& Investment | 전출금등 (600) Financing | 예비비및 기타 (700) Others | 합 계 Total |
|----------------------------------|--------------------------------------|----------------------------------|---|----------------------------|-------------------------------|--------------|
| 2,191,983 | 31,759,242 | 590,073 | 7,312,794 | 2,632,796 | 3,197 | 46,670,186 |
| 2,801,078 | 743,914 | 1,123,140 | 183 | 97,697 | 261 | 12,864,004 |
| 438,850 | 1,063,650 | 61,511 | 39,864 | 350,000 | 0 | 2,324,336 |
| 7,885,931 | 2,336,268 | 10,556,483 | 0 | 2,161,723 | 0 | 31,579,978 |
| 409,502 | 37,421,882 | 519,403 | 16,794 | 652,885 | 169 | 40,844,487 |
| 315,464 | 860,534 | 238,188 | 0 | 135,054 | 23 | 1,806,026 |
| 31,890 | 70,053 | 31,051 | 0 | 2,816,603 | 0 | 2,949,597 |
| 411,922 | 19,718,440 | 59,475 | 221 | 2,944,959 | 358 | 23,691,806 |
| 166,597 | 5,144,206 | 47,845 | 983 | 219,535 | 0 | 5,660,625 |
| 492,923 | 1,571,212 | 433,564 | 208 | 2,093,332 | 0 | 5,123,748 |
| 93,598 | 3,501,691 | 107,809 | 0 | 613,971 | 1 | 4,441,641 |
| 440,935 | 1,523,760 | 205,367 | 95,504 | 12,007,893 | 0 | 14,616,800 |
| 86,313 | 181,135 | 21,245 | 0 | 5,456 | 0 | 386,192 |
| 173,333 | 1,355,867 | 3,677,419 | 0 | 5,300,577 | 0 | 10,515,605 |
| 105,530 | 3,743,751 | 93,898 | 0 | 43,471 | 0 | 4,055,235 |
| 0 | 0 | 0 | 0 | 0 | 2,400,000 | 2,400,000 |
| 16,045,848 | 110,995,604 | 17,766,470 | 7,466,551 | 32,075,951 | 2,404,008 | 209,930,268 |

바. 2011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 구분 Classification |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 Safety | 통일·외교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 국방 National Defense | 교육 Education | 문화및관광 Culture&Tourism |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
|---|---|----------------------------------|---|------------------------|-----------------|--------------------------|----------------------------------|
|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 2,180,102 | 8,097,731 | 8,097,731 | 8,639,573 | 1,823,852 | 256,764 | 0 |
| 110 보수 (Wages) | 2,081,858 | 7,926,184 | 7,926,184 | 8,573,412 | 1,712,579 | 178,320 | 0 |
| 110 기타직보수 (Wages non-public Officials) | 61,004 | 159,244 | 159,244 | 48,594 | 105,392 | 57,504 | 0 |
|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 37,239 | 12,303 | 12,303 | 17,567 | 5,881 | 20,940 | 0 |
|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 2,191,983 | 2,801,078 | 2,801,078 | 7,885,931 | 409,502 | 315,464 | 31,890 |
|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 1,123,314 | 1,622,407 | 1,622,407 | 6,527,512 | 347,800 | 254,886 | 12,403 |
| 220 여비 (Travel Expenses) | 163,879 | 93,504 | 93,504 | 158,036 | 6,940 | 11,661 | 338 |
|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 540,014 | 157,400 | 157,400 | 143,586 | 0 | 0 | 0 |
|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 39,591 | 32,613 | 32,613 | 63,935 | 2,200 | 3,776 | 15 |
|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 206,159 | 853,018 | 853,018 | 453,361 | 39,706 | 10,555 | 364 |
| 260 연구개발비 (R & D Expenses) | 119,027 | 42,137 | 42,137 | 539,502 | 12,856 | 34,586 | 18,770 |
|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 31,759,242 | 743,914 | 743,914 | 2,336,268 | 37,421,882 | 860,534 | 70,053 |
| 310 보전금 (Compensation) | 126,287 | 30,257 | 30,257 | 419,019 | 45,853 | 13,434 | 20 |
|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 124,437 | 145,045 | 145,045 | 51,922 | 227,239 | 522,459 | 59,905 |
|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 30,683,646 | 474,760 | 474,760 | 0 | 35,434,304 | 316,573 | 9,000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사회복지 Social Welfare | 보건 Health | 농림수산 Agriculture, For 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 통신 Communi cation |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예비비 Reserve Funds | 합계 Total |
|---------------------------|--------------|--|--|-------------------------------------|-------------------------|---|---------------------------------|-------------------------|-------------|
| 556,432 | 81,460 | 532,510 | 124,572 | 343,342 | 92,043 | 8,410 | 68,585 | 0 | 23,175,836 |
| 407,497 | 73,772 | 449,371 | 116,046 | 313,129 | 85,937 | 5,303 | 63,947 | 0 | 22,258,946 |
| 124,848 | 653 | 47,669 | 8,480 | 27,644 | 5,188 | 205 | 3,566 | 0 | 742,199 |
| 24,086 | 7,034 | 35,470 | 46 | 2,569 | 918 | 2,901 | 1,072 | 0 | 174,691 |
| 411,922 | 166,597 | 492,923 | 93,598 | 440,935 | 86,313 | 173,333 | 105,530 | 0 | 16,045,848 |
| 309,727 | 100,033 | 429,316 | 53,064 | 326,502 | 59,854 | 92,572 | 82,353 | 0 | 11,671,716 |
| 24,253 | 6,344 | 22,740 | 8,441 | 7,834 | 4,114 | 1,308 | 1,969 | 0 | 553,696 |
| 0 | 0 | 0 | 0 | 0 | 3,440 | 0 | 2,847 | 0 | 849,848 |
| 6,119 | 556 | 2,213 | 2,538 | 1,996 | 1,319 | 365 | 365 | 0 | 186,513 |
| 26,706 | 4,371 | 21,914 | 7,655 | 16,046 | 4,663 | 361 | 3,356 | 0 | 1,663,328 |
| 45,116 | 55,293 | 16,739 | 21,900 | 88,556 | 12,922 | 78,725 | 14,640 | 0 | 1,120,748 |
| 19,718,440 | 5,144,206 | 1,571,212 | 3,501,691 | 1,523,760 | 181,135 | 1,355,867 | 3,743,751 | 0 | 110,995,604 |
| 3,806,951 | 4,791,158 | 5,530 | 1,149 | 169 | 182 | 0 | 36 | 0 | 9,296,763 |
| 911,250 | 131,738 | 884,219 | 582,684 | 394,869 | 31,326 | 688,486 | 63,088 | 0 | 4,878,805 |
| 14,647,364 | 90,241 | 506,431 | 46,283 | 46,566 | 2,400 | 638,300 | 2,909 | 0 | 82,908,814 |

| 구분 Classification |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 Safety | 통일·외교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 국방 National Defense | 교육 Education | 문화및관광 Culture&Tourism |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
|---|---|----------------------------------|---|------------------------|-----------------|--------------------------|----------------------------------|
|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 89,619 | 3,994 | 422,252 | 426,953 | 74,042 | 2,598 | 1,128 |
| 350 출연금 (Funding) | 735,254 | 89,858 | 514,503 | 1,438,374 | 1,640,444 | 5,470 | 0 |
|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 590,073 | 1,123,140 | 61,511 | 10,556,483 | 519,403 | 238,188 | 31,051 |
| 410 토지매입비 (Land Assets) | 60,883 | 80,622 | 0 | 96,701 | 6,785 | 28,200 | 0 |
|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 272,628 | 764,958 | 38,743 | 2,795,520 | 395,898 | 179,342 | 29,902 |
| 430유형자산 (Tangible Assets) | 153,443 | 270,396 | 22,754 | 7,663,390 | 116,720 | 30,184 | 1,149 |
|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 3,119 | 7,165 | 14 | 872 | 0 | 461 | 0 |
| 460 출자금 (Investment) | 100,000 | 0 | 0 | 0 | 0 | 0 | 0 |
|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 7,312,794 | 183 | 39,864 | 0 | 16,794 | 0 | 0 |
|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 7,312,794 | 183 | 39,864 | 0 | 16,794 | 0 | 0 |
| 600 전출금등 (Transfers) | 2,632,796 | 97,697 | 350,000 | 2,161,723 | 652,885 | 135,054 | 2,816,603 |
|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 2,632,796 | 97,697 | 350,000 | 2,161,723 | 652,885 | 135,054 | 2,816,603 |
|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 3,197 | 261 | 0 | 0 | 169 | 23 | 0 |
| 71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 3,197 | 261 | 0 | 0 | 169 | 23 | 0 |
| 합계 (Total) | 46,670,186 | 12,864,004 | 2,324,336 | 31,579,978 | 40,844,487 | 1,806,026 | 2,949,597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사회복지 Social Welfare | 보건 Health | 농림수산 Agriculture, For 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 통신 Communi cation |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 예비비 Reserve Funds | 합계 Total |
|---------------------------|--------------|--|--|-------------------------------------|-------------------------|---|---------------------------------|-------------------------|-------------|
| 32,678 | 4,851 | 38,929 | 3,058 | 2,943 | 4,065 | 6 | 8,013 | 0 | 1,115,128 |
| 320,197 | 126,219 | 136,103 | 2,868,517 | 1,079,213 | 143,162 | 29,075 | 3,669,705 | 0 | 12,796,094 |
| 59,475 | 47,845 | 433,564 | 107,809 | 205,367 | 21,245 | 3,677,419 | 93,898 | 0 | 17,766,470 |
| 2,220 | 0 | 117,916 | 32,876 | 23,820 | 0 | 244,522 | 15,834 | 0 | 710,378 |
| 25,759 | 26,538 | 244,082 | 52,722 | 158,400 | 13,583 | 3,421,218 | 66,562 | 0 | 8,485,857 |
| 27,718 | 20,687 | 51,205 | 6,645 | 17,547 | 7,562 | 2,679 | 11,242 | 0 | 8,403,319 |
| 1,278 | 620 | 362 | 565 | 0 | 100 | 0 | 260 | 0 | 14,816 |
| 2,500 | 0 | 20,000 | 15,000 | 5,600 | 0 | 9,000 | 0 | 0 | 152,100 |
| 221 | 983 | 208 | 0 | 95,504 | 0 | 0 | 0 | 0 | 7,466,551 |
| 221 | 983 | 208 | 0 | 95,504 | 0 | 0 | 0 | 0 | 7,466,551 |
| 2,944,959 | 219,535 | 2,093,332 | 613,971 | 12,007,893 | 5,456 | 5,300,577 | 43,471 | 0 | 32,075,951 |
| 2,944,959 | 219,535 | 2,093,332 | 613,971 | 12,007,893 | 5,456 | 5,300,577 | 43,471 | 0 | 32,075,951 |
| 358 | 0 | 0 | 1 | 0 | 0 | 0 | 0 | 2,400,000 | 2,404,008 |
| 358 | 0 | 0 | 1 | 0 | 0 | 0 | 0 | 2,400,000 | 2,404,008 |
| 23,691,806 | 5,660,625 | 5,123,748 | 4,441,641 | 14,616,800 | 386,192 | 10,515,605 | 4,055,235 | 2,400,000 | 209,930,268 |

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 회 계 별 Account | 2010년도예산 FY2010Budget |
|--|--------------------------|
| (1)농어촌구조개선 (Agri.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 9,179,428,612 |
| (2)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 14,699,895,104 |
| (3)등기 (Registration S/A) | 229,761,000 |
| (4)교도작업 (Prison Operation S/A) | 41,960,000 |
| (5)에너지및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Management S/A) | 4,507,469,000 |
| (6)환경개선 (Environment Reconstruction S/A) | 3,965,057,381 |
| (7)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 615,172,000 |
| (8)주한미군기지이전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stitution Relocation) | 696,739,000 |
| (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 695,103,057 |
| (10)국방·군사시설이전 (Defence Military Installations Relocation Special Account) | 259,943,610 |
| (11)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S/A) | 1,146,870,872 |
| (12)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 49,686,000 |
| (13)광역지역발전 (Regional Development S/A) | 9,901,022,688 |
| (14)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 1,336,803,579 |
| (15)책임운영기관 (Agency) | 847,594,077 |
| (16)조달 (Government Supply S/A) | 343,716,656 |
| (17)우편사업 (Postal Programs S/A) | 3,442,695,476 |
| (18)우체국예금 (Postal Savings S/A) | 1,980,433,000 |
|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 53,939,351,112 |
| 순계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 45,440,365,218 |

단위 : 백만원 (InMillionKRW)

| 2011년도예산 FY2011Budget | 증 감 Change | |
|--------------------------|--------------|-------------|
| | 금 액 Amount | 증감율(%) Rate |
| 8,726,715,000 | △452,713,612 | △4.9 |
| 14,489,864,000 | △210,031,104 | △1.4 |
| 240,070,424 | 10,309,424 | 4.5 |
| 42,986,000 | 1,026,000 | 2.4 |
| 4,084,722,000 | △422,747,000 | △9.4 |
| 4,271,463,911 | 306,406,530 | 7.7 |
| 652,832,000 | 37,660,000 | 6.1 |
| 386,900,000 | △309,839,000 | △44.5 |
| 785,936,000 | 90,832,943 | 13.1 |
| 822,660,000 | 562,716,390 | 216.5 |
| 1,366,387,161 | 219,516,289 | 19.1 |
| 71,876,000 | 22,190,000 | 44.7 |
| 9,852,576,000 | △48,446,688 | △0.5 |
| 1,389,006,566 | 52,202,987 | 3.9 |
| 716,353,832 | △131,240,245 | △15.5 |
| 382,200,431 | 38,483,775 | 11.2 |
| 3,672,054,000 | 229,358,524 | 6.7 |
| 2,207,991,000 | 227,558,000 | 11.5 |
| 54,162,594,325 | 223,243,213 | 0.4 |
| 45,945,587,149 | 505,221,931 | 1.1 |

4 국고채무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천원, \$)

| 회계 및 소관 | 사 항 | 금 액 | | |
|----------------------------|-------------------------|----------------------------------|----------------------------------|---------------------------------|
| | | 2011예산 | 2010예산 | 증(△)감 |
| 합 계 | | (\$544,716,740) 2,267,952,116 | (\$583,180,228) 2,441,129,993 | (△\$38,463,488) △173,177,877 |
| I. 일반회계 | | (\$544,716,740) 1,767,952,116 | (\$583,180,228) 1,941,129,993 | (△\$38,463,488) △173,177,877 |
| 1. 외교통상부 | ○ 재외공관국유화사업 | (\$49,561,103) 56,995,269 | (\$31,346,154) 36,048,078 | (\$18,214,949) 20,947,191 |
| 2. 국방부 | ○ 경상운영비 (급식, 장비유지 등) | (\$495,155,637) 1,689,401,440 | (\$551,834,074) 1,735,277,113 | (△\$56,678,437) △45,875,673 |
| 3. 방위사업청 | ○ 방위력개선비 | 9,355,407 | 10,136,802 | △781,395 |
| | 소 계 | 12,200,000 | 159,668,000 | △147,468,000 |
| 4. 해양경찰청 | ○ 대형함정 | 12,200,000 | 29,400,000 | △17,200,000 |
| | ○ 노후함정 | - | 130,268,000 | △130,268,000 |
| II. 특별회계 | | 500,000,000 | 500,000,000 | - |
| | 소 계 | 500,000,000 | 500,000,000 | - |
| 1.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해양부) | ○ 일반국도 건설 | 400,000,000 | 400,000,000 | - |
| |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100,000,000 | 100,000,000 | - |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 over Expenses)

(천원, \$)

| 회계 및 소관 | 사 항 | 금 액 | | |
|------------------------|----------------|------------------------------|------------------------------|------------------------------|
| | | 2011예산 | 2010예산 | 증(△)감 |
| 1. 일반회계 | | (\$23,635,538) 89,703,869 | (\$22,979,644) 74,308,849 | (\$655,894) 15,395,020 |
| | 소 계 | (\$5,607,463) 48,448,583 | (\$8,607,463) 28,398,583 | (△\$3,000,000) 20,050,000 |
| 1. 국방부 ¹⁾ | ○ 군수지원및협력 | (\$5,607,463) 6,448,583 | (\$8,607,463) 9,898,583 | (△\$3,000,000) △3,450,000 |
| | ○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 42,000,000 | 18,500,000 | 23,500,000 |
| | 소 계 | (\$18,028,075) 41,255,286 | (\$14,372,181) 45,910,266 | (\$3,655,894) △4,654,980 |
| 2. 방위사업청 ²⁾ | ○ 기동전력 | 11,466,000 | 3,600,000 | 7,866,000 |
| | ○ 함 정 | 20,000,000 | 20,682,260 | △18,682,260 |
| | ○ 항공기 | (\$8,425,675) 9,689,526 | (\$5,669,018) 6,519,371 | (\$2,756,657) 3,170,155 |
| | ○ 화력탄약 | (-) - | (\$1,576,333) 1,812,782 | (\$1,576,333) △1,812,782 |
| | ○ 감시정찰 | (-) - | (\$3,874,797) 4,456,016 | (\$3,874,797) 4,456,016 |
| | ○ 정밀타격 / 신탄수무기 | (\$9,602,400) 11,042,760 | (\$3,252,033) 3,739,837 | (\$6,350,367) 7,302,923 |
| | ○ 국방연구개발 | 7,057,000 | 5,100,000 | 1,957,000 |

< 사유 및 내역 > 1,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및 수리부속품 도입지연, 설계 지연에 의한 현물 군사건설사업 지연 등
2,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지연 및 신장비 개발지연 등

6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 회계 및 소관 | 사 업 별 | 계속비총액 | 계 속 비 연 부 액 | | |
|-------------------------|------------------|---------------|----------------|-------------|---------------|
| | | | 2005 | 2006 | 2007 |
| | 2010 예 산 | 222,524,000 | 26,988,789,785 | 520,000,000 | 1,069,250,000 |
| | 2011 예 산 | 222,524,000 | 27,791,595,991 | 520,000,000 | 1,069,250,000 |
| 일반회계 (국토해양부) | 1. 울산신항복방파제(1공구) | | | | |
| | - 2010 예 산 | 144,397,000 | - | - | - |
| | - 2011 예 산 | 140,188,000 | - | - | - |
| |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 |
| | - 2010 예 산 | 93,113,785 | - | - | - |
| | - 2011 예 산 | 101,485,785 | - | - | - |
|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해양부) | 3. 지역간선국도1차건설 | | | | |
| | - 2010 예 산 | 2,120,318,000 | 222,524,000 | 300,000,000 | 365,000,000 |
| | - 2011 예 산 | 2,184,011,000 | 222,524,000 | 300,000,000 | 365,000,000 |
| | 4. 지역간선국도2차건설 | | | | |
| | - 2010 예 산 | 2,479,450,000 | - | 220,000,000 | 370,750,000 |
| | - 2011 예 산 | 2,461,582,333 | - | 220,000,000 | 370,750,000 |
| | 5. 지역간선국도3차건설 | | | | |
| | - 2010 예 산 | 2,923,290,000 | - | - | 333,500,000 |
| | - 2011 예 산 | 2,965,370,333 | - | - | 333,500,000 |
| | 6. 지역간선국도4차건설 | | | | |
| | - 2010 예 산 | 2,398,500,000 | - | - | - |
| | - 2011 예 산 | 2,389,928,513 | - | - | - |
| | 7. 지역간선국도5차건설 | | | | |
| | - 2010 예 산 | 4,100,395,000 | - | - | - |
| - 2011 예 산 | 4,086,280,287 | - | - | - | |

(단위 : 천원 In Thousand KRW)

| 계 속 비 연 부 액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1,434,600,000 | 5,729,290,000 | 5,281,047,000 | 5,533,399,000 | 3,816,613,785 | 2,591,412,000 | 790,654,000 | - |
| 1,434,600,000 | 5,729,290,000 | 5,281,047,000 | 4,691,469,000 | 3,935,907,118 | 2,343,025,846 | 1,678,445,433 | 886,037,594 |
| - | 81,181,000 | 46,022,000 | 17,194,000 | - | - | - | - |
| - | 81,181,000 | 46,022,000 | 12,985,000 | - | - | - | - |
| - | 22,580,000 | 25,000,000 | 30,000,000 | 15,533,785 | - | - | - |
| - | 22,580,000 | 25,000,000 | 10,000,000 | 43,905,785 | - | - | - |
| 398,200,000 | 426,600,000 | 309,500,000 | 98,494,000 | - | - | - | - |
| 398,200,000 | 426,600,000 | 309,500,000 | 102,821,000 | 59,366,000 | - | - | - |
| 383,000,000 | 534,200,000 | 400,000,000 | 571,500,000 | - | - | - | - |
| 383,000,000 | 534,200,000 | 400,000,000 | 360,686,000 | 192,946,333 | - | - | - |
| 406,000,000 | 607,400,000 | 584,900,000 | 501,747,000 | 489,743,000 | - | - | - |
| 406,000,000 | 607,400,000 | 584,900,000 | 484,804,000 | 450,000,000 | 98,766,333 | - | - |
| 247,400,000 | 438,100,000 | 403,500,000 | 500,000,000 | 500,000,000 | 309,500,000 | - | - |
| 247,400,000 | 438,100,000 | 403,500,000 | 405,329,000 | 400,000,000 | 495,599,513 | - | - |
| - | 555,700,000 | 573,000,000 | 860,000,000 | 860,000,000 | 860,000,000 | 391,695,000 | - |
| - | 555,700,000 | 573,000,000 | 630,000,000 | 600,000,000 | 600,000,000 | 600,000,000 | 527,580,287 |

| 회계 및 소관 | 사 업 별 | 계속비총액 | 계 속 비 연 부 액 | | |
|---------|----------------|---------------|-------------|------|------|
| | | | 2005 | 2006 | 2007 |
| | 8. 지역간선국도6차건설 | | | | |
| | - 2010 예 산 | 1,763,936,000 | - | - | - |
| | - 2011 예 산 | 1,882,687,307 | - | - | - |
| | 9. 물류간선1차건설 | | | | |
| | - 2010 예 산 | 2,851,016,000 | - | - | - |
| | - 2011 예 산 | 3,156,168,433 | - | - | - |
| | 10. 전라선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247,481,000 | - | - | - |
| | - 2011 예 산 | 273,733,000 | - | - | - |
| | 11. 동순천-광양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178,817,000 | - | - | - |
| | - 2011 예 산 | 183,410,000 | - | - | - |
| | 12. 경춘선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752,848,000 | - | - | - |
| | - 2011 예 산 | 814,300,000 | - | - | - |
| | 13. 순천-여수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325,762,000 | - | - | - |
| | - 2011 예 산 | 347,595,000 | - | - | - |
| | 14. 삼랑진-진주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917,025,000 | - | - | - |
| | - 2011 예 산 | 960,364,000 | - | - | - |
| | 15. 덕소-원주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889,153,000 | - | - | - |
| | 16. 부산신항배후철도 | | | | |
| | - 2010 예 산 | 324,533,000 | - | - | - |
| | - 2011 예 산 | 319,453,000 | - | - | - |
| | 17. 부산신항웅동배후단지 | | | | |
| | - 2010 예 산 | 231,672,000 | - | - | - |
| | - 2011 예 산 | 231,672,000 | - | - | - |

(단위 : 천원 In Thousand KRW)

| 계 속 비 연 부 액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 - | 152,500,000 | 404,159,000 | 404,159,000 | 404,159,000 | 398,959,000 | - |
| - | - | 152,500,000 | 171,730,000 | 400,000,000 | 400,000,000 | 400,000,000 | 358,457,307 |
| - | 480,700,000 | 513,400,000 | 593,024,000 | 593,024,000 | 670,868,000 | - | - |
| - | 480,700,000 | 513,400,000 | 535,531,000 | 520,000,000 | 550,000,000 | 556,537,433 | - |
| - | 140,000,000 | 43,700,000 | 63,781,000 | - | - | - | - |
| - | 140,000,000 | 43,700,000 | 90,033,000 | - | - | - | - |
| - | 90,000,000 | 51,800,000 | 37,017,000 | - | - | - | - |
| - | 90,000,000 | 51,800,000 | 41,610,000 | - | - | - | - |
| - | 292,500,000 | 300,000,000 | 160,348,000 | - | - | - | - |
| - | 292,500,000 | 300,000,000 | 221,800,000 | - | - | - | - |
| - | 200,000,000 | 100,000,000 | 25,762,000 | - | - | - | - |
| - | 200,000,000 | 100,000,000 | 47,595,000 | - | - | - | - |
| - | 329,400,000 | 280,000,000 | 150,000,000 | 157,625,000 | - | - | - |
| - | 329,400,000 | 280,000,000 | 190,000,000 | 160,964,000 | - | - | - |
| - | 295,000,000 | 270,000,000 | 324,153,000 | - | - | - | - |
| - | 295,000,000 | 270,000,000 | 250,000,000 | 79,817,000 | - | - | - |
| - | 161,000,000 | 110,919,000 | 52,614,000 | - | - | - | - |
| - | 161,000,000 | 110,919,000 | 47,534,000 | - | - | - | - |
| - | 77,732,000 | 45,343,000 | 80,000,000 | 28,597,000 | - | - | - |
| - | 77,732,000 | 45,343,000 | 73,588,000 | 17,763,000 | 17,246,000 | - | - |

| 회계 및 소관 | 사 업 별 | 계속비총액 | 계 속 비 연 부 액 | | |
|-------------------------------|------------------|-------------|-------------|------|------|
| | | | 2005 | 2006 | 2007 |
|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해양부) | 18. 군장항남측안벽(3공구) | | | | |
| | - 2010 예 산 | 72,276,000 | - | - | - |
| | - 2011 예 산 | 73,229,000 | - | - | - |
| | 19. 광양항서측배후단지 | | | | |
| | - 2010 예 산 | 296,155,000 | - | - | - |
| | - 2011 예 산 | 296,155,000 | - | - | - |
|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국토해양부) | 20. 망우-금곡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232,174,000 | - | - | - |
| | - 2011 예 산 | 248,912,000 | - | - | - |
| | 21. 용산-문산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869,605,000 | - | - | - |
| | - 2011 예 산 | 961,354,000 | - | - | - |
| | 22. 오리-수원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606,272,000 | - | - | - |
| | - 2011 예 산 | 586,414,000 | - | - | - |
| | 23. 수원-인천복선전철 | | | | |
| | - 2010 예 산 | 810,039,000 | - | - | - |
| | - 2011 예 산 | 826,908,000 | - | - | - |
| 24. 천안4산단진입도로 | | | | | |
| - 2010 예 산 | 116,070,000 | - | - | - | |
| - 2011 예 산 | 121,659,000 | - | - | - | |
| 25.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 | | | | |
| - 2010 예 산 | 835,604,000 | - | - | - | |
| - 2011 예 산 | 892,777,000 | - | - | - | |
| 일반회계 (대법원) | 26. 서울북부지법청사 | | | | |
| | - 2010 예 산 | 37,400,000 | - | - | - |
| | - 2011 예 산 | 37,400,000 | - | - | - |
| | 27. 서울가정행정법원 | | | | |
| - 2010 예 산 | 83,488,000 | - | - | - | |
| - 2011 예 산 | 83,488,000 | - | - | - | |
|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 28. 국립생태원건립 | | | | |
| | - 2010 예 산 | 288,000,000 | - | - | - |
| | - 2011 예 산 | 270,254,000 | - | - | - |

(단위 : 천원 In Thousand KRW)

| 계 속 비 연 부 액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 36,800,000 | 29,073,000 | 6,403,000 | - | - | - | - |
| - | 36,800,000 | 29,073,000 | 7,356,000 | - | - | - | - |
| - | 99,211,000 | 62,565,000 | 66,052,000 | 68,327,000 | - | - | - |
| - | 99,211,000 | 62,565,000 | 60,000,000 | 74,379,000 | - | - | - |
| - | 90,000,000 | 105,000,000 | 37,174,000 | - | - | - | - |
| - | 90,000,000 | 105,000,000 | 53,912,000 | - | - | - | - |
| - | 170,000,000 | 280,000,000 | 250,000,000 | 169,605,000 | - | - | - |
| - | 170,000,000 | 280,000,000 | 250,000,000 | 261,354,000 | - | - | - |
| - | 145,000,000 | 140,000,000 | 140,000,000 | 130,000,000 | 51,272,000 | - | - |
| - | 145,000,000 | 140,000,000 | 140,000,000 | 150,000,000 | 11,414,000 | - | - |
| - | 100,000,000 | 110,000,000 | 180,000,000 | 180,000,000 | 240,039,000 | - | - |
| - | 100,000,000 | 110,000,000 | 145,000,000 | 180,000,000 | 170,000,000 | 121,908,000 | - |
| - | 74,550,000 | 20,760,000 | 20,760,000 | - | - | - | - |
| - | 74,550,000 | 20,760,000 | 26,349,000 | - | - | - | - |
| - | 170,030,000 | 200,000,000 | 190,000,000 | 220,000,000 | 55,574,000 | - | - |
| - | 170,030,000 | 200,000,000 | 250,000,000 | 272,747,000 | - | - | - |
| - | 30,644,000 | 6,756,000 | - | - | - | - | - |
| - | 30,644,000 | 6,756,000 | - | - | - | - | - |
| - | 6,762,000 | 18,409,000 | 58,317,000 | - | - | - | - |
| - | 6,762,000 | 18,409,000 | 25,706,000 | 32,611,000 | - | - | - |
| - | 6,762,000 | 98,900,000 | 114,900,000 | - | - | - | - |
| - | 6,762,000 | 98,900,000 | 57,100,000 | 40,054,000 | - | - | - |

| 제2장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 구 분 Classification | 기 금 명 Name of Fund |
|---|--|
|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기금(Employment Insurance Fund) - 공무원연금기금(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국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 - 군인연금기금(Military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Korea 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관리기금(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공적자금상환기금(Public Fund Repayment Fund) - 복권기금(Lottery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외국환평형기금(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10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신용보증기금(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 구조조정기금(Finance&Corporate Restructuring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holds) - 부실채권정리기금(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무역보험기금(Korea Trade Insurance Fund) -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

| 구분 Classification | 기금명 Name of Fund |
|--------------------------------|--|
|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3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진흥기금(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관광진흥개발기금(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국제교류기금(International Exchange Fund) - 군인복지기금(Military Welfare Fund) - 근로복지진흥기금(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금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 낙동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농산물가격안정기금(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Reinsurance Fu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 농지관리기금(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문화재보호기금(Heritage Protec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보훈기금(Merit Reward Fund) - 사학진흥기금(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수산발전기금(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Fund for Patriotic Martyrs & Patriots)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 언론진흥기금(Korea Press Fund) - 여성발전기금(Women's Development Fund)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 영화발전기금(Film Development Fund) - 원자력연구개발기금(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 응급의료기금(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 임금채권보장기금(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Support Fund)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전력산업기반기금(Electric Power Industry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Youth Supporting Fund) - 축산발전기금(Livestock Development Fund)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 한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 석면피해구제기금(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Criminal Victim Protection Fund) |
| 합 계 | 총 64개 기금 |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 : 조원(In Thousand Billion KRW)

| 구분 Classification | 운용규모 Fund Operation | | | | | |
|----------------------------|--|-------|-------------------|-------|---------|-------|
| | 2010년도 FY 2010 | | 2011년도 FY 2011 | 증감률 | | |
| | 당초 | 국회수정 | | 당초대비 | 국회수정 대비 | |
| 운용규모 Size of Management | 476.9 | 476.9 | 369.3 | △22.6 | △22.6 | |
| 수입 |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 111.2 | 111.2 | 117.3 | 5.5 | 5.4 |
| |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 140.6 | 140.6 | 61.6 | △56.2 | △56.2 |
| | • 차입금(Borrowings) | 116.4 | 116.4 | 102.0 | △12.4 | △12.4 |
| | • 여유자금회수 (Surplus Asset Collection) | 108.7 | 108.7 | 88.5 | △18.6 | △18.6 |
| 지출 | • 사업비 (Project Cost) | 92.7 | 92.8 | 85.6 | △7.7 | △7.7 |
| |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 35.6 | 35.6 | 37.9 | 6.5 | 6.5 |
| | – 금융성·계정성 (Financial / Account Fund) | 24.0 | 24.0 | 12.8 | △46.5 | △46.5 |
| | – 사업성 (Project Fund) | 33.1 | 33.2 | 34.9 | 5.2 | 5.1 |
| | • 기금운영비(Fund operation) | 2.1 | 2.1 | 2.4 | 16.1 | 16.1 |
| | • 정부내부지출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 236.6 | 236.6 | 152.1 | △35.7 | △35.7 |
| |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 145.5 | 145.5 | 129.2 | △11.2 | △11.2 |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단위 : 억원(In Hundrend Million KRW)

| 기금명 | 자체수입 | 정부내부 수입 | 차입금 | 여유자금 회수 | 합계 |
|--|---------|------------|---------|------------|-----------|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48,840 | 2,845 | - | 21,721 | 73,406 |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98,117 | 20,280 | 1,569 | 21,798 | 141,765 |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410,908 | 107 | - | 356,562 | 767,577 |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3,656 | 20,069 | - | 1,854 | 25,579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s Pension Fund) | 38,645 | 7,191 | - | 46,171 | 92,008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55,969 | 877 | - | 40,973 | 97,819 |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49,635 | 235,824 | 824,335 | 1,750 | 1,111,545 |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31 | 24,654 | - | - | 24,685 |
| 복권기금 (Lottery Fund) | 26,135 | 115 | - | 7,163 | 33,413 |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3 | 6,134 | - | 78 | 6,215 |
|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39,087 | 160,000 | 11,500 | 155,143 | 365,729 |
| 구조조정기금(Fiance&Corporate Restructuring Fund) | 4,233 | - | 50,000 | 1,518 | 55,751 |
|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 10,606 | - | - | 14,461 | 25,067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 4,886 | - | - | 19,521 | 24,406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holds) | 637 | 637 | - | 268 | 1,542 |
|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 8,837 | 1,000 | - | 14,033 | 23,870 |
| 부실채권정리기금 (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 15,517 | - | - | 13,397 | 28,914 |

단위 : 억원(In Hundrend Million KRW)

| 기 금 명 | 자체수입 | 정부내부 수입 | 차입금 | 여유자금 회수 | 합계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341 | 180 | - | 1,677 | 2,198 |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22,765 | - | - | 23,480 | 46,245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 35,009 | - | 15,000 | 30,683 | 80,691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 8,213 | - | - | 6,496 | 14,709 |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506 | 554 | - | 339 | 1,399 |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5,854 | 44 | - | 532 | 6,430 |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16,616 | 1,079 | - | 1,903 | 19,598 |
|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 107,581 | 94,997 | 95,000 | 58,058 | 355,636 |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5,540 | 579 | - | 2,306 | 8,425 |
| 국제교류기금 (International Exchange Fund) | 541 | 213 | - | - | 754 |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4,866 | 407 | - | 2,423 | 7,696 |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1,693 | 315 | - | 2,278 | 4,286 |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 884 | - | - | 70 | 954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1,995 | - | - | 23 | 2,018 |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709 | 4,611 | - | 8,449 | 13,768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 22,130 | 22 | - | 3,708 | 25,859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Reinsurance Fu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 156 | 350 | - | 1,055 | 1,561 |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8,909 | 100 | - | 1,958 | 10,967 |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1,112 | 5,036 | - | 1,226 | 7,375 |
| 문화예술진흥기금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476 | 541 | - | 1,578 | 2,595 |
| 문화재보호기금 (Heritage Protection Fund) | 42 | 887 | - | 309 | 1,238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2,939 | 1,584 | - | 2,082 | 6,606 |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4,356 | 255 | - | 834 | 5,445 |

단위 : 억원(In Hundrend Million KRW)

| 기금명 | 자체수입 | 정부내부 수입 | 차입금 | 여유자금 회수 | 합계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inal Victim Protection Fund) | 6 | 618 | - | - | 624 |
|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 2,713 | 740 | - | 3,066 | 6,520 |
|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1,715 | 2,210 | - | 108 | 4,032 |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 79 | 60 | - | - | 139 |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5,269 | 660 | - | 497 | 6,426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Patriotic Martyrs & Patriots) | 121 | 53 | - | 334 | 508 |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 3 | 8,374 | - | 417 | 8,795 |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187 | 50 | - | 312 | 549 |
|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 10 | 1,267 | - | 57 | 1,334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 705 | - | - | 28 | 733 |
|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 515 | 419 | - | 2,150 | 3,084 |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 1,898 | - | - | 79 | 1,977 |
|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 110 | 1,870 | - | 15 | 1,995 |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3,544 | 124 | - | 2,319 | 5,987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 Support Fund) | 408 | 3,019 | - | 707 | 4,134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for the Disabled) | 2,209 | 580 | - | 586 | 3,375 |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 16,570 | 775 | - | 3,069 | 20,414 |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9,611 | 639 | - | 1,851 | 12,102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47,339 | 2,659 | 22,494 | 59 | 72,551 |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25 | 40 | - | 246 | 312 |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 253 | 356 | - | 398 | 1,007 |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6,013 | - | - | 403 | 6,415 |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 59 | - | - | 69 | 127 |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 4,273 | - | - | 5 | 4,279 |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단위 : 억원(In Hundrend Million KRW)

| 기금명 | 사업비 | 기금운영비 | 정부내부 지출 등 | 여유자금 운용 | 합계 |
|---|---------|-------|--------------|------------|-----------|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59,461 | 1,001 | 2,500 | 10,444 | 73,406 |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113,524 | 857 | 601 | 26,783 | 141,765 |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105,124 | 3,979 | - | 658,475 | 767,577 |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23,516 | 6 | 200 | 1,856 | 25,579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s Pension Fund) | 33,976 | 748 | - | 57,283 | 92,008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43,871 | 2,719 | 2,000 | 49,229 | 97,819 |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4,335 | 1 | 1,105,250 | 1,959 | 1,111,545 |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 | - | 24,685 | - | 24,685 |
| 복권기금 (Lottery Fund) | 18,426 | 13 | 8,615 | 6,359 | 33,413 |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 - | 6,134 | 80 | 6,215 |
|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 | 1 | 104,438 | 261,291 | 365,729 |
| 구조조정기금(Fiance&Corporate Restructuring Fund) | 50,000 | 184 | 1,894 | 3,673 | 55,751 |
|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 11,807 | 1,626 | - | 11,634 | 25,067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 3,375 | 604 | - | 20,427 | 24,406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hold) | 1,274 | - | - | 269 | 1,542 |
|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 10,493 | 942 | - | 12,435 | 23,870 |
| 부실채권정리기금 (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 1,554 | 3,099 | 9,500 | 14,761 | 28,914 |

단위 : 억원(In Hundrend Million KRW)

| 기 금 명 | 사업비 | 기금운영비 | 정부내부 지출 등 | 여유자금 운용 | 합 계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193 | 105 | - | 1,900 | 2,198 |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24,251 | 3,100 | - | 18,893 | 46,245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 755 | 170 | 51,811 | 27,956 | 80,691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 1,882 | 574 | 364 | 11,889 | 14,709 |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995 | 9 | 343 | 51 | 1,399 |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5,419 | 6 | 600 | 405 | 6,430 |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17,959 | 1 | 398 | 1,240 | 19,598 |
|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 155,736 | 3 | 149,194 | 50,704 | 355,636 |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6,846 | 218 | 800 | 561 | 8,425 |
| 국제교류기금 (International Exchange Fund) | 571 | 105 | - | 78 | 754 |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4,637 | - | - | 3,059 | 7,696 |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747 | 79 | 982 | 2,479 | 4,286 |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 898 | 16 | - | 39 | 954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1,935 | 32 | - | 51 | 2,018 |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10,153 | 56 | 1,272 | 2,288 | 13,768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o-Fishery Marketing Price Stabilization) | 21,159 | 601 | 800 | 3,299 | 25,859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Reinsurance Fu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 100 | 6 | - | 1,455 | 1,561 |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7,918 | 582 | 512 | 1,955 | 10,967 |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6,179 | 59 | 444 | 693 | 7,375 |
| 문화예술진흥기금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1,005 | 112 | 201 | 1,277 | 2,595 |
| 문화재보호기금 (Heritage Protection Fund) | 929 | 1 | - | 308 | 1,238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1,590 | 400 | 1,500 | 3,115 | 6,606 |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4,429 | 32 | 500 | 484 | 5,445 |

단위 : 억원(In Hundrend Million KRW)

| 기금명 | 사업비 | 기금 운영비 | 정부내부 지출 등 | 여유자금 운용 | 합계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inal Victim Protection Fund) | 515 | 1 | - | 108 | 624 |
|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 1,260 | 13 | 704 | 4,542 | 6,520 |
|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2,789 | 37 | 697 | 510 | 4,032 |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 118 | 16 | - | 5 | 139 |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5,569 | 15 | 14 | 828 | 6,426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Patriotic Martyrs & Patriots) | 57 | 2 | - | 449 | 508 |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 7,993 | 74 | 118 | 609 | 8,795 |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263 | 9 | - | 277 | 549 |
|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 1,299 | 1 | 4 | 30 | 1,334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 675 | 11 | - | 47 | 733 |
|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 853 | 93 | 200 | 1,938 | 3,084 |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 1,748 | 39 | - | 190 | 1,977 |
|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 1,709 | 1 | - | 285 | 1,995 |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2,837 | 99 | 200 | 2,851 | 5,987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 Support Fund) | 3,783 | 33 | - | 318 | 4,134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for the Disabled) | 1,769 | 432 | 252 | 922 | 3,375 |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 15,302 | 90 | 2,000 | 3,022 | 20,414 |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6,915 | 168 | 2,500 | 2,519 | 12,102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33,423 | 755 | 38,374 | - | 72,551 |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124 | 6 | - | 181 | 312 |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 774 | 1 | 3 | 230 | 1,007 |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5,442 | 39 | 56 | 878 | 6,415 |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Fund for Use Rationaliz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 39 | 10 | - | 79 | 127 |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 4,110 | 70 | - | 98 | 4,279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성명 | 소속 및 직급 | 작성 부분 |
|-----|-------------|---|
| 김현곤 | 예산관리과 과장 | 종합 편집 |
| 최성규 | 예산관리과 사무관 | " |
| 최장원 | 예산관리과 사무관 | " |
| 봉진숙 | 예산관리과 주무관 | " |
| 안소영 | 예산관리과 에디터 | " |
| 문성유 | 예산총괄과 과장 | 제2부 중 재정운용 전략 제3부 중 2011년도 예산, 예산통계 |
| 이제훈 | 예산총괄과 서기관 | " |
| 강준모 | 예산총괄과 사무관 | 제2부 중 재정운용 전략 |
| 강승민 | 예산총괄과 사무관 | 제3부 중 예산통계 |
| 최상대 | 예산정책과 과장 | 제2부 중 재정운용 여건, 세입규모, 지출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2011년도 재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
| 최용호 | 예산정책과 사무관 | " |
| 류승수 | 예산정책과 사무관 | " |
| 정정훈 |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 제3부 중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 통계 |
| 이복원 |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 |
| 문옥두 |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제3부 중 기금통계 |
| 이형철 |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R&D 분야 |
| 장도환 | 연구개발예산과 서기관 | " |
| 한 훈 | 지식경제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 성명 | 소속 및 직급 | 작성 부분 |
|-----|-------------|----------------------|
| 이성원 | 지식경제예산과 서기관 | 제2부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 강승준 | 국토해양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SOC분야 |
| 정 한 | 국토해양예산과 서기관 | " |
| 임기근 | 농림수산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
| 윤범식 | 농림수산예산과 서기관 | " |
| 방기선 | 복지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보건·복지 분야 |
| 박재형 | 복지예산과 서기관 | " |
| 허남덕 | 노동환경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일자리 분야, 환경 분야 |
| 김경국 | 노동환경예산과 사무관 | 제2부 중 일자리 분야 |
| 박정민 | 노동환경예산과 사무관 | 제2부 중 환경 분야 |
| 윤병태 | 교육과학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교육 분야 |
| 조규산 | 교육과학예산과 서기관 | " |
| 이정도 | 문화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
| 이지원 | 문화예산과 사무관 | " |
| 오규택 | 국방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국방 분야 |
| 조용수 | 국방예산과 사무관 | " |
| 이종욱 | 행정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통일·외교 분야 |
| 이원경 | 행정예산과 사무관 | " |
| 박영각 | 법사예산과 과장 | 제2부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 |
| 이호모 | 법사예산과 서기관 | "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02-734-6818(매장) 또는 02-394-0337(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1 나라살림(예산개요)

| | |
|--------|--|
| 발간등록번호 | 11-1051000-000020-10 |
| 발행처 | 기획재정부 |
| 발행인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
| 발행일 | 2011년 3월 |
| 연락처 | Tel. 02-2150-7194 Fax. 02-3418-0968 |

값 : 14,000원

